

‘로잔너머’ 연속 심포지엄 자료집 모음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_ 2023/6/27

로잔운동과 한국사회선교운동 _ 2023/8/29

로잔운동과 청년의 공감 _ 2023/10/31

로잔신학과 신학의 과제 _ 2023/12/26

로잔너머, 이제 한국 교회는 어디로? _ 2024/3/11

“

2024년 9월, 한국에서 로잔 50주년 기념 제4차 로잔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로잔 정신에 기반하여 사회선교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들이 모여 로잔 정신과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로잔운동이 한국교회에 준 영향과 맺어왔던 관계를 다각도에서 살피면서, 2024 로잔대회가 담아내야 할 ‘총체적 복음’의 이슈와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선교운동이 로잔 정신의 영적, 신학적 자양분을 바탕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최 | 로잔너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
로잔포스트,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청어람ARMC

로잔너머 연속 심포지엄

자료집 모음

1차 -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2023년 6월 27일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차 - 로잔운동과 한국사회선교운동

2023년 8월 29일 / 성서한국

3차 - 로잔운동과 청년의 공감

2023년 10월 31일 / 로잔포스트

4차 - 로잔신학과 신학의 과제

2024년 12월 26일 /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5차 - 로잔너머, 이제 한국 교회는 어디로?

2024년 3월 11일 /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발간일 | 2024년 7월 1일

주 최 | 로잔너머

편 집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

문 의 | 02-794-6200

cemk@hanmail.net

목차

1차 -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 [발제문]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 - 언약과 선언과 서약으로(이문식) _ 7
- [논찬문]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 논평(강성호) _ 23
- [논찬문] 로잔 정신과 크신 하나님 : 경계를 허무는 교회(김현아) _ 28

2차 - 로잔운동과 한국사회선교운동

- [발제문] 국제 로잔 운동과 한국 사회선교운동(구교형) _ 37
- [발제문] 제4차 로잔대회는 무엇을 넘어야 하나, 한 여성 신학·윤리학자의 제언(백소영) _ 46
- [논찬문] 로잔운동과 한국사회선교운동 토론문(이성영) _ 58
- [논찬문]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넘을까요?(박현철) _ 61

3차 - 로잔운동과 청년의 공감

- [발제문]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황규태) _ 69
- [발제문]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김서진) _ 75
- [발제문]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하기(박다혜) _ 82
- [논찬문] <황규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에 대한 논찬(전성민) _ 88
- [논찬문] <김서진,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에 대한 논찬(김종호) _ 90
- [논찬문] <박다혜,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에 대한 논찬(이강일) _ 93

4차 - 로잔신학과 신학의 과제

- [발제문] 로잔의 ‘총체성’과 ‘변혁’개념에 대한 사회신학적 평가
총체적 변혁신학으로서 로잔 : 복음과 사회변혁(김동춘) _ 97
- [발제문] 세계화의 종교적 표현으로서 오순절운동 : 현상, 동력, 그리고 과제(배덕만) _ 122
- [논찬문] <김동춘, 로잔의 총체성과 변혁 개념에 대한 사회신학적 평가> 논찬(이강일) _ 142
- [논찬문] 삼위 하나님이 ‘변방-비주류-종말’적 오순절 운동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구교형)
_ 145

5차 - 로잔너머, 이제 한국 교회는 어디로?

- [발제문]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새 비전 제시(김세윤) _ 153
- [논찬문] 로잔을 넘는 기독교 평신도운동 - 세상 속의 복음, 교회 밖의 신앙(이병주) _ 164
- [논찬문]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에 대한 반성과 나아갈 길(정병오) _ 195
- [논찬문] 로잔 심포지움을 마치며, 한 사회선교운동가의 소회(구교형) _ 199

로잔너머 활동일지 _ 205

‘로잔너머’ 연속 심포지엄

1차/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2023년 6월 27일

주관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발제문]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

- 언약과 선언과 서약으로

이문식 _ 광고산울교회 목사, 기윤실 이사

들어가는 말

로잔 언약은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A)의 선교 신학을 가장 잘 나타낸 문서이다. 로잔 언약을 통하여 복음주의 선교 신학은 총체적 선교 신학으로 열매를 맺었다. 특히 복음 전도 및 선교에 있어서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원화했고, 그중 개인 구원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왔던 기존의 이원론적 선교 신학을 벗어나, 전인 구원이라는 선교적 총체성을 추구했다. 이것이 로잔I대회에서 로잔III대회까지 이루어진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주된 흐름임을 이해해야 한다.

I. 로잔I대회 이전의 흐름(1966-1974.6)

로잔 대회 이전에 세계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 번의 대회를 통하여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 대회들을 통해 채택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 고뇌한 흔적은 보였지만, 뚜렷한 신학적 입장을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휘튼 선언(The Wheaton Declaration, 1966년 4월)

우선 1966년 4월 미국의 일리노이주 휘튼에서 '복음주의 해외선교회'와 '교파 해외선교회' 소

속의 102개의 선교부의 대표가 주축이 되어 채택한 ‘휘튼 선언’을 보면 그 초안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보수적인 성격의 성명 초안이었다.

그러나 이 초안을 미리 입수한 비(非)서구 교회의 대표들은 이에 반발하여 여러 분과위에서 격한 토론과 연설을 했으며 총회에서는 결국 다음과 같은 몇몇 조항을 덧붙이는 데 성공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주 세상 문제들과 정직하게 부딪혀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성경적 원리들을 인종차별, 전쟁, 인구폭발, 가난, 가정 붕괴, 사회혁명 및 공산주의와 같은 문제들에 적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모든 복음주의자가 전 세계 인종의 평등, 자유 모든 형태의 사회정의를 위하여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싸울 것을 촉구한다.”

이 휘튼 선언은 루벤 로레스(Ruben Lores)가 이 대회가 끝난 직후에 말한 것처럼 ‘과거의 그릇된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또 많은 복음주의자가 사회활동을 자유주의 신학과 동등시하게 만드는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대회였다’는 평을 받았다. 사실 이 대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복음주의자들이 신학화 작업을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준 대회였다.

2. 베를린 세계 복음 전도 대회(The World Congress of Evangelism, 1966년 10월)

그러나, 이런 휘튼 선언에 대한 보수적 반동은 곧 다시 일어났다. <크리스체너티 투데이>지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을 중심으로 한 선교대회가 1966년 10월 베를린에서 열렸다. 이 세계 전도 대회는 전 세계 100여 국의 대표 1,1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빌리 그래함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주요 과제로 되돌아온다면,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의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 필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종래의 보수적 확신을 재차 단언했다.

이 대회는 복음주의 진영 내의 같은 우파인 아서 존스톤(Arthur Johnston)조차도 ‘서구적인 조

직과 표현이 지배적이었던 대회였다'고 인정했으며, '교회의 유일한 선교적 사명이 복음 선포임을 확고하게 주장하긴 했지만, 사회활동을 위한 신학적 기초는 세우지 못한' 대회였다.

3. 시카고 선언(Chicago Declaration of Evangelical Social Concern, 1973년 11월)

1966년에 4월과 10월에 모인 이 두 대회의 대립적 성격은 그 후 약 7년간 세계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다가 1973년 11월의 추수 감사절 워크숍에서 나온 '복음주의적 사회적 관심에 대한 시카고 선언(Chicago Declaration of Evangelical Social Concern)'을 통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선언은 이후에 로잔 언약을 향한 신학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이 선언서는 '본질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신다'라는 확언과 함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지 못한 잘못'에 대한 고백을 표명하며, 그 부분에 대해 '회개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불의에 맞서는 제자도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했다. 이 모임이 끝난 직후 <크리스체너티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빌리 그래함은 자신의 변화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나는 최근에 발표된 복음주의적 관심에 대한 시카고 선언의 대부분에 동의한다. 나는 우리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잘 알아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세 대회는 결국 '로잔 언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던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일치를 향해 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전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는 비로소 로잔 언약을 통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란 쟁점에 대한 보편적이며 기초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II. 로잔 I 대회(1974. 6)

150개 국가와 135개 교파의 대표 2,473명과 1,000명의 참관인이 참석함으로써 <타임>지가 '기독교 역사 이래, 사도시대 이후 최대의 광범위한 기독교 집회'라고 평한 '세계 복음화에 관한 국제대회'는 1974년 6월 16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대회 중에 제기된 여러 토론 주제 중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쟁점에 가장 크게 이끌렸으며, 이 토론은 결국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조항을 ‘로잔 언약’에 포함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간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하려는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여야 한다. … 우리는 왕왕 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회한다. …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제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중에, 조종남 옮김)

한마디로, 로잔 언약은 ‘교회의 선교’를 ‘복음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었다. 또한 그동안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 명백하게 반영되었던 문화와 사회에 대한 보수적 태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정도의 선언에도 비(非)서구 교회의 대표들은 만족할 수 없었다. 소위 ‘급진적인 제자도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소위 제3세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로잔에 대한 반응’이란 문서를 폐회 당일 총회에 제출했는데 이 문서는 총회 석상에서 즉각 500여 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으며 의장인 존 스토틀(John Stott)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 로잔 언약의 부록으로 채택되었다. 이 문서는 소위 ‘총체적 선교’란 개념을 창출했으며, 로잔 언약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 강력한 문서였다.

III. 로잔 I 과 II대회 사이(1974.4-1989.7)

1. An Evangelism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1981년)

이후 1979년 10월의 인도 Madras대회와 1980년의 남미 복음화 대회는 이 “총체적 선교개념”을 더욱 지지했으며 그 결과 ‘로잔 위원회 신학 및 교육부’와 ‘WEF 신학위원회 윤리 및 사회분과’는 1981년 ‘검소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의 헌신(An Evangelism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을 발표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 위원회는 ‘교회가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설 것을 요청’했으며, ‘정의롭고 책임성 있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2. 휘튼 선언(1983년)

이러한 로잔대회 이후의 복음주의 교회의 신학적 동향은 1982년의 그랜드 래피즈 회의를 거쳐, 1983년 휘튼 선언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두 정리되고 일치됨으로써, 그간의 긴 신학적 갈등과 논쟁은 종결되었다. 휘튼 선언은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와 ‘사유재산권’, ‘무기 경쟁’, ‘국제적 불의’를 지적하며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시 강조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고, 사회적이며 개인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영적’이라는 총체적 개념을 강조했다.

그 결과, 르네 빠디아(Rene Padilla)의 말처럼 ‘오늘날 대부분 복음주의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힘쓰고, 육체적인 필요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인간의 필요에 반응하는 교회**’라는 성명서를 휘튼 대회에서 채택하며, ‘인간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변혁시키는 권능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또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이요, 정치나 다른 활동에의 참여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지라도, 우리는 비(非)참여 그 자체가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반드시 악한 사회구조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그 구조를 지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정치적 참여의 불가피성을 확인했다(1983년 휘튼 선언 1장 3항).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기반에 기초하여 복음주의 교회의 새로운 총체적 선교개념을 창출했다. 특히 필리핀과 남미 등 비(非)서구 교회의 지도자들과 비(非)서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H. Coon, R. Padilla, O. Costas, R. Sider, A. Kirk)은 총체적 선교개념을 가다듬고, 내용을 채우는 일에 전념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1989년에 치러진 로잔II 대회의 마닐라 선언에 반영되었다.

IV. 로잔II대회 - 마닐라 선언(1989.7)

198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로잔II대회로 모인 170여 나라 출신의 3,0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은 마닐라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의 서문에는 세계복음주의 협의회가 일련의 신학적 발전을 하게 된 공로가 “지난 15년 동안 복음과 문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검소한 생활 양식, 성령, 중생과 같은 주제로 모인 소규모의 신학 협의회”에 있음을 천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로잔II대회에서 ‘**총체적 복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나오게 만든 15년간의 신학적 주제 중 다수가 사회문화 변혁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이 선언문 제1부 21항의 신앙 고백 중 9항을 보면,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므로 개인적이든 구조적이든

모든 불의와 억압을 고발하면서 이 예언자적 증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고백한다”라고 적혀 있다. 또 제2부의 12개 항목의 주제 선언 중 4항 “복음과 사회적 책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는 그의 나라에 용납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예언자적인 지적을 하도록 요청한다. 우리가 개탄하는 악은 제도화된 폭력, 정치적 부패, 사람과 땅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착취, 가정파괴, 낙태, 마약 유통, 인권의 유린과 같은 파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 참된 선교는 언제나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겸허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회적 현실, 비애와 고통, 그리고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여기서, 우리는 로잔 I 과 II 사이에 비(非)서구 지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온 총체적 선교개념이 수용되어 로잔 II 대회에서 문서로 만들어진 사실을 볼 수 있다. 로잔 I 대회가 **언약**이라는 형태의 내부적 문서를 채택한 데 비하여 로잔 II 대회는 **선언**이라는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했다.

V. 2010년 제3차 로잔 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타난 총체적 선교

2010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의 복음주의 신앙인들의 숫자에 비례하여 대표단을 선발했는데 총 4,000명의 대표단이 선발되었다. 인상적인 것은 100년 전에 열렸던 에든버러 선교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비(非) 서구지역의 대표권과 발언권이 아주 크게 신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교회는 원래 무려 230명의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중국 공안당국이 공항에서 이들의 출국을 저지함으로써 극소수의 대표들만 참여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다. 이 일에 대해 로잔 대회의 의장인 더그 버드셀은 “이는 마치 브라질이 빠진 월드컵과 같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대회 전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케이프타운 서약**을 그 열매로 하나님과 온 세계 교회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특히 ‘회개에 따라오는 온전함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박해나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반성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교만 인기와 성공, 부와 탐욕의 우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님의 선교를 훼방하는 일을 중지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고 단순한 삶을 살 것을 요청했다. 이것이 케이프타운 서약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한 선언

이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케이프타운 서약은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것을 기존의 입장을 **피조 세계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까지로 더욱 확장하여 강조했다.

“총체적 선교는 복음이 개인들과 사회와 피조 세계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며 살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사회와 피조 세계 모두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구속적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된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포괄적 선교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서약, 7a)

- 2) 케이프타운 서약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 동시에 억압받는 자, 국외자, 굶주린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이 사회의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부여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율법과 예언자들, 시편과 지혜서들, 예수님과 바울, 야고보와 요한에 의해- 실천적인 사랑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는 명령을 받았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행위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악이 존재하는 곳마다 악과 불의를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공유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데 실패하며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부끄러움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대신하는 연대성과 옹호를 포함하여 정의를 촉진하는 데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받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서 악에 대항하는 이러한 영적 전투를 인식한다.”(서약, 7c)

- 3) 케이프타운 서약은 사랑의 계명을 **연합**과 연결하여 세상의 모든 **분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강조한다.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확신하는 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고질적인 분열의 장벽들-인종과 피부색, 사회계층, 경제적 특권이나 정치적 노선의 장벽들을 넘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나타난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수치스러운 극단적인 물질적 불평등으로 심히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모든 이들을 위한 상호관계와 충족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바울의 교훈과 열망을 부정한다. 우리는 때때로 선교를 위한 우리의 열망에 해독을 끼치는 경쟁을 규탄한다.”(서약, 9a)

4) 케이프타운 서약은 **총체적 선교**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써 확증하고 강조했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확증한다.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우리의 교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수적인 표현들이다. …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전체성 가운데 우리를 변혁시켜야만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통전적 선교(integral mission)는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증명이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나란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통전적 선교 안에서 우리의 선포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하는 은혜에 대한 증거를 담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참여는 복음 전도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무시한다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져갈 아무 것도 없게 된다.”(서약, 10c)

케이프타운 서약은 그 전문(Preamble)에서 이미 “우리는 좋건 나쁘건 간에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과 전 세계적으로 변하는 정치 경제적인 힘의 균형에 충격을 느낀다. 전 세계적인 빈곤, 전쟁, 질병, 생태학적 위기, 기후변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는 변화들은 우리에게 슬픔과 불안을 초래한다.”라고 21세기의 선교적 상황을 정돈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분석이 그 자체로 총체적이며 여기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도 또한 총체적으로 정돈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제3차 로잔 대회 선언문인 케이프타운 서약은 더욱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상황을 잘 인식한 총체적 선교 보고인 동시에 실행을 특별하게 강조한 실천적인 서약이라고 할 수 있다.

VI. 로잔III 대회 이후의 한국교회의 과제

이와 같은 전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와 단체들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 선교 단체들은 WEF의 이러한 흐름과는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지난 80년대 이후 급변했던 한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맞이했으며, 그 결과 한국 사회에 대한 복음주의 교회의 영향력은 지난 30년 동안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회에 대한 접촉점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협소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비판적 지식인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극복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우리 복음주의 선교 단체들은 80년대 전반에 기독교 세계관 확립 운동을 기축으로 한 ‘균형 잡힌 기독교’의 수준에만 머물러서 ‘총체적 기독교’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사실 이것은 한국 복음주의 신학계의 한계요, 동시에 전기 개혁주의적 근본주의보다는 후기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의 경향에 더 뿌리 깊어 서 있는 한국 교계의 폐쇄성, 교조성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신학적 폐쇄 및 고립화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오늘날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세계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가장 우파적이다. 또한 그동안의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미국의 자본주의적 상업주의 신학의 성격을 띠고 비난받는 교회 성장 신학에만 매달려 물량주의적 교회 성장을 열렬히 추구해 왔었다. 한국의 복음주의적 선교 단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직 ‘구령 전도’와 ‘기독교인의 개인적인 인격 성숙’만을 목표로 한 미국 중산층 교리의 틀에 맞춘 협소하고 빈약한 복음 전도와 제자도 개념을 근거 삼아 선교활동을 해왔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잔 언약에 참여한 서구와 미국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비(非) 서구지역의 신학자들도 포괄하는 전 세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교회가 애써 확립한 총체적 선교개념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제는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편협한 신학적 입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 신학적 기반 위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주축으로 한 선교 신학과 선교 방법론을 가지고 총체적 선교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이원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정의’를 함께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학의 자주화’이다. 물론, 이것은 계시적 보편성과 교리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과거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단체가 교육하는 내용은 한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었다.

왜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그 보편성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 예를 들면, 극단적인 이념 분쟁의 문제, 남북통일 문제, 전통문화와 세속문화에 관한 입장,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문제, 노동에 관한 문제,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관한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문제 등등 -에 대

하여 신학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서구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관념적 명제들에만 매달리는 결과만을 양산해 내고 말았는가?

한마디로, 한국의 신학이 서구의 신학에 뿌리 깊게 종속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보아 알겠지만, 그동안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추동 세력은 예전에 제3세계라고 불렸던 비(非) 서구지역에 속한 주체성 있는 신학자들이며 그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들은 각기 자기 모국의 교회가 부딪친 문제를 신학화하면서, 세계복음주의 협의회가 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에 답변하는 가운데 세계 신학은 서구 일변도의 신학적 주제들을 벗어나면서, 새로운 교회의 현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또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데 따라 세계 신학은 그 다양성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신학과 교리적 기초에 서 있되 창조적인 신학 작업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만 한국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단체들은 이 시대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세계복음주의 교회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제1차 세계복음주의 로잔 대회(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그 유명한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이 체결되었다. 제2차 마닐라 대회(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마닐라 선언**(The Manila Manifesto)이 채택되었다.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 **케이프타운 서약**을 결과물로 만들어냈다.

이처럼 **언약**(Covenant), **선언**(Manifesto), **서약**(Commitment)으로 표현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중한 문건들이 우리 세대 복음주의의 총체적 신앙고백으로 남게 되었다.

이 유산을 지금(Now), 이곳에서(Here) 적용하고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의 시대적이고 선교적인 과제일 것이다.

나의 사역과 로잔 언약

이문식 목사

1980년대는 나의 청년기 후반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무대다. 54년생인 나는 27살 되던 해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신학생이었다. 25세 전반까지만 해도 니체, 도스토옙스키, 키르케고르의 책을 끼고 지독한 실존적 문제로 하나님과 내면의 씨름을 하고 있던 나는 27세를 기점으로 역사적 문제에 대한 신앙적, 신학적 고뇌를 하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개혁 사상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 신학적 통찰을 통합해 나가고 있던 나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한반도와 남미 등 비(非)서구 세계의 현실 속에서 촉발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대 후반에 시작한 대학원에서의 선교학 석사 과정 중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성서 해석학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 후 김세운 박사가 지도하는 신약학 석사 과정에서는 총체적 성서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철학과 역사학, 사회학을 통합한 해석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성경의 컨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구속사적 성서해석과 통합하는 이른바 내 나름의 총체적 성경 신학을 수립하는 일에 나의 젊은 날은 고뇌와 열정으로 들떠있었다.

1. 로잔 언약과의 만남

이때부터 나는 '행동하는 신학(doing theology)'에 매료되었고 이것을 나의 평생의 목회 철학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신학적 이슈는 먼저 인간의 현실(context)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 질문을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응답받아 실천해야 한다는 확신이 내면화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나의 신앙은 관념의 장벽을 벗어나 현실의 바닥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나의 신학은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익어가기 시작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성경 해석학이 지나치게 사회학적 성서해석으로 귀결되는 것을 피하려고 비(非)서구 세계에 속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때 만난 사람들이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E. Costas), 르네 빠디아 등의 이른바 로잔 운동의 급진적 제자도 그룹에 속한 학자들이었다. 웨스트민스트신학교의 하비 콘(Harvie M. Conn)이나 로저 그린웨이(Roger S. Greenway) 같은 선교 신학자들의 글도 이때 만났다. 물론 존 스토틀와 자크 엘룰(Jacques Ellul)의 책들은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나는 로잔 신학과 점점 더 자주 그리고 깊이 만나게 되었고 이후 로잔 운동이 나의 목회와 선교 실천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2. 구로희년교회

1989년 당시 35세로 강도사 시절에 나는 구로동에서 첫 교회를 개척했다. '구로희년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한 이 교회는 당시 동아시아 산업사회의 모든 모순이 깊이 스며든 구로공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년을 선포하고 살아 내려는 한 젊은 목회자의 꿈과 열정이 빚어낸 첫 공동체였다. 이미 교회 개척 전에 후배 청년들과 함께 야학과 노동자 탁아소를 가리봉동에 세우고 당시 공장 활동을 하던 대학생들과 함께 부분적 참여를 하고 있던 나는 35세 때에 독일 유학 대신에 구로공단으로 삶의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이 방향 전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나는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 변두리 교회 수요 집회에서 한 여자 선교사의 선교 헌신 간증을 들던 중 깊은 감동과 함께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드디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전까지 군부독재와 수탈적 경제 구조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소위 시혜적 참여를 하며 당시 사회 선교 운동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던 나는 좀 더 중심부로 한 발짝 내딛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수요일 저녁 나는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와 같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스웨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구로공단은 당시의 나에게 군사적 억압과 수탈이 깊이 드리워진 니스웨였고, 갈릴리 북부 납달리와 스불론 같은 어두움이 깃든 땅이었다. 깊은 신앙적 감화와 감동 가운데에서 나는 구로공단 가리봉동 지역으로 집을 옮겼고, 당시 칠십 노모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과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당시 봉제공장이 있던 4층 20평을 월세로 얻어 이만열 교수님이 써준 구로희년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한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의 희년선교회의 기초공동체가 되었다.

3. 희년선교회 및 희년의료공제회

희년선교회는 로잔 정신을 가지고 대도시 선교(urban mission)를 실천하는 공동체다. 그 주요 대상은 한국산업공단에 이주 노동자로 들어온 비(非)서구권 출신의 사람들이다. 당시 세계는 이미 자본 시장만 개방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도 국제화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서서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주로 터키 노동자들과 서북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EU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왔고,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으로 이주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로 주저앉았다. 불법체류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ILO에 가입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인권이나 노동삼권을 마땅히 보장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법체류라고 하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대부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희년선교회는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처음부터 로잔의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사역했으며,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를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선교 전략을 실행했다. 특히 이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을 보고 그

대안으로 사설 의료보험 조합(‘희년의료공제회’)을 설립하여 기독교적 인도주의를 실천했다.

희년의료공제회에는 2023년 6월 기준 74개 국가에서 온 누적 회원 19,6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적 의료 보험 조합이다. 현재까지 16,311명에게 36억 8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고, 또 매주 무료 진료소의 내과 포함 10개 진료과를 통해 1차 진료를 하고 이 중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합에 속한 협력병원(아산병원을 포함한 543개의 병원)에 보내어 계속 돌보고 있다. 50여 명의 의료진과 150명의 의·약학대, 간호대, 치대, 한의대 학생들이 봉사하는 무료 진료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45,600명이 진료받았고, 4,600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각 민족 별로 세워졌는데 현재 총 7개의 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y,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CIS(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고려인), 쿠르드(이란, 이라크, 터키))가 매주 예배와 성경 공부, 식탁공동체로 모이고 있다. 이 희년선교회를 통해서 느낀 보람과 감동은 큰 수술을 받고 고국으로 귀환한 한 외국인 노동자 형제가 쓴 편지 중의 한 구절이 대변한다.

“목사님! 한국에 돈 벌려고 왔지만 돈 보다 더 큰 것, 예수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생각하면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4. 산울교회

이후 1997년, 산본 지역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다. 두 번째 교회 개척의 목회 철학은 ‘shalom 목회(shalom ministry)’라고 할 수 있다. 희년선교회의 사역과 3년 반 동안의 남북나눔운동에서 겪은 NGO 체험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shalom’이라고 생각했다.

로잔의 신학이 ‘균형 잡힌 기독교(the balanced christianity)’에서 ‘총체적 기독교(the wholistic christianity)’로 발전한 것처럼 나의 목회 철학도 점차 총체적 목회(the wholistic ministry)’로 성숙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선교개념이 통합된 목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특히 하나님 나라(다스림)의 결과는 ‘shalom’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shalom 공동체(the shalom community)’이다. 온 세상이 이기심과 이념과 인종과 종파와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쟁과 테러와 전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the alternative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대안은 한마디로 ‘shalom’이다.

그래서 산울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shalom’을 추구하는 것을 지역선교의 첫 번째 전략으로 삼았다. 당시 군포시에는 여러 시민운동 단체들이 있었다. 군포지역에 이사 가서 제일 먼저 군포경찰서를 창립하는 일에 참여했고, 나중에 공동대표까지 맡게 되었다. 지역시민단체 운동가들과 교제하면서

산울교회가 어떻게 지역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일의 하나로 교회 교육관을 개방하고 지역시민단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교육 토론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또 지하 식당을 열어서 지역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점심 식사를 해결하도록 했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소위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이 두 사역이 시너지 효과를 갖고 와 산울교회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공동체, 지역사회의 모든 현안에 열린 공동체, 지역 시민사회와 깊은 연대성을 확보한 공동체로 각인되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대부분 시민 교육강좌와 세미나를 산울교회 교육관에서 진행했고 세미나 중에 식사 문제도 교회 식당에서 해결함으로써 점차 산울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여성민우회와의 관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선교적 협업을 하게 되었다. 특히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했다. 교회가 로잔 언약에 기초한 총체적 선교개념을 가지고 이미 사회선교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회선교사는 군포여성민우회와 협력하여 한부모 가정에게 집을 제공하고 공동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룹 홈 사업'을 전개했고 그 결과 10여 한부모 가정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 대책을 공동 모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한부모가정을 돕는 지역 NGO를 구성하게 되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의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에 교회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울교회의 권사들이 군포여성민우회의 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산울교회 여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지도자로 건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대안공동체로서의 산울교회는 단순히 지역사회에서의 '살롬'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남북분단과 동서 분열, 극단적인 이념대립으로 사회적 갈등과 증오가 증폭되는 남한사회에서 교회는 평화의 영성으로 모든 갈라지고 분열된 것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대안 사회'여야만 한다. 그래서 산울교회는 창립 이후 매년 6월을 '민족 화해의 달'로 선포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21일 동안 온 교인이 릴레이 금식기도(다니엘 세이레 기도)를 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평화의 영성을 함양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산울교회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침몰 사건 같은 극단적인 남북의 군사적 대립 상황 속에서도 원수 사랑의 아가페 영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금식 기도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는 성숙한 평화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살롬 목회'의 모든 정신과 신학은 그 뿌리가 로잔 운동에 있다. 74년 로잔 언약, 89년 마닐라 선언,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이어진 로잔 운동은 나의 목회에 풍부한 신학적 자양분을 제공했다.

대안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기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교회를 지향하게 된다.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질적 성숙과 함께 양적인 성장도 자연스럽게 동반한다. 건강한 교회 성장은 그런 측면에 인위적인 성장 촉진을 강조하거나 성장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교회 성장이라 해도 대형교회로의 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숫자 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교회 공간의 확장과 주차장의 확보가 무리한 헌금 강요와 재정부실을 일으키고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이 교회의 자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현상은 대형교회로의 성장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이다. 구로회년교회를 통하여 도시 빈민목회와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경험하고 난 후 군포시에서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통해서 중산층 주거지역에서의 대안교회의 모델을 모색했고 그 결과 '교회를 분립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산울교회에서의 목회 철학을 드러내는 구호로 '한 그루 나무보다 숲을 이루는 목회'를 내세웠다. 따라서 산울교회는 맨 처음부터 전 교인이 교회 개척헌금을 월정헌금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하여 모두 3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했다.

분립교회를 세울 때마다 약 2억 원 정도의 개척기금을 지원했고, 자원하는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파송했다. 그 결과 대부분 교회가 초기 미자립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극복하고 자립하기 시작했다. 또 교회 위치도 비교적 모(母) 교회에 가까이 있도록 함으로써 한 지역사회에 건강한 교회들이 서로 동역할 수 있기를 꿈꾸었다.

5. 광고산울교회

그 후 네 번째 분립개척은 담임목사인 나 자신이 직접 하기로 결심하고 17년간 목회했던 산울교회를 2013년 사임했다. 수원시 광고신도시 지역에서 광고산울교회를 개척했고, 이후 광고산 자락으로 교회의 장소를 옮기 되었는데, 내가 그 동안 교회 분립개척에 나름 힘쓴 이유는 로잔 정신에서 나타난 선교적 교회에 관한 개념 때문이었다. 로잔 언약은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의 성취와 지상 계명(the great commandment)의 수행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천명했는데 이를 지역 목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대교회 중심적 교회 성장 전략보다 교회 분립을 통한 지역 공동체적 선교전략이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교회 개척 전략이 현재도 수원시의 광고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광고산울교회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 공동체(shalom community)',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공동체(next community)',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아래로 공동체(downward community)',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에 힘쓰는 '에코 공동체(eco community)'를 지향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동두천지역에서 미군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부름을 받아 귀국하게 되었던 하비 콘(Harvie M. Conn)은 총신대학교

에서 행한 고별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 속죄하는 차원에서 동두천에서 미국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딱 한 사람 나 자신이 회개하며 떠난다. 복음 전도만으로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 복음 전도와 함께 그들의 삶을 갱생시키는 사회적 회복프로그램이 없이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는다.”

당시 신학대학 3학년생이었던 나는 이 고별설교를 통하여 선교의 총체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다. 이 문제의식은 그 후 로잔 운동을 통하여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목회와 선교를 통해서 이 문제의식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논찬문]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 논평

강성호 _ 고려신학대학원 외래교수, 목사

들어가며

2024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를 맞이하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로잔너머’ 연속심포지엄을 가지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문식 목사님께서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라는 귀한 글을 통하여 로잔 언약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잔 언약을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첨부 자료를 통해서 로잔 언약이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고, 목사님의 사역에서 로잔 언약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소개해 주신 것은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로잔 언약과 로잔 대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잔대회와 로잔 언약에 대한 목사님의 글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로잔 대회가 주창한 “선교의 총체성”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1. 로잔 대회의 역사와 복음주의교회의 선교 신학의 변화

이문식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로잔 언약은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A)의 선교 신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로잔 언약을 통해서 총체적 선교 신학이 복음주의 선교 신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로잔 언약은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선교개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에 대한 역사적인 개관은 로잔 언약이 나오기 전부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전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 로잔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로잔 언약은 ‘교회의 선교’를 ‘복음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에 치명타를 가한 것"입니다. '총체적 선교'가 로잔 언약의 핵심으로 자리잡았고, 이것이 로잔Ⅰ 대회에서 로잔Ⅲ 대회까지 이루어진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주된 흐름이 되었습니다.

2.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

저자는 3차 대회까지 진행된 로잔대회의 역사를 정리한 이후에 로잔대회 이후의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현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흐름과는 뚜렷이 동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총체적 기독교'를 지향하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흐름을 따르지 못한 원인으로 1980년대 이후의 한국의 급격한 정치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한 복음주의 교회의 영향력 감소, 접촉점 상실 및 복음 전도의 협소화 등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복음주의 교회는 비판적 지식인들, 청년층, 학생들의 실망과 등을 돌림으로써 현대 사회와의 접촉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한국 복음주의 신학계의 한계"로 명명한 후, 저자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폐쇄 및 고립화에서 탈피'와 '신학의 자주화'입니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양적 측면에 집중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자본주의적 상업주의 신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복음 전도의 폭이 축소되었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저자의 지적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예리하게 살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서구신학에 뿌리 깊게 종속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한국신학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지적입니다. 한국교회가 건전한 신학과 교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창조적인 신학 작업을 수행할 때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도 한국교회가 깊이 새겨들을 주장입니다.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은 모두 복음주의 교회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산을 이곳 한국에서 지금, 적용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한국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단체들의 시대적이고 선교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적실성이 높은 제언입니다.

3. 한국교회의 자주적인 두 가지 반응으로서 민중신학과 기복신앙

신학적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저자의 주장과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미국의 자본주의적 상업주

의 신학의 성격을 띠고 비난받는 교회 성장신학”을 수용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신학의 자주화’를 추구하는 것과 로잔대회에서 주창된 ‘총체적 선교’를 강조하는 것 역시 서로 상충하는 면이 존재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단순히 한국교회의 신학이 패쇄적이거나 수용적이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잔언약과 로잔대회가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영향을 끼치던 시기에 한국교회는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개발독재라는 평가받는 군사정권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의 경제성장과 군사 정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중신학과 기복신앙은 그 시대를 통과한 한국교회의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중신학과 믿음으로 축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모두 한국 상황에 복음을 구체화하기 위한 두 가지 대응 방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적 해방신학인 민중신학을 받아들이기보다 변영신학에 기반한 기복신앙을 추구했습니다.

민중신학은 1970년대부터 한국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적 대응이며, 이는 서남동 및 안병무 같은 한국 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이 신학적 강조는 1970년대에 등장했지만,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민중신학은 한국판 해방신학으로서 군사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민중신학에 열광했지만, 민중신학을 지향하는 교회들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은 남북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제성장을 강조하던 정부의 정책에 순응했고, 기복신앙과 축복을 강조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민중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일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지만, 사람들은 물질적 축복을 보장하는 기복신앙적 신학에 더욱 호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민중신학은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의미 있는 호응을 얻었지만, 군사독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이후 민중신학은 한국사회에서 유의미한 관심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절대 다수의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 또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동질화된 집단이 된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의 성장내러티브의 저자 김선일 교수는 한국교회의 내러티브 변천사를 설명하며 아래와 같이 기술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 노동 기본권 보장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산업선교회 운동이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막고 반공과 승공을 위해서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서북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KNCC는 이승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4.19 혁명을 지지한 이유가 이승만 정권이 공산주의보다 더 우위의 체제인 민주주의를 짓밟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기존의 반공 논리로 한국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을 신장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도가 더 우월함을 보여 주자는 움직임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승공론으로 자리매김했고, 후에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계획에도 지지를 보인다. 한국 주류 기독교가 박정희의 군사 정변을 지지한 이유는 공산주의 체제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실질적 반공 체제의 확립인 승공을 원했기 때문이다.¹⁾

김선일 교수의 설명은 한국교회의 구성원들이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공의 서사로서 경제성장 서사를 원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장의 서사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모두에 지배적인 내러티브로 받아들여졌기에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상호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잔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의 총체적 선교는 한국교회 내면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성장의 서사를 뛰어넘어야만 한국교회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로잔언약의 총체적 선교 관점은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이해와 현재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서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공동체 성품 형성적 내러티브로서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선교’

한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성품은 그 공동체의 지배적인 서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서사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사(내러티브)라 함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생존 방식, 삶의 체계, 가치관, 타인들과의 관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서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사가 될 때 성경의 서사는 교회 구성원들의 성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서사는 그 사회가 생존하고 유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사의 주인공의 성품이 그 사회에서 모범으로 삼을 성품으로 제시되며, 그 서사의 주인공이 타인과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의 성품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지배적인 서사는 그 사회가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반영하게 되며, 서사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로잔언약이 주창하는 ‘총체적 선교’와 ‘하나님 나라’ 사상이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지배적인 서사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 볼 때, 긍정적인 답을 주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급진적인 신학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민중신학이 한국교회의 지배적 서사가 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세대 복음주의의 총체적 신앙고백”으로 평가받는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 역시 한국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지배적인 서사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 성장을 추구하여 교회의 생존과 성도 수의 증가를 지향하는 교회성장 서사가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서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문식 목사님께서 붙임 자료로 첨부한 “나의 사역과 로잔 언약”은 로잔 언약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1) 김선일, 『한국기독교의 성장 내러티브』(서울: CLC, 2018), 201.

총체적 선교의 서사에 충실하면서 성도들과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의미 있는 호응을 얻는 것이 총체적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문식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는 교회가 성경의 서사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증거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논찬문]

로잔 정신과 크신 하나님 : 경계를 허무는 교회

김현아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국장

들어가며

로잔의 문서들과 이문식 목사님의 글을 보며 느낀 바, 그리고 기독교시민운동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로잔 대회와 역사적 맥락과 의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을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처음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문서들을 읽고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로잔 선언과 정신이 저의 신앙의 여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20대 10년간 저는 IVF라는 캠퍼스선교단체에서 학생과 간사로 활동했고, 지금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기독교시민단체에서 3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믿음의 경건과 실천을 동시에 강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자와 일꾼이 되어 살 것을 요청하는 복음주의 운동, 하나님나라 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체 모두 '총체적 복음'을 강조한 로잔 정신을 단체의 정체성과 활동 기반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IVF에서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사회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 올려진 거듭난 새 사람이 가지는 책무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만 여기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특히 이 땅에서의 구원과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며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행동으로서만 복음의 메시지가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고백은 제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잔에서 강조하고 있는 '총체적 복음'과 '현장을

해석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머리, 가슴, 손, 발에 새기게 된 계기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로잔 대회가 품은 메시지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

로잔의 성경관은 개인적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 추구를 위한 행동을 동반자적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잔언약은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원화하여 개인 구원의 문제에만 함몰 되어 왔던 기존의 선교 신학에서 벗어나 선교적 총체성을 추구합니다. 이는 로잔대회 전부터 일치해 갔던 복음주의자들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합니다. 휘튼선언(1966)은 성경의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담고 있으며, 시카고 선언(1973)에서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지 못한 잘못에 대해 회개하며 사회적, 정치적 불의에 맞서는 제자도 정신을 발휘할 것을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1차 로잔 대회의 언약에서 "구원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해보게 됩니다. 책임, 책무는 영어로 Response와 ability의 합성어, 즉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의 호소에 응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타자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와 소외된 자의 편이었던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강도당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힘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금요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너무나 슬프게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다른 교우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더니, 그 울며 기도하던 분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분은 강남에서 과외를 하는 분인데, 학생들 가정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지, 나는 언제까지 과외만 하면서 살아야하지, 왜 이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억울하고 답답하여 금요 기도회에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친구와 전해들은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 기도가 과연 그 분만의 기도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 곳곳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신자들은 나의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어 타인의 얼굴, 이 세상의 고통에는 관심두지 못합니다. 십일조를 많이 낼 테니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남부럽지 않고 뒤쳐지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에만 국한된 기복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기도제목을 내며 눈물 흘리는 신자들을 만들어 내는 교회가 과연 정상인가 싶습니다. 나의 삶이 간절하고 소중한 만큼,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웃의 삶도 간절하고 소중합니다. 가령 가난과 절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가족들,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한 이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의 사연에 연대하거나 함께 울지 못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사회적 참사의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들보다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약 없이 반복해서 외쳐야 하는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는 이웃들을 향해 한국교회는 얼마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함께 울어주고 있는지 뼈저린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은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기도회를 엽니다. 소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과 장자 교단 차원에서 그 일에 동참한다면 10만 명, 100만 명 서명은 식은 죽 먹기이고, 허다한 신자들이 기도회에 모인다면 그 기도빨(?)과 영향력도 굉장할 텐데, 침묵하고 외면하는 그들의 태도는 늘 의문이고 아쉬움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줄도, 위로할 줄도, 연대할 줄 모르는 이 상태가 바로 사회적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후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로잔대회 선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사회적 책임,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나라에 관한 선포는 그의 나라에 용납 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예언자적인 지적을 하도록 요청한다. 참된 선교는 언제나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회적 현실, 비애와 고통, 그리고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희생 없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여기에서 '희생'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3년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혹은 목회자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기주의를 개선하라'는 응답이 1위로 34.2%를 차지했습니다. 그 전 조사들에서는 목사님들의 윤리적 삶이 1위였는데 이번에는 이기주의를 개선하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것을 보면, 그만큼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타심, 양보, 공동선, 희생, 성육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고,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취하려 하는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모습은 대사회적으로 말씀의 가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2010년 개최된 3차 로잔대회에서 발표된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인상적이었습

니다. "우리의 선교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통합된 형태여야 한다. (...)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적·정치적 참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확증한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통전적인 복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당시 로잔 신학위원장을 역임한 세계 복음주의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피조물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에서 이문식 목사님은 사회선교를 '하나님의 은총과 정의를 함께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대단히 거창한 일이라거나 특수한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에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태도이며 살아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과제에 관하여

이문식 목사님은 발제 말미에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한 접촉점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복음전도의 협소화를 초래했고, 지식인과 청년들이 실망하여 떠나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자초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과제로 '신학적 폐쇄 및 고립화 탈피', 그리고 '신학의 자주화'를 제시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성, 다양성, 모호성, 변동성이 높아진 시대입니다. 사회적, 지구적 변화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며,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 시민들은 교회를 무감각하고 더딘 곳으로 여기게 됩니다. 신학과 교리의 전통을 내세우며 내외부적 이슈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진 교회는 신자들이 요구하는 '오늘, 여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종교, 교회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개교회의 특징적 차원에서 더욱 고집스럽게 선을 긋고 답을 쌓으며 경계를 만들고 모든 문제를 타자화합니다. 시대적 과제와 기독교신민들로부터 교회는 더 멀어지고, 고립될 뿐입니다.

교회는 시대가 흐르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의제들을 성경과 영적 통찰로써 해석해내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답이 아니어도 되고, 그럴수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지만 치열하게 시대를 읽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신학과 설교는 고리타분하고 게으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2010)에도 언급된 바 있는 기후위기, 사회적 갈등, 젠더 차별, 경제적 불평등, 위험사

회라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생명과 존엄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위기와 호소를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을까요? 휘튼 선언(1983)에서는 "인간의 필요성에 반응하는 교회, 또 인간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 이 변화시키는 권능에 종속시키며 비참여 자체가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악한 사회 구조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그 구조를 지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현재성을 교단 신학과 교리에 가두고서 마땅히 선포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24년 9월, 한국에서 4차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가 담아야 할 정신과 의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전의 대회들에서 발표된 언약, 선언, 서약은 계속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복음의 총체성과 현재성을 강조하며 그에 해당되는 대상과 영역을 확장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조세계, 비서구권, 이주민 등이 현대 세계 선교신학이 다루어야 할 주요 신학적 의제로 제기되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확장되고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로잔 정신과 신학의 맥락이라면 저는 4차 로잔대회가 담아야 할 의제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젠더 차별 문제와, 청소년과 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18~20) 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빈민들과 노인들, 포로 된 자는 난민, 이주민 그리고 노동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먼 자는 장애인, 억눌린 자는 여성, 성소수자, 청년과 청소년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호소하는 문제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여러 가지 인권 운동과 윤리 운동을 인본주의라고 매도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기독교적 규범과 가치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실천, 그리고 구조화 된 어둠의 권세와 위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해방과 살롬을 선물하는 이야기말로 선교적, 사회변혁적 기독교이며,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삶을 따르는 참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과 노력은 앞서 언급한 빈민, 노인, 난민, 이주민, 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청년과 청소년을 환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붕괴된 공동체를 회복하여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게 되고 성경의 가치인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과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곳에서 교회,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되 전 사회 구성원 모두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는 공적이고 영적인 일로써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시며, 그분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누구든지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고, 또 자신의 말씀과 법을 자신의 때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사회선교운동이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통해 광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싸움을 보다 더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잔너머’ 연속 심포지엄

2차/ **로잔운동과 한국사회선교운동**

2023년 8월 29일

주관_성서한국

[발제문]

국제 로잔 운동과 한국 사회선교운동

구교형 _ 성서한국 이사장

들어가는 말: 로잔 운동,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1974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된 국제로잔운동이 2024년 9월 인천에서 4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50년을 맞게 된다. 로잔대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국제 선교운동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로잔은 그것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는 지금도 5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확인하는가? ‘로잔 운동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옳고 그름이나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질문을 기억해달라.

로잔 운동을 한마디로 하자면,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을 온 세계에(the whole world)!’에 전하자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whole(총체적, 온전한)’이라는 형용사가 세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이다. 모든 게 그렇듯이 자주 반복하는 것에 그것의 특징, 그것의 정체성이 있다. 첫 질문을 받아 대답하자면, 로잔의 정체성, 로잔의 차별성, 로잔의 탁월성은 바로 ‘whole(총체적, 온전한)’에 있다는 말이다.

로잔 운동이 총체성을 강조하는 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그 이전까지 세계교회의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은 계속 ‘치우쳤다’, 즉 ‘총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음과 선교의 총체성(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이 정말 필요하다면 성경적 근거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총체적 복음과 총체적 선교였다. 신약 전체나 복음서 전체를 살펴볼 것도 없다. 예수님의 30년 생애와 사역 전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마태복음 9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갈 길 잃은 양처럼 인생을 기진맥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36절)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복음(선교)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35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복음 선포, 양육과 훈련, 세상 구제와 섬

김이 모두 주님의 복음(선교) 사역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 사실을 네 복음서 모두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주님의 그 복음, 주님의 그 선교 사역을 우리의 복음, 우리의 선교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그게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이다. 좁은 의미의 해외선교, 직업선교사만의 활동이라면 굳이 로잔의 이름과 정신을 꺼내 들며 50년이나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2천 년 기독교 역사, 심지어 로잔 이후 50년조차 여전히 복음도, 선교도 총체성을 품기보다는 항상 편향성(편중성)에서 멈췄다. 로잔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생각으로 시작한 운동인지 살피는 것으로부터 차별성을 이야기해 보자.

1. 20세기 세계의 위기 속에 시작한 국제 로잔운동

19세기~20세기 초까지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식민화, 제국주의시대로 경험되지만, 서구인들에게는 선진화, 문명화의 시대로 기억되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대중 민주주의를 앞세워 인류의 무한성장이 가능한 현세적 유토피아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여기에 더해 복음화와 세계 선교도 활발하게 일어났으니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낙관주의가 꽃피었다.

그러나 대망의 20세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낙관주의와 무한 진보사상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바로 두 번의 처참한 세계대전의 경험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1914~18년/전사자 900만명, 민간인 사망자 600만 명 등 1,500만 명 추산, 부상자 2,700만 명)은 인간성과 인류문명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자책을 불러일으켰다. 사랑의 기독교 신앙과 선진문명의 확산은 고사하고 같은 기독교권 국가(개신교·가톨릭·정교회)끼리 세계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 끝의 참화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다. 깊은 반성과 국제평화운동이 일어나는 등 대책도 뒤따랐지만, 20여 년 만에 더 큰 규모의 두 번째 세계대전(1939~45년/사망자 공식 통계 5,646만 명~비공식적으로 7,300만 명 추산)이 일어난다.

그러나 선진문명과 기독교 신앙 전파의 명분 아래 일어난 서구의 팽창이 전 세계에 몰고 온 쓴 뿌리는 전쟁만이 아니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식민지 곳곳에 종족, 역사, 종교, 지역 기반 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익에 따라 멋대로 나라를 자르고 붙여 분할통치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계속되는 내전과 분쟁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며 서구 지성과 기독교계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세계 선교와 복음화에 깊은 반성과 고뇌에 빠지는 게 당연했다. 그 결과, 세계교회와 선교계도 가난, 전쟁, 인권, 차별 등 인간화 과제와 함께 가지 않는 복음화 운동은 반쪽일 뿐 아니라 왜곡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변화된 세계 상황에서 인간화 과제까지 끌어안은 포괄적 선교 운동을 세계교회가 함께해 나가자는 취지로 1948년 출범한 게 바로 세계교회협의회(WCC) 운동이다.

그러나 WCC 운동은 출범과 더불어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선교

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사건이라는 개념)의 강조와 '선교 모라토리엄'(moratorium/선교에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여 당분간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자는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전통적 기독교회의 큰 반발을 샀다. 특히 1930년대부터 자유주의신학에 대응하여 별도의 움직임을 가져왔던 미국 근본주의 기독교의 반발이 더 커졌다. 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화해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새로운 선교 운동이 바로 로잔 운동이다. '역사적 신앙고백과 선교를 존중하면서도'(전통적),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와 상황, 인간적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시대적), 총체적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 복음주의다. 바로 이들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 모여 국제 로잔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빌리 그래함을 중심으로 한 미국 대중적 기독교, 존 스토틀을 위시한 영국 지성적 기독교, 르네 빠띠야 등 남미 사회적 제자도 그룹 등이 함께 만나 로잔 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2. 로잔 운동의 한국수용 과정과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

한국교회는 1974년 로잔 첫 대회부터 조종남·조동진·김옥길 등 대표들을 보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여의도에서 열린 '엑스플로 74 대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로잔대회는 유신독재가 절정이던 당시 참석자들조차 이를 자세히 소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로잔 소식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회 참가자 중 하나인 조종남 박사와 영국에서 공부하던 이승장 목사 등에 의해 번역·소개됨으로써 한국에도 비로소 알려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 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 로잔 운동은 주류 50 한국교회보다 학원 선교계 및 개혁적 복음주의운동 등 수용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적, 우회적, 사후적 수용과정이 오히려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로잔운동과 언약이 돌고 돌아 어렵사리 한국에 수용되던 1980년대 한국의 특별한 상황이 이 문서의 존재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1980년 광주학살을 배경으로 집권한 신군부 정권의 독재가 계속되면서 재야 지식인, 학생, 노동자 등 많은 이들의 희생과 저항이 잇따랐다. 반면 이러한 상황과는 아랑곳없이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당연히 같은 시대를 사는 교회의 젊은이들도 시대적 아픔과 고민을 공유했다. 소위 진보기독교회는 이미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을 통해 시대 상황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기반이 있었지만, 다수의 보수교회 젊은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당시 대다수 주류 보수교회는 정교분리를 내세워 젊은이들의 고민을 무시하거나 잠재우려 했고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 없는 행동으로 꾸짖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로잔 언약이 소개된 것이다. 그 운동은 빌리 그래함을 비롯해 존 스토틀 등 보수 교회도 인정하는 저명한 국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했고, 제5항에는 버젓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모두 15개 항목 중 겨우 하나에 불과한 아주 원론적이고 진부하기까지 한 내용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에 분노와 부채감으로 성경적, 신학적 정당성에 목말라하던 젊은이들에게는 생수처럼 느껴졌다. 표현이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복음주의 문서에 그런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로잔 언약을 직접 봤든 보지 못했든, 이 문서의 소문은 소리 없이,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당시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잡지 <복음과 상황>(1991년)도 몇 번에 걸쳐 로잔 언약은 물론 비슷한 성격의 문서들을 부록으로 연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로잔의 주역이며 걸출한 복음주의 운동가인 존 스토틀를 지도자로 둔 IVF 등 대학생 선교단체와 1980년대 이후 강남 중산층 목회에 성공한 주요 대형교회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자생적 모임들에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선교운동이 자연스럽게 모색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7년은 역사에 길이 남을 해이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민주화 대투쟁의 성과로 그토록 그리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렵사리 쟁취한 합법적 정권 쟁취의 기회를 부정선거로 인해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함께 처음 활동 조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공정선거감시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복음주의청년학생협의회'(복협)다. 대선 결과 군부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다시 '복음주의청년연합'(복청)을 만들어 연합활동을 모색했고, 1991년 3월 상설조직인 '복음주의청년학생연합'(복청학련)을 탄생시켰다. 이 활동에 참여했던 주요 그룹과 인물들은 남서울교회(홍정길)와 청년대학부(강경민), 사랑의 교회(옥한흠)와 청년대학부(박성남), 구로희년교회와 희년선교회(이문식), 할렐루야교회 대학부(이만열, 윤환철), IVF와 고직한, ESF와 이승장, 김희권과 김호열, 겨자씨형제단(박철수, 구교형), 서울대기독교학생회와 기문연(최은석, 이종철, 박정수, 김근주, 오동성, 박문재, 강문대), 외대 기사연(김기현) 등이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 의욕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역량 미숙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잡지 '복음과 상황'을 창간하는 것으로 서둘러 종지부를 찍게 된다. 비록 연합적 조직운동은 중단되었지만, 상당수는 다양한 교회, 단체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그 뒤 10~30년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특히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민운동 성격의 다양한 부문 단체가 창립되며 전성기를 맞았다. 헨리조지협회(현 희년함께 전신/1984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제정의실천연합(이상 1989년), 남북나눔운동(1993년), 좋은교사(1995년), 새벽이슬(1997년), 기독교법률가회(CLF/1999년) 뉴스앤조이, 공의정치포럼(이상 2000년), 교회개혁실천연대(2002년), 청어람 아카데미(2005년), 평화누리(2007년), 하나누리(2007년),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2010년), 평통연대(2010년),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2014년), 기독교반성폭력센터(2018년) 등 다양하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사회 각 영역을 개혁하려는 목적의 개별운동이 활발해지자 복청학련 이후 중단되었던 복음주의 사회선교 연합운동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선각자 김교신 선생의 '성서 조선'을 뒤따르는 마음을 담아 '성서한국'이라는 이름으로 2002년 제1회 성서한국 수련회(할렐루야교회)를 가졌고, 2003년 성서한국포럼을

거쳐, 1988년부터 시작된 선교한국운동 형식을 채용하여 2005년 성서한국 본부를 출범함과 동시에 제1회 성서한국대회(대전 침신대)를 시작했다.

이후 성서한국은 전국대회와 지역대회 개최, 사회선교현장 적극 참여, 사회선교단체 연대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또, 에큐메니칼 진영(KNCC, 목정평, 기사연, 예수살기, 고난함께 등)과 함께 연대하며 복음주의 이름으로 시대적 비극과 위기의 현장에 참여하는 기독교사회선교운동의 한 축을 형성했다.

중간평가: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

1974년 시작해 내년 50주년을 맞는 국제로잔운동은 더 넓은 계층의, 더 다양한 개념과 방법으로, 폭넓은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거칠게 평가한다면, 여전히 원론적인 선언에 머무는 느낌이고, 21세기 변화된 시대의 선교과제 창출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며, 1세대 지도자 퇴장 이후 로잔 운동의 비전과 중심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 국제로잔운동의 성과가 각국과 다양한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앞서 살펴본 한국에서 로잔 운동의 간접적, 우회적, 사후적 수용 형태는 오히려 매우 독창적이고, 뚜렷한 특징을 가졌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한국복음주의연구소장 이강일 목사는 이를 한국(K)형 복음주의(로잔운동)라고까지 부르는데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앞서 말했듯이 로잔운동의 한국 수용과정은 대회 참석자들의 자발적 운동도, 대다수 주류 교회에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1990년대 이후 시대적 요청에 목말랐던 개인 및 소수 집단에 의해 한국화했을 뿐 아니라 30년 동안 다양한 과제와 영역에 꾸준히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그 실례를 제시한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 창립한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의 정관을 보자.

『제2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복음에 바탕을 둔 신앙과 삶을 정립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위한 연합과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앙고백) 우리는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세계복음화국제회의’에서 채택한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의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 1989년 ‘마닐라 선언문(The Manila Manifesto)’의 신앙적 고백(affirmations) 21개 항목을 한 마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지난 2011년 작성된 ‘케이프타운 헌신(The Capetown Commitment)’의 10개조 신앙 서약과 행동을 위한 요청을 기꺼운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한국적 상황 속에서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그 결과, 한국 복음주의에 새로운 신앙패턴을 공유한 동질집단이 생겨났다. 신인류라는 말처럼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약자에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갖는 독특한 복음주의(독특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교파, 지역, 규모 다 다른데도 비슷한 신앙고백, 신앙 패턴, 정서를 갖는 동질집단)가 한국에 탄생한 것이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없던 현상이다. 지금 한창 목청을 키우는

정치적 보수기독교 집단도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가 없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전에는 교회 안 극우 정치설교만 있었다. 그러나 사회선교진영은 한국 복음주의 전체를 결코 대변하지 않는 복음의 총체성 가운데 한 부분임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총체성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할 뿐이다.

3. 보수기독교 정치참여 운동

로잔운동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2000년 들어 새롭게 시작된 또 다른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한 가치와 통일된 흐름을 갖춘 운동은 아니지만, 갈수록 분명한 영향력을 형성해 가고 있어 간단하게라도 언급해 보려고 한다.

만년 야당으로 남을 줄 알았던 민주당 김대중(1998~2003년), 노무현(2003~08년) 대통령이 연이어 10년을 집권하고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2017~22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진보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이에 반발하는 보수 세력의 시민운동적 결집 움직임도 커졌다. 먼저 2000년대 초 일부 신진 보수정치인들과 옛 기독교 진보운동세력의 결합이 일어났다. 이들은 뉴라이트전국연합(김진홍/2005년), 기독교사회책임(서경석, 고직한/2004년) 등을 결성해 조금씩 다르지만,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과제에 함께 했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때 서로 적지 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 후배들은 그들과 정식으로 결별하고 성서한국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다시 십 수 년이 흐르며 김진홍, 서경석 목사는 뒤로 물러났지만, 또 다른 보수 기독교사회(정치)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1989년)의 정치운동, 한국기독교당(2004년)에서 시작된 기독교당 운동과 전광훈씨, 에스더구국기도운동(2007년), 그리고 전국화 된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합집산하고 있다.

4.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는 지속 가능한가?

로잔운동을 근거 삼아 지난 30년 이어온 한국형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은 비교적 길지 않은 역사와 경험, 열악한 인적, 물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 몫을 감당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낙관할 수 없다. 몇 가지 관점을 제안한다.

첫째, 시대와 세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변화를 읽는 우리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한다.

① 86형 복음주의 세대

- 극복하려는 공동 목표가 비교적 선명했다(독재와 재벌 반대, 남북통일).
- 한국교회를 향한 목표와 주장도 분명했다(성속 이원적 천국관, 물신숭배, 기복신앙 극복).
- 따라서 86형 복음주의는 목표가 분명했던 만큼 사회적으로는 민주당 중심의 정통 야당 세력, 기독교적으로는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연대, 협력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도로 충분했다.

② MZ형 복음주의 세대

- 시대와 세대는 함께 변한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세대가 그대로 일수도, 세대가 변했는데 시대과제가 같을 수도 없다. 1950년 한국전쟁 후 30년인 1980년대에 전쟁 대신 광주학살을 기억하는 86형 청년 세대와 중산층 등장으로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제 1980년 광주학살 후 30년인 2010년대 이후 광주 대신 신자유주의의 2010 흑독함에 내몰린 MZ세대가 일어났다. 그에 따라 세대도, 과제도, 운동방식도 다 변하고 있다.
- 사회적으로 '국힘당 중심의 보수안정 세력 vs 민주당 중심의 진보개혁 연대 vs 지속가능성, 미래 생존적 보편과제(비당파적 연합)'로 세분화.
- 신앙적 이원론은 더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특히 MZ세대에게는 교리적 옳음은 현실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 이슈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걸 교회 과제로 생각한다.

③ 여자월드컵 황금세대와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의 미래

- 여자 월드컵(2023년 7월 20일~8월 20일)을 앞두고 아직 활동 중인 여자축구 황금세대(2010년 U-20 월드컵 3위, U-17 월드컵 우승)와 골때녀 신드롬을 보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했다. 그러나 세계 축구의 높은 벽 앞에 무기력했다(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 진실은 이렇다. 등록된 여자 축구선수가 황금세대 전성기인 10년 전보다 더 줄어 2019년 통계 4,200명밖에 안 된다(일본 390,000명, 피파 1위 미국 9,500,000명, 올해 우승 스페인 58,372명). 그래서 올해 월드컵 참가팀 중 최고령인 28.9세대(지소연 등 황금세대 모두 30대 초중반).
- 현재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의 복사판이다. 86 정치인들의 기득권 세대 정치와 다른 모델이다.
- 선배 세대는 자신들의 관심과 판단, 운동방식이 계속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 후배 세대는 불평보다는 좀 더 과감한 의제 설정과 시도가 필요하다.
- 상대방 세대와 중심과제에 대한 세대적 간극이 적지 않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체험)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까?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나 운동장은 같이 쓰자. 같은 운동장에서 자기 관심대로 누구는 축구하고, 또 누구는 노래 들으며 춤추고, 누구는 달리기하고, 또 누구는 쉬며, 각자 좋아하는 걸 하다가 필요하면 전체 운동회도 하고, 또 편을 달리 짜서 다른 경기를 할 수도 있다.

-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은 지속 가능한가?' 선배가 답변할 몫이 있고, 후배가 대답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각자 자신들이 답변해야 할 몫을 고심해 보자.

둘째, 진정성과 설득력으로 결판날 것이다.

- 주류 기독교 운동도 칼뱅주의-문화적 사명-영역주권론(카이퍼)를 학습하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주장한다(물론 같은 언어에 다른 개념을 넣은 것이다). 같은 도구를 가지고 다른 농사를 짓는 것이다. 누구 세계관이 옳으냐의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삶의 진정성과 신앙적, 사회적 설득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2024년 로잔한국대회를 바라보는 제안

2024년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한국 준비위원회에서 밝힌 대로 여러 면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있다.

첫째, 로잔 준비위원회에게 바란다.

1974년 시작 이후 50년이 흘러오면서 모든 대회마다 한국교회는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한국교회에 로잔 정신은 여전히 낯설다. 지금 대회 준비위 메시지와 활동 방식도 로잔 정신 구현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의 총체적 복음 정신과 크게 상관없는 국제대회를 무난하게 치르는 데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염려는 여전히 정당하다. 잼버리처럼 되지 않도록 좀 더 분명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회를 준비하는 주최와 주관조직은 제한될 수 있겠지만, 국제 로잔 정신은 공공재이므로 독점할 수 없다. 이제라도 로잔대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그 정신을 존중하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동역자들의 목소리 청취와 반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

둘째, 사회선교운동 그룹에 바란다.

로잔운동과 한국대회에 대한 사회선교운동 그룹의 우려는 정당하다. 그러나 엄연히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국대회에 그저 무관심하거나 어떤 의견도 없다면 우리 자신의 역사와 활동 근거에 대한 망각이 될 수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기회,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거 로잔, 현재 로잔, 미래 로잔!

- 우리가 50년 가까운 지금 로잔(별로 대단치도 않아 보이는)을 이야기하려 모인 것은 로잔을

통해 한국 사회, 한국교회, 사회선교운동, 곧 우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

- 로잔 주최 측(국제 로잔, 한국 로잔)은 2024년 대회를 통해 로잔이 존속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잔치와 함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한국 대회는 '로잔 너머', '로잔 포스트'의 자리여야 한다.

[발제문]

제4차 로잔대회는 무엇을 넘어야 하나, 한 여성 신학·윤리학자의 제언

백소영 _ 강남대학교 기독교학 교수, 한국여성신학학회 회장

들어가는 말

내년(2024년)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대회 제4차 모임을 준비하면서, 로잔이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넘어야 하는’ 과제들을 곱씹어보는 <로잔 너머> 포럼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진영에서 범주화하는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는 ‘복음주의 진영의 딸’이 아니거든요. 감리교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꽤 진보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학부와 석사 과정 6년을 몸담았던 이화여대에서는 진보를 넘어 급진적인 신학을 배웠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초청되어 있네요. 우여곡절 사연이 있었습디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선 이상 작게라도 제 몫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만 무거울 뿐,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로잔을 잘 모르거든요. WCC의 경우는 주변에서 활동하는 동료들이 많아서 어깨 너머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 선언문 내용을 때마다 읽게 되기도 했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종종 교수님들이 소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는 동안도 가르치는 동안도 제 학문 영역 안에서 로잔 운동과 관련된 선언문을 읽거나 토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로잔 정신으로 무장된 동료들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한국로잔연구교수회>도 있고 이에 속한 여성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텐데,²⁾ 여러모로 제가 부적격인 것만 같습니다.

2) 1) 한국에서는 1차 대회 이후 1974년 한국로잔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어서 2012년 한국로잔연구교수회를 조직하고 로잔6문서의 번역, 확산과 각 신학교에 로잔지도교수를 임명하여 로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장훈태, “로잔운동과 신학교육”, 253) 각 신학대학교 ‘로잔동아리’ 학생들과 2012년 11월에 첫 로잔캠프를 개최하여 학생 56명 교수 14명, 중앙위원회 5명이 참가했다고요.(장훈태, 254). 개별참여자들도 있겠지만, 현재 연구회 소속된 신학교는 나사렛대, 백석대, 장신대, 서울신대, 영남신대, 서울장신대, 한국성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고신대, 침신대, 주안대학원대, 감신대, 협성대, 총신대, 햇빛트리니티대라고 하네요.(장훈태, 254)

하여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로잔 연구’에 매진했던 몇몇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먼저 읽었습니다. 기초지식도 부족한 주제에 시간도 없어서 그간의 모든 로잔 발행물 들을 1차 자료 삼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연구자들의 평가와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그간 로잔 운동의 진행 과정과 주요 선언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동의가 되는 부분은 명기했지만, 이 글이 깊은 연구를 통한 학술논문이 아니고 학자 간 쟁점을 침례하게 다루는 목적이 아니기에, 주로 논문에서 인용된 로잔대회 핵심 텍스트들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미’ 분명한 관점(perspective)을 가지고 있는 중견(중년?) 신학·윤리학자로서 저는 ‘성/젠더 평등성’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읽고 성찰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로잔이 말하는 “총체적 복음”이 정말 ‘총체적’이기 위하여, 4차 대회 준비모임이나 소모임에서 꼭 다루어졌으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1. 로잔 운동의 ‘우선성’과 여성의 ‘전문성’

우선 ‘로잔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한글 논문을 검색해보니 “로잔 운동이 바라본 202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무슬림 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하나 나오더군요.³⁾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심각하게 제기되는 여성 인권에 대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글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여성부를 폐쇄하고 직장 내 불이익을 자행하는 역행적 정부에 시위로 저항한 아프간 여성들과 연대하며 국제로잔위원회도 글로벌 Zoom 모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기도회를 가졌다고요.⁴⁾ 이 논문의 III부가 ‘로잔 운동의 여성관’이어서 정보 습득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약성서의 가부장적 여성관을 가지고, 전제부터 꾸란의 알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성차별/성평등으로 대비시키는 것이⁵⁾ 불편했던 걸 보니, 저는 방법론이나 시각 면에서 ‘에큐메니컬의 딸’에 ‘가깝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 로잔 언약의 신학적 기초 위에 만들어진 3차 대회 선언문 <케이프타운 서약 신앙고백과 행동> 조항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받아서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부분을 분석할 것이기에 인용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들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에게 반역을 도모한 남녀를 통해 죄가 인류의 삶과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구원과 용납과 연합을 주셨다. 오순

3) 영어 논문은 검색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논문 검색 시스템에서 여성 문제가 관련된 로잔 연구는 이 논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윤정, “로잔 운동이 바라본 202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무슬림 여성” 『선교와 신학』 56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2022: 239-273.

4) 소윤정, 242-243.

5) 소윤정, 258.

절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와 아들과 딸들에게 똑같이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다. 따라서 여자와 남자는 창조와 죄, 구원과 영적으로 동등하다.(주 92) 남자와 여자,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다른 이들의 유익과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주 93)

A)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멸시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주94)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사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로잔의 역사적 위치를 확증한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며 복음화를 위한 그들의 동반자적 협력은 공동의 선을 위해 기쁘게 수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증한다.”(주 95) 우리는 성경시대부터 현재까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역을 통해 세계 선교에 기여한 여성들의 놀라운 희생적 공헌을 기꺼이 인정한다.

B) 우리는 성경에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이한 견해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여성은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여성의 영적 동등성과 초대교회에서의 교화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의 예언의 은사, 여성의 가정으로 신자들을 초대하는 것을 여성의 리더십이 발휘된 것으로 이해해 이와 같은 영적 은사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주96) 우리는 이러한 논점들과 관련해 다음의 접근과 태도를 요청한다. 1.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열과 파괴적인 언사 혹은 서로에 대한 불경건한 적대감의 근거들을 없애기 위해, 논쟁점들과 관련해 정죄함 없이 서로를 수용한다.(주 97) 2. 원 저자들과 현대의 독자들과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함께 성경을 연구한다.(261/262) 3.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공황을 보여주고, 불의와 온전함이 결핍된 곳에서는 그것에 굳세게 맞서며, 어떤 형제나 자매 안에 나타난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거부하는 곳에서는 회개가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4. 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세를 반영하는 남녀의 사역에 헌신한다.

C) 우리는, 바울이 교회에 권고했듯이 선한 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인 경건한 여성들을 인정하고, 여성들이 교육, 봉사, 리더십, 특히 복음의 불의한 문화적 전통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전적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주 98) 우리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거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열망한다.⁶⁾

인용된 본문만 읽으면 남자와 여자는 창조, 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존재론적 동등함을

6) 소윤정, 260-262 재인용.

가지며 영적인 능력도 차별이 없습니다. 한때(때론 바울을 포함하여)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듯 해석했던 가부장적인 논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입니다. 더구나 “성경 시대부터 현재까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역을 통해 세계 선교에 기여한 여성들의 놀라운 희생적 공헌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내용에는 설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존재론적 평등성이 기능적으로도 평등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이 선언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이 라면 ‘여성 안수’에 대해 신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 선교사의 사역현장에서 전형적으로 말씀 선포를 담당하는 남편과 내조를 담당하는 아내의 성역할 분담도 ‘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 이 논문의 저자 소윤정도 <케이프타운 서약>에 근거하여 여성 안수를 촉구하고 더불어 여성 사역의 전문성을 주체화하고 다양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부 선교사의 경우에도 아내 선교사의 독립적 영역이 인정되기보다 남편 선교사의 보조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하는 주부로서의 내조자가 선교지에서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없어야 하겠지만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주변 무슬림 가족들과 우정 관계를 맺게 되는 연결고리로서 여성 선교사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슬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사역에 있어서 여성 선교사는 독립적 영적 권위가 담보되어야만 하며 무슬림 여성의 신앙교육을 전담할 수 있을 만한 신학교육도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현재 아프간 무슬림 여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는 훈련된 여성선교사가 필요하다. 현장의 요구로 적절하다.)

그런데, 소위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대전제에 익숙하지 않은(실은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의 시선에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은 목회자로 부름 받거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뿐인가요? 이는 결코 한 연구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사실 소 교수는 로잔 선언문에 근거하되 로잔의 함의보다 훨씬 더 ‘넘어서’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케이프타운 선언문에 포함된 여성관 자체가 ‘총체적’이 지도 ‘구체적’이 지도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로잔 운동의 핵심적 지향점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상당 부분 그것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전도’로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여성이 부름 받은 소명 ‘ ’의 부분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과제는 짚고 가야지요. 로잔 운동이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창세기의 창조 명령(만물을 다스림, 창세기 1장 28절)과 예수의 지상명령(제자를 삼음,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실천적 해석과 적용에서 ‘여성’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7) 소윤정, 262-263.

한다는 말입니다.

소윤정은 로잔의 우선적 명령 안에서 선교 현장에서의 여성 사역의 전문성을 확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창조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로잔운동이 강조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협력사역이 필요한데, 여성 사역의 전문화와 전략수립을 위하여 한국교회는 여성선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제도적인 장애물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사역자에게 있어서 여성선교사의 전문영역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 싱글 여성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독립권을 보장하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⁸⁾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선교 현장은 과연 미전도 종족의 공간뿐일까요? 이미 로잔도 선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들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 평신도의 리더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닌 다음에 ‘남은’ 여성의 소명은 모두 가정 사역이어야 하는 건지요? 선언문이 문서화될 때 언급되지 않은 것은 실천적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성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보다 ‘총체적’인 언급이 필요합니다.

물론 평신도 전문성에 기반하여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로잔 대회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표면화되었습니다. 2차, 3차 대회를 거치면서 ‘전문인 선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베를린 대회 의장이었던 빌리 그래함의 개회 연설에도 명시되듯이, 이는 “복음 전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교회의 일반 신도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조직하는 것”이고,⁹⁾ 이때 평신도들이 가지는 전문성은 직업 전문성일 뿐, 그들의 선교 사역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전문성’은 전문적인 선교사역자들이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¹⁰⁾ 그러니까 “직업인 선교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¹¹⁾ 이는 2차 대회의 결과 자료인 <마닐라 선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평신도 전도를 위한 또 하나의 상황은 일터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이며, 또한 직업이란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언어, 일관성 있는 근면, 정직, 신중성, 일터에서의 정의에 관한 관심 및 특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의 내용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¹²⁾

8) 소윤정, 266.

9) 김광성, “로잔 운동 선언문에 나타난 전문인 선교 개념 고찰”, 『복음과 선교』 제24집(2021), 22.

10) 김광성은 위의 논문에서 전문인 선교를 ‘평신도 선교’와 동의어로 이해하기보다는 “목회자 전문인 선교사와 일반 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김광성, 18.

11) 김광성, 29.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최근의 정황으로 볼 때, 이를 직업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 자체는 직장 내 여성의 배치나 역할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직장 내 관계 질서를 정의롭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의제를 가립니다. 오히려 보수적 성경관과 직업 전문성을 가진 여성 평신도가 시스템에 관한 질문 없이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 선교적 자세로 임할 때 어떤 방식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열심일지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 '열심'이 과연 복음에 부합하는지는 의심이 듭니다.

2. 로잔 운동의 '사회적 책임' 이해를 넓히기 위한 초청, 다르게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번 4차 <로잔대회>에서 그동안 로잔 운동의 성경관이 막연하게 여성과 남성의 영적 동등함만 주장했던 것을 동어반복 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존재 방식과 역할에 대한 주제들을 명료히 하고 성경적인 성찰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구체적인 선언들이 문서화되기를 제안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까닭에 진실하고 권위가 있으며 오류가 없고, 신앙과 생활의 무위한 유일한 규칙이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어느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깨우쳐 그의 구원과 목적을 이루신다.”¹³⁾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선언은 근본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성서무오나 축자영감과 무엇이 다른지요? 이런 읽기 방식이라면 여성, 젠더 이슈 논의의 출발이 가능하기는 한가요? 물론 이러한 선언은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 '오직 성경으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답하겠지만, 성경을 붙드는 방식에 대한 논의나 논쟁, 고민이 없지 않나요? <시카고 선언>(1978)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완전축자영감으로 말미암은 무위성과 무오성을 강조”했죠.¹⁴⁾ 1989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E)와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의 후원 아래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 모여 작성한 <복음주의 선언>(1989)에서는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절대 무오한 규칙일 뿐 아니라 역사와 자연계에 대해서도 진리의 원천임을 주장하고, 성경은 성경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지요.¹⁵⁾

언어화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해석되는 현장의 전제(taken-for-granted, 당연히 여

12) 마닐라 선언, 2부 II-6, 김광성 29에서 재인용.

13) 로잔언약 4.2.2, 나용화,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의 과제” 『개신논집』 7(2007), 141.

14) 나용화, 147.

15) 나용화, 147.

겨지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을 온 교회(Whole Church)가 온 세상(Whole World)에 전한다.”는 로잔 운동의 슬로건도 그러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선언이 끄덕여지는 현상이 가부장제 사회라면 ‘만인’은 1, 2, 3계급을 포괄하되 오직 ‘남자’만을 포함하는 뜻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되지만, 꽤 오랫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흑인과 유색인종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음도 압니다. 따라서 로잔대회 선언문이 남녀의 영적 평등성과 소명의 상호협력을 말했다고 하여 이것이 정말 당대의 사회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어 ‘성경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로잔 운동의 가 세계 남성 보수 DNA 1세계, 남성, 보수/근본주의적 신학 성향을 ‘주류’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세계 복음화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는 상당히 ‘방어적’이었습니다. 1962년 소집된 제1차 바티칸공의회가 상당히 ‘에큐메니컬’한 기조로 흘러갔고, 1968년 WCC 옹살라 총회는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로 선언하면서 기존의 전도 중심의 선교방식에 대한 신학적 도전을 했기 때문이죠. 로잔의 언어들은 사회복음 운동, 독일 정치신학, 남미 해방신학 등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전도의 우선성(primacy of evangelism)’은 이런 분위기에서 강조되었죠. 물론 휘튼 선언(1966. 4)의 초안을 미리 보았던 비서구권 교회 대표들의 반발과 제안을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항을 첨부했지만,¹⁶⁾ 이 부분 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는 1세계와 3세계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구나 휘튼 선언이 가진 사회적 성향에 위기감을 가진 대응 모임이었던 베를린 세계 복음 전도대회(1966. 10)의 주도적 지도자들이 1세계 출신이라는 점, 그들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더불어 가톨릭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이해를 반박하고, 에큐메니컬 선교의 ‘인간화’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천명한 지점을 연결할 때, 서구 교회 지도자들이 1차 로잔대회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인 “사회적 책임”의 촉구가 얼마나 적절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¹⁷⁾

이를 여성관에 적용한다면 더 열악해집니다. 1세계와 3세계의 관점과 경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대하게 하는 시선은 ‘가부장제’ 안에서 동일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전례가 있지요. 1960년대 후반에 흑인인권운동과 연대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초기의 여권운동가들은 여성 문제를 다루는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의 동일성에 놀랐습니다. 물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로잔 2차(1989. 7) 대회에는 피식민 경험

16) ‘급진적인 제자도 그룹’이라는 이름의 제3세계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로잔에 대한 반응’이라는 문서를 폐회 당일 총회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 창출되었다고 하네요. 의장 존 스토틀의 환영, 500여명의 찬성 서명 속에서 ‘로잔 언약 부록’으로 채택되었다고 읽었습니다. (이문식, 로잔 너머 1차 심포지엄 자료집, 6) 급진적 제자도 그룹의 학자들은, 사무엘 에스코바 (Samuel Escobar),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E. Costas), 르네 빠디아(Reme Padilla)이라고요. (이문식, 13)

17) 5항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안승오, 146에서 재인용.

이 있는 장소성을 반영하듯,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반대되는 악의 목록이 구체화되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는, 그의 나라에 용납될 수 없는 일에 대해 예언자적인 지적을 하도록 요청한다. 우리가 개탄하는 악은, 제도화된 폭력, 정치적 부패, 사람과 땅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착취, 가정 파괴, 낙태, 마약 유통, 인권 유린과 같은 파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제3세계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마음 아파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¹⁸⁾

가정파괴, 낙태... 여성이 관련된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시각과 방법론은 결여되어 있지만, 그래도 선교의 영역으로 명시되고 언어화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실천될 수 있었을까 질문하다가 박보경의 글에서 <마닐라 선언문>의 언어들이 구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후 로잔 운동은 ‘주후 2000년과 그 이후의 도전 운동(AD 2000 and Beyond Movement)’이나 ‘영적 전쟁 네트워크(Spiritual Warfare Network)’의 결성 등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선회했다.”고요.¹⁹⁾ “‘주후 2000년과 그 이후의 도전’ 운동은 10/40창에 집중되어 있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전도의 사역을 2000년까지 펼칠 것을 제안하고 세계복음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단체들이죠.²⁰⁾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합의되고 명시화된 것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박보경에 따르면 2004년 <파타야 대회>에서 처음으로 구조악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악의 구조 속에서 가해자의 편에 선 자와 피해자의 편에 선 자 사이에 ‘화해’가 긴급함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답을 도출하고 총 31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지요.²¹⁾ 그중 22번째 이슈가 ‘화해’였습니다. 이때 논의된 화해 이슈들은 이후 그룹 토의를 넘어서 로잔 진영 내 첫 번째 ‘화해’에 관한 공식적 선언문의 결실을 보게 되었죠. “화해의 실천을 위한 우리의 헌신”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삶에서는 치유를 추구하고, 용서와 고백을 실천하며,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서로 연대하고, 도움을 주며, 파괴적 분열과 갈등에 탄식할 것, 희망의 표징들을 찾아 축하할 것, 발전적 관계와 파트너십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초대할 것, 예언자적 목소리를 높여 정의와 화해를 옹호하고, 교회와 시민사회 정치지도자들에게도 정의와 화해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²²⁾ 박보경은 이 선언문이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화해만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수평적 화해를 위한 공식적인 선언문”이라는 점에 의의를 둥니

18) 박보경, 145.

19) 박보경, 145.

20) 박보경, 146.

21) 박보경 147.

22) 박보경, 149에서 문맥에 맞게 조사 수정하면서 재인용.

다.23)

무엇보다 이 대회에서는 서로 긴급한 행동강령을 추리면서 7번째로 “화해의 응급성”을 선포했
죠. 그동안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말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공간과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배
치에 있으며 복음 전달자가 온 나라, 계층이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었던
것에 비한다면, 놀라운 전진입니다. 이 계기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인종간, 민족간, 부
족 간의 화해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24) 이후 3차 대회에 매우 주요한 의제로 자
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차 대회 서약인 케이프타운 서약문에는 “종족 갈등 속 평
화, 가난과 억압 속 평화, 장애인들에게 평화, 에이즈 환자들에게 평화, 고통 받는 피조물 속
평화”라는 5개 영역이 설정되기에 이르렀죠.25) 특히 가난과 억압 속 평화의 세부 사항으로 “인
신매매, 성매매를 위한 아동 노예화, 강제노동, 군정집을 통한 아동 학대”를 비판하고26) 화해를
실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총체적 선교 네트워크’ ‘화해 네트워크’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 네트워크’ ‘정직과 부패 방지 네트워크’ ‘자유와 정의 네트워크’ ‘장애인 네트워크’ ‘창
조세계의 돌봄 네트워크’가 그것이죠.27)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모든 ‘화해’의 범주 안에 ‘남자와 여자의 화해’
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고 상호 보조적 협력의 대상이라는 신학적
전제가 현실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인종 간 갈등과 보복의
행위로 모녀를 잡아다 강제로 윤간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며 친족에 의한 명예살인이 진행
되며,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애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여자들은 남자보다 부자이지만,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성별을 분류하면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습니다. 인류의 반이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과 폭력과 가난의 현실인데,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젠더 갈등이 첨예한 한국 땅에서 제4차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의의와 과제를 함께
부여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 과제는 그 좋은 소식을 모든 나라들에 알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

23) 박보경, 150.

24) 박보경, 150.

25) 2-B 항목. 박보경, 153에서 재인용.

26) 박보경, 154.

27) 박보경, 157. 2014년 3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번영신학, 가난과 복음에 대한 로잔대회”에서는 “번영신학
이 제공하는 잘못된 희망, 즉 축복과 신적 보상을 인위적이며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
다.(박보경, 159) “구조적 정의와 가난(Structural Justice and Poverty)”에 관한 행동강령, “그리스도인들
은 빈곤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으로 책임 있는 기업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통해 그들을 세우고 개인의 존
엄뿐 아니라 공동체의 존엄까지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수입 창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함을 인정한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와 억압의 상태를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정의로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를 만들도
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른 반응이라는 것이 박보경의 평가
입니다.(박보경, 159)

루어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교에서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참여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성경 전체의 계시가 명령하고 주도하는 일이다.²⁸⁾

‘그 좋은 소식’이 이 땅의 여성들의 삶에도 총체적이고 통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먼저 언급되고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를 의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생명 성장의 법칙, 고인 물이 되지 않기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2024년은 로잔 운동의 주요 지도자 중 하나인 빌리 그레함과 연관하여 두 사건이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첫 번째 사건은 1974년 <엑스포로 74 대회>이죠. “예수 혁명” “성령 폭발”을 주제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표어 아래 수많은 한국 복음주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보다 한 해 전인 1973년에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었죠. 5일간 112만 명이 집결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대회였습니다. 이 두 운동이 직접적으로 로잔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빌리 그레함이 당시 로잔 운동의 핵심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의 메시지와 파급력은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여의도 부흥 성회가 있었고 로잔 1차 대회가 7월에, 그리고 엑스포로 74가 8월이죠. 그야말로 불길 같이 번져나갔습니다. 이래저래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대회에 기대가 클 듯합니다.

하지만, ‘**주년’과 같은 기념에 열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꼭 주목했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질성의 집단’ 안에서는 기껏 바깥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선언문을 만들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깥의 사유, 시선, 언어, 실천을 가져오지 않는 모임은 좌든 우든 ‘보수화’됩니다. 채수일 전 한신대 총장은 부산 대회 이후의 소회를 밝히는 글에서 이렇게 썼더군요.

나는 WCC가 어쩌면 캔버라 총회 이후 이미 보수적으로 WCC 변했고, 더 이상 새로운 신학적 담론이나 예언자적 목소리를 WCC로부터 들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WCC가 더 이상 신학과 증언의 중심부능커녕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신학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제의 문서들이 준비되고 토론되었지만, 귀 기울일 만한 새로운 내용도 없고, 북미주와 유럽중심주의는 여전히 유지

28) 안승오, 155에서 재인용.

되고 있었습니다.²⁹⁾

하물며 로잔일까요. 제3세계 교회 대표들이 투쟁적으로 선언하여 기껏 로잔 언약에 포함된 ‘사회적 책임’과 ‘총체적 복음’의 내용이 실효성은커녕 아예 ‘오독’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7월 <뉴스앤조이>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 안에 김준곤 박사가 구원의 총체성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인용이 되어 있더군요.

사회 해방이, 사회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구원력은 이 사회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 이런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세계의 전 교파를 대표하여 4000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몇 년 전에 로잔스에서 모였습니다. 그 때 로잔스 커버넌트라고 선언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전도에 대해, 특별히 사회구원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행동이 전도는 아니며, 또 인간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로 정치 해방이 인간 구원이 될 수 없다.’ 굉장히 간략하고 선명하게 전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줄로 압니다.³⁰⁾

이것은 생명의 필연 법칙입니다. 긴 토론과 부딪힘 속에서 겨우 합의된 ‘복음의 총체성’이 이렇게 다시 분열됩니다. 고인 물이니까요.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힘을 나누고 해석권을 가지니까요. 고인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려면 새 물을 받아야지요. 최근 로잔 운동 안에서도 신학연구위원회(Theology Working Group)의 구성원들은 에큐메니컬 진영이 던지는 선교적 주제들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유입되는 ‘새 물’도 있겠지요. 여기에 더하여 ‘여성(주의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9) 채수일, “WCC 제10차 부산총회와 향후 한국교회의 과제” 『세계와 선교』 217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3), 5-6.

30) 김준곤, “보냄받은 자의 사명” (1981. 1. 25), <뉴스앤조이> 2023년 7월 17일자 인터넷 기사 “2023년 7월, 한국 교회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빌리 그래함 전도 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지켜보며”

참고문헌

- 김광성, “로잔 운동 선언문에 나타난 전문인 선교 개념 고찰”, 『복음과 선교』 제54집(2021): 9-42.
- 나용화, “잔 언약과 한국교회의 과제”, 『개신논집』 7 (2007): 121-152.
- 박보경, “로잔운동에 나타나는 화해로서의 선교: 2004년 파타야 포럼과 케이프타운 서약문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38 (2015): 141-170.
- 박영환, “베를린 세계복음전도대회가 로잔대회에 끼친 영향과 과제”, 『선교신학』 46(2017): 108-144.
- 안승오, “로잔신학의 흐름에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 『선교신학』 40 (2015): 143-170
- 이문식,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언약과 선언과 서약으로”, 「‘로잔 너머’ 연속심포지엄 1차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2023. 6.27. 자료집: 3-18.
- 장훈태, “로잔운동과 신학교육”, 『선교신학』 40 (2015): 241-274.
- 채수일 “WCC 제10차 부산총회와 향후 한국교회의 과제”, 『세계와 선교』 217.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3 겨울호: 3-6.

[논찬문]

로잔운동과 한국사회선교운동 토론문

이성영 _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한국형 로잔운동, '성서한국 대회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

저에게 80년대 선배님들이 겪으셨던 '로잔언약'의 경험은 성서한국대회입니다. 어려서부터 고신 교단에서 자라면서 주일에 돈도 쓰지 않는 엄격한 주일성수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매년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요청에 자의반타의반으로 일어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성수와 복음전파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성경적 토지정의,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단체로 오기까지 몇 번의 생각의 전환과 관점의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성서한국 대회였습니다. 대학생 시절 학교에서 성토모(성경적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지부 모임을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사회선교에 대한 신학적 토대와 세계관의 정립이 되지 않아 기존의 이원론적 신학체계와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2006년 성서한국 대회에서 주강사 김희권 목사님의 여호수아 강해를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사회선교에 대한 신학적 체계와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마치 목이 타는 중에 시원한 생수를 들이킨 것과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습니다.

80년대 불의한 시대 현실과 보수교회가 말하는 정교분리 기독교신앙 사이에서 힘겨워하던 그 시절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보수교회에 몸담고 있던 신앙의 선배들이 로잔언약이 제시했던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에 얼마나 해방의 감정을 느꼈을지,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동력이 되었을지 2000년대 중반 성서한국대회를 통해 해방감을 느꼈던 제 경험 속에서 대략이나마 짐작해봅니다.

로잔 이후의 고민

성서한국대회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신학적 토대와 관점을 정립한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교분리를 주장했던 보수교회도 적극적으로 광장에 나가서 사회참여를 하고 있기에 더 이상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사회참여'에 대한 제안은 교회를 향한 주된 요청사항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에 관한 최근 제 고민의 지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서로가 생각하는 사회참여의 방향은 다른가'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신학적 토대가 달라서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은 같은 신학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서서히 분화가 나타나는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학적 토대가 같더라도 세대와 지역 등 각자가 '서 있는 지점에서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사회참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거친 가설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참여의 방향이 다르더라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접점과 협력지점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입니다. 사고체계와 경험의 차이로 인한 분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접점과 협력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분화는 분열이 아닌 다양한 사회참여의 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상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류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대의명분과 열정의 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의제를 상대방이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않으면 마음 상해하고, 감정 섞인 대화로 관계의 문이 더 닫히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모이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소위 '정치적 부족주의'가 더 심화되는 흐름을 종종 봅니다.

소통과 협력은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 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 넓은 연대와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고도의 영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포용의 영성이 깊어지지 않고 공평과 정의의 잣대만 날카로워지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경계가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계심은 어떻게 사랑과 포용의 영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 번째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과 포용의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는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침과 성찰'을 돕는 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확신에 대해 여지와 여백을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는 건강한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자연스레 가능하겠지만, 후자는 기도원 문화의 보수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간구와 강령의 통성기도 중심의 기도원 문화에서 '침과 성찰'이라는 단어는 물과 기름같이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영성훈련에

서 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톨릭과 성공회에서는 ‘쉽과 성찰’이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파 개신교 기반 사회참여 진영들의 공격적인 광장 사용 방식을 보면서 간구와 강청기도 중심의 기도원 문화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신교의 기도원 문화가 ‘성찰과 돌아봄’, ‘쉽을 통한 여지와 여백’을 두는 법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것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원 문화에 익숙한 보수교회에서 자라나 피정 문화에 익숙하진 않지만 개신교 수도원인 예수원과 성공회 피정 등을 통해 ‘쉽과 성찰’을 돕는 수도원 문화에 대해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수도원 전통의 기도와 독서 방식, 피정 등을 통해 쉽과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포용의 영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세상의 속도와 리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회운동을 하는 비기독교인 분들 중 휴가를 내어 가족들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참여하시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괴물과 싸우다 피폐하고 공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문화와 속도에 지친 많은 이들이 템플스테이를 찾는 모습을 봅니다.

절대빈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산업화가 한창이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한국에서는 간구와 강청 기반의 기도원 문화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무한경쟁, 물질만능주의에 질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 복음주의가 이들에게 숨 쉴 공간과 대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잔이 진보와 보수 개신교의 화해를 모색했다면 로잔 너머는 2000년 교회사와 화해를 모색하며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추신 : 오늘의 발제문은 아니지만 지난 1회 이문식 목사님의 발제문에서 이문식 목사님의 삶과 사역 이야기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목사님 사역의 주요 키워드인 외국인노동자, 지역 등은 사랑과 포용의 영성을 기른 이들이 가야 할 오늘의, 그리고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시급해질 내일의 주요 사역지라고 생각합니다.

[논찬문]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넘을까요?

박현철 _ 청어람ARMC

복음주의적 사회 선교 현장의 최전선에서 총체적 복음의 구현을 고민하고 그 정신을 지켜가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대학기독교인연합 운동을 통해 복음주의 운동, 정확하게는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을 접하고 그 안에서 제 신앙의 틀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사회 선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는 아니지만,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의 후예이자 열매라고 생각하며 복음주의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0여 년의 신앙적, 신학적 여정 끝에 저는 더 이상 복음주의자가 아니며, 정확히 말해 복음주의자일 수 없겠다는 혼란과 애증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제 신앙의 토양이지만, 2023년 현실의 복음주의는 제가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넘어서야 할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적 맥락에서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의 대표적 활동가이신 구교형 목사님의 글과, 스스로 복음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고백하시지만 복음주의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며 의지하고 계신 백소영 교수님의 글을 보며 많은 배움을 얻고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교형 목사님의 글은 한국 교회의 사회 선교 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잘 설명해주며, 그 가운데 로잔 운동이 미친 영향과 성과를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의 큰 흐름을 요약해주셔서 후배로서 배울 점이 많았고, 뒷부분에 담긴 제안들은 선배로서의 고민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선후배 세대들이 함께 고민하고 응답해야 할 글이라 생각합니다.

백소영 교수님의 글은 객관적 시선으로 로잔운동의 전개와 신학적 지향 속에서 드러난 여성관을 분석하고 그 한계와 극복해야 할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총체적 선교니 하나님 나라니 하는 거대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소외되는 이는 없는지 따져 물으며 '끊임없이 흘러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글을 읽고(사실은 읽기 전부터) 제 머리 속에 들었던 몇 가지 질문을 털어놓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감당해보려 합니다.

저의 첫 번째 고민은 우리는 로잔 운동의 성격과 기여, 그리고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위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권의 사회 참여적 흐름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며 흐름임은 분명합니다. 74년의 로잔과 그 이후 마닐라, 케이프타운 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문서에서 총체적 선교가 강조되고, 사회 참여가 더 이상 진보적인 이들의 전유물이 아닌 보수적 선교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부각된 점은 로잔의 가장 큰 기여입니다. 이재근 교수는 '한마디로 말해, 로잔 이후 복음주의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세계 복음주의 지형도>, 209쪽)고까지 선언합니다. 덕분에 이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주의-복음주의의 신앙 전통을 넘어 그리스도교 전체의 맥락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선언이였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잔 선언과 대비되는 WCC의 선교 모라토리움 선언과 인간화(humanization)에 대한 고민, 그 이후 이어진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발전해온 신학적 의제들과 비교해 볼 때 로잔 운동이 제시하고 발전시켜온 의제들은 그리스도교 전체를 위해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왔는지 의문입니다. 74년 존 스토틀의 역할과 르네 빠디아, 사무엘 에스코바 등 남미 복음주의자들의 기여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전과 얼마나 다른지, 로잔은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는 주된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끝내 그것을 붙들고 지켜내야 할 만큼 유의미하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로잔 운동은 하나님의 온 세계, 모든 창조세계가 함께 번영하는 집(oikumene)을 위한 충분한 선언이고 활동이며,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바 24년 로잔 총회에 한국 대형교회들이 지원하며 총체적 복음 운동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로잔 운동 자체가 가진 한계가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24년 대회에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74년 당시 빌리 그 래함이 대회를 주도하고 장을 만들어낸 바에 비해 무엇이 다른니까? 애초에 로잔이 가진 보수성과 한계, 한걸음 더 나아가서 로잔이 주장하는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로잔 너머 같은 성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다만 대형교회들이 로잔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로잔의 정신이라는 것이 과잉 대표성을 띤 것은 아닌지, 한국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진영 역시 로잔 운동의 성격과 한계를 과대평가하고 관성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로잔대회와 거기서 제시하는 총체

적 선교 개념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진정성과 성실성, 나아가 총체성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74년 대회부터 이미 한국 교회는 로잔 대회에 참석해왔고 직간접적으로 국제 로잔 운동과 연결해 여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미 89년 마닐라 대회 이후 한국 로잔위원회가 있을 설립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수영(전 새문안교회), 이종운(전 서울교회) 등이 위원장을 맡으며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위원장으로, 그 외에도 다수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지도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각 신학교 교수들이 포진해 있는 로잔 교수회와 그 지도를 받는 신학교별 로잔 동아리, YLG(Young Leader Group)등 교회와 신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이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교형 목사님은 '한국에서(특히 한국의 사회선교 운동에서) 로잔 운동의 간접적, 우회적, 사후적 수용형태가 독창적이고 뚜렷한 특징을 가졌다'고 자평하셨습니다만, 이는 사후적 평가일 뿐 한국에서 실제적 로잔운동의 주류 활동은 이미 대형교회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총체적 선교'의 정신을 대형교회들이 전유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로잔의 정신을 계승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해 오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로잔 운동에 관여하고 그 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정신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신독재가 절정이던 당시 참석자들조차 이를 자세히 소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한 줄의 정리는 오히려 로잔 운동을 신화화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진영이 24년의 로잔에 대해,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명분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역량과 담론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은 많고 이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담론, 설득해야 할 대중, 동원해야 할 자원들은 더 많습니다. '누구의 세계관이 옳어나는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삶의 진정성과 신앙적, 사회적 설득력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하신 구교형 목사님 말씀처럼 더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저의 세 번째 질문은 과연 한국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운동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누구의 운동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더 많은 고민과 대화가 필요한 큰 질문입니다만, 백소영 교수님의 글에 이어서 간단하게나마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운동이었던지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잔 너머를 고민할 때 저 너머에는 누가 있는지, 누구를 위해 이것을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90년대 한국 사회의 과제가 그러했듯이 87년형 복음주의(혹은 86형 복음주의)라 불리는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의 현장과 과제는 소위 민주화와 경제 정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제가 단순했기에 한국의 사회 선교 운동은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며 한국 사회의 문제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 선교 운동의 전선과 현장도 다양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사회 선교 운동은 이렇게 다변화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선교 운동은 미전도 종족을 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선교 운동은 누구를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기존에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던 이들, 교회에 의해 배척받고 소외된 현장이 사회 선교의 대상이자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한국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해 충분히 의미 있는 사회 선교를 펼치고 총체적 복음을 실천해 왔습니까? 또한 소수자들은 사회 선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진영 안에는 복음주의 동질 집단인들 외에 복음이 필요한 당사자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까?

현재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이 처한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위기는 운동의 당사자성과 교차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당사자 운동 없이 총체적 선교는 담보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청년, 여성, 소수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의 운동이 그들을 위한 운동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이 제국주의 선교 방식, 시혜적 선교 방식과 얼마나 다른 방향과 방법론을 갖고 있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음주의자가 아니며, 복음주의자일 수 없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이 80년대의 운동으로 당사자성은 갖고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운동으로 당사자성과 교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학시절 저의 신앙과 전통을 형성한 복음주의에 대한 존중과 감사는 있지만, 2023년을 현실을 살고 고민하는 저에게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유의미한 '저의 운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경제 정의와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공정 외에 그 이후의 담론에 대해(예를 들자면 여성, 성소수자, 도시화, 기후위기, 동물권 등)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진영은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한국 복음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며 세계 로잔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의제는 기존 복음주의의 틀과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신앙운동이며, 로잔을 넘어서 WCC를 비롯한 다양한 그리스도교 전통의 흐름들과 대화할 뿐 아니라, 타종교나 무신론자들, 무엇보다 지금 교회의 관심에서부터 소외된 소수자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연대하는 신앙운동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저에게 있어 '무엇을' 넘어설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잔을 넘든 WCC를 넘든 무언가 넘어서고 싶은데, 과연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넘어설지가 저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귀한 두 분의 발제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단

지 '로잔 운동' 혹은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에 매이지 않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잔너머’ 연속 심포지엄

3차/ 로잔운동과 청년의 공감

2023년 10월 31일

주관_로잔포스트

[발제문]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황규태 _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1. 총체성과 한국 기독교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참여가 곧 복음전도일 수는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인한다.’
(로잔언약 5항)

로잔 언약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모두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총체성이고, 저는 이 총체성이 로잔과 복음주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교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실제적인 세상의 문제에 헌신하는 일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곧 인간, 문화, 자연 세계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선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잔언약의 정신을 계승한 케이프타운 서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선교에서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참여가 통합되어야”(케이프타운 서약, 10항 B)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선교의 총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께서 로잔이 말하는 총체성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다양한 사회의 영역의 총체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 안에 여전히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강조와 세상을 향한 헌신에 대한 강조 사이의 갈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에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와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과, 세상과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분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세상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는 죄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은 종종 그 자체로 악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전혀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영역으로 그려지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선교는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국한되고,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제 주변에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임하는 꿈을 가지고 인권, 노동, 기후위기, 성평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과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그분들 속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나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이라도 환영하지만, 그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정답을 미리 내려놓고 다른 의견이나 질문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마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그분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그분들에게 약자와 연대하지 않으려는 자로 보일까 걱정되어 말을 아낀 적이 있습니다.

3. 진정한 대화 - 재일 조선인과의 만남

이렇듯 제 안에는 복음 전도와 교회를 강조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무관심에 대한 불편함과, 사회 참여와 세상에서의 헌신을 강조하는 이들을 향한 우려가 공존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둘 사이의 통합을 이루는 총체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안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갈등 상황 속에서 진정한 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관계에 놓인 상대방을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여기며 대화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 참여에 헌신하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는 무관심한 채 사회 운동에만 몰두하는 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복음전도주의자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의 세력만을 키우고 싶어 하는 이들입니다. 서로를 자신의 판단 안에 가둬 상대방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따라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이들 각각에 대해 불편함과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란만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하여 말을 아낀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있는 대화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에게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경험은 아니지만, 진정한 대화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2019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의 조선인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그 곳에서 재일조선인들과 일주일가량 함께 시간을 보내며 현지 조선학교의 수업을 참관하고 페인트 보수 작업을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일은 그곳 학생, 학부모들과 먹고 마시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 운동을 즐기며 교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진정한 대화 공간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저의 시선 속에는 분명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 김명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 학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재일조선인들의 삶이 일제 강점기 당시의 강제 징용과 조선인 학살 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역사는 일본 사회 속에서 그들이 받는 차별 속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함께 그들에 대해 알고 싶었고, 그래서 재일조선인 공동체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안에는 재일조선인을 향한 또 다른 시선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공동체는 조총련계 재일조선인 공동체, 곧 북한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기에 그에 대한 고민이 마음 한켠에 자리잡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현지 조선학교에서 북한에서 볼 법한 수업이 진행되는 것과,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수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의 가사가 담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재일조선인을 향한 양가적 감정과 시선으로 인해 제 안에는 혼란스러움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진심어린 대화를 통해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재일조선인을 향한 양가적 시선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학교의 학부모님들과 모여 대화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학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맙다시면서 다른 경로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드린 질문 중에는 왜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이나 한국, 또는 북한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지, 또 이 세 국가 중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국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일본이나 한국,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강제로 일본에 끌려오면서도 간직했던 조선 민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일본에 의해 '빼앗긴 정체성'이고, 자신들의 가족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지켜던 정체성이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일조선인들이 일본 사회 내에서 모진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조선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생각을 나누었을 때 재일조선인들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한 저의 시선의 혼란스러움도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재일조선인 분들과 충분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곳의 학생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또래였기에 저희들은 사춘동생들과 놀아주듯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좋아하는 음식과 가수에 대해 물어보았고, 저녁에는 축구부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축구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과는 재일조선인과 일본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연애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재일조선인과 저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그들을 북한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으며, 돈까스와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한 명의 학생으로 말입니다.

이렇듯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 속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번의 경험으로 인해 재일조선인을 향한 기존의 모든 선입견과 판단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재일조선인을 향한 시선과 관련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며 쌓인 친밀함은 분명히 한 사람의 외적인 규정 배후에 있는 인격을 볼 수 있게 하여 그 사람과 진정한 대화

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더 깊은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기에 그 이후로 제일조선인 분들을 만나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4.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

‘우리는 화해의 생활양식을 취한다. ... 갈등의 저쪽 편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환대하며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 장벽을 넘어서는 행동을 먼저 취한다. ... 갈등의 상처들을 장기적으로 치유하는 데 참여하며, 교회로 하여금 과거의 적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피난처와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한다.’
(케이프타운 서약 2부 행동요청, B항)

케이프타운 서약은 화해를 말하고 있고, 화해를 위해서 장벽을 넘어서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첫 번째 행동은 진정한 대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경험한 대화가 바로 진정한 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마주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선입견과 판단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을 담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도 나를 향한 상대방의 솔직한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 존중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대화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갈등의 쟁점과 관련된 대화와 모임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갈등의 쟁점 너머에 있는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보일 것이고, 그 사람과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사이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갈등을 마주합니다. 로잔이 말하는 총체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갈등의 쟁점 속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고 진정한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포기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저부터 먼저 상대방을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존중하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지으신 한 명의 사람을 바라볼 것을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공인 철학을 살려 저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서양 철학의 시조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하는 방식을 가리켜 ‘산파술’이라고 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산파가 도와주듯이, 자신은 상대방이 지식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

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곧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앞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문제와 관련된 진정한 앞도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대한 앞에 이를 수 있는 길도 대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바라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리가 도래하는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발제문]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김서진 _ 방송작가

들어가며

로잔너머 심포지움 발제를 맡아보겠냐는 제안에 당연하게도 쉽게 승낙하지 못했다. 복음주의, 전도, 사회참여 등 나에게 로잔은 키워드로만 뚝뚝 떨어져 유명하든 어떤 것이었고, 올해서야 처음 들여다본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다. 얕은 이해이지만, 아직까지는 여성 청년들이 들여다보고 참여해볼만한 의미의 운동이라고 판단했다.¹⁾ 또한, 여성 청년의 이야기가 개신교 어느 한 곳에서라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로잔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작은이의 이야기도 담론이 될 수 있고, 닿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밀바탕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남성 위주의 개신교 내부에서 여전히 자신을 던지며 싸우는 믿음의 여성 선배들에게 화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들이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 의지를 잃지 말아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이제 막 로잔을 알아가는, 로잔과 세상과 교회 경계에 서 있는 여성 청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제했다. 한국교회에 성, 차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곁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의 시선으로 발제했다. 이 자리가 이야기하는 ‘청년’에 엘리트 신학자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평범한 여성 청년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임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1) 상반기부터 알게 된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의 이강일 소장님 덕이 컸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청년들의 의견을 대하는 태도가 로잔이 여전히 ‘괜찮은 운동’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1. 여성의 현실²⁾

예장합동에 속한 본인 교회 대예배는 장로, 남성 안수집사만 대표기도를 한다. 20대 초반 캠퍼스 선교단체 등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교회의 이야기를 접해보니 그제야 이상했다. 이 교단이 남성 목사만 세운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예배 기도까지 전부 남성의 몫이라니 새삼스레 불편했다. 목사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봐도 난처한 대답뿐이었다. 교단의 결정에 따르는 모양이었다. 선교단체 후배의 모교회는 더 이상했다. 여성은 찬양 팀으로 설 때조차도 제약이 많은 교회를 섬기다가 서울로 왔다고 했다. 딱딱딱한 소식도 있다. 매번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여성 목회자의 강도권, 안수 허용에 관한 안건이 올라가지만 번번이 무너지는데, 지난 9월에는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용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얼마 전, 페미니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모두 크리스천들이었는데 본인을 제외한 모두가 남성이었다. 질문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 나온 질문은 '여성에게 밤길에 진짜로 무서운지'였다. 화는 나지 않았지만 순간 말은 잃었고, 이것이 현실이었다. 자리에 모였던 남성 청년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참여적인 삶을 고민하며, 신앙을 탐구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적어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일 것이라 믿는다. 알기 때문에 악의 없는 순수한 질문이라고 이해하면서도, 그것은 결국 여성 청년 앞에 닥친 현실이었다.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에게 여성 의제가 '여성'만의 의제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여성 의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이유가 '아무래도 남성'이기 때문이었다. 여성 의제가 남성들의 주요 의제로 여겨지길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까? 여성 의제는 남성과 가정과 교육과 사회구조와, 그렇게 나아가 개인과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남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의제가 '나의 의제'가 아닐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타 의제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교회 내 여성 청년들이 '미래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교회의 주요 자리에 설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력감을 갖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어떤 날은 참고, 어떤 날은 수궁하고, 때로는 속으로 분노한다. 왜 여성은 주요 자리에 설 수 없을까. 왜 여성에게는 주로 양육과 봉사에 한정된 사역만을 요구할까. 교회 안의 여성 청년들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조신한 태도를 취하며 산다. 괜찮아서가 아니라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 매주 불편해도 매주 분노할 수 없다. 매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분개할 수는 없으니까. 교단과 교회를 떠나라는 조언도 꽤 많이 들었지만, 교단을 옮기고 대안

2) 개신교 내부의 여성을 말한다.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

어찌저찌 교회를 버려내고 있지만, 전도의 영역에서는 또 말이 다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이 정체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당당하게 초대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그 물리적 공간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자랑은커녕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만연한 고집과 편견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보니 초대는 고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숨길 거리가 되기도 한다. 나중에 개신교 내부에 남는 청년은, 그 중에서도 여성 청년은 몇이나 될까.

2. 연결되기 위해서는

숨통이 필요하다. 단숨에 교회를 뒤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면 가진 의제를 부담 없이 터놓고 나눌, 함께 변화를 논의하고 지원해 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로잔은 그간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커다란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몇 가지 태도를 지닌다면 로잔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여전히 복음주의자 여성 청년들에게 공동체가, 공동체를 만날 플랫폼이 되어줄 수 있다고 본다.

1)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흔히들 성도를 하나님의 군사라 한다. 그래서일까, 대화로 시작해도 종종 논쟁이 된다. 논쟁해야 할 때와 받아들여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신학적 잣대를 들이밀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순간을 종종 마주한다. 일단 다르면 낙인찍고, 그것을 승리라 부른다.

‘우리는 어떤 공통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가?’ ‘왜 자꾸 갈라지기만 하는가?’에 대해 자주 고민한다. 로잔은 초교파적으로 모인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란다. 그런 로잔이 공유하는 커다란 신앙고백이 무엇이며, 정말로 동일한 신앙고백 아래에 있다면 어떤 신학적 견해도 함께 공론장에 올릴 수 있을까?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로잔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자료를 찾아봐도 손에 딱 잡히지 않았다. 서약문을 읽어보아도 ‘이런 결이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느껴질 뿐, 깔끔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웠다. 복음주의자도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곤 하니 로잔도 그렇겠다 하며 ‘백락’으로 이해했다. 강제성과 처벌로 가득한 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곳이었다. 이것이 이분법에 익숙한 한국교회와 로잔이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복음주의권의 여성 청년들은 교회 안팎으로 소외의 두려움에 놓여있다. 여성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전제와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매우 필요하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감각의 개념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를 끌어안는 일이다. 상대의 배경을 익히고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일이다. 로잔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곳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세상도, 성경도, 로잔도 내러티브로 이해해야 하듯 여성들의 이야기도 내러티브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은 신앙고백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군사와 재판장이 아닌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2) 시혜적인 태도와 침묵에서 벗어나 여성 의제를 주요 의제로 삼기

이번 예정합동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허용’이 번복되기 전 잠시 허용이 결정되었을 때, 총대들은 “이번 결정이 여성목사 안수와는 관계없다”³⁾며 선을 그었다. 기분이 나빴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권 허용마저 번복되었다. 다른 교단은 괜찮을까? 여성안수를 법제화한 예정통합 총회도 남성 목사와 남성 장로에 비해 여성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며⁴⁾, 여성 총대 할당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장조차도 올해 총회에서 여성 총대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안건을 기각시켰다.⁵⁾

한국교회를 예시로 들었지만 로잔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로잔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늘고 있다지만 구색 맞추기에 가까운 방안이 칭찬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다. ‘제4차 로잔 대회 한국준비위원회’에도 온통 남성뿐이다. 여성들이 교육과 봉사와 리더십에 참여하도록 기회 문을 더 넓게 열자고 외치면서⁶⁾ 누가 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다가 “우리는 수치스러운 우리의 피상성과 제자도의 결핍, 그리고 우리의 분열과 사랑의 결핍을 애통해한다.”⁷⁾ 고 이야기하던 케이프타운 서약 결론의 문장이, 내년 서울대회 문서에도 다시 한 번 더 쓰이는 건 아닌지, 매년 피상성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교회든 로잔이든 이렇게 부분적인 허용과 참여 비율을 늘리는 등의 단순한 방안으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핵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다분히 시혜적인 태도다. 시혜적인 태도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여성을 답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태도가 ‘침묵’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대다수의 남성에게 여성 의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견고한 남성 위주의 공동체에서 여성 의제는

3) 장창일, 김아영, 유경진, 예정합동 ‘여성 강도권’ 길 열어... 女사역자도 설교한다, 국민일보, 2023.9.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105&code=23111113&cp=nv>

4) 장창일, [미션 특!] 해외교회, 여성 지도자 속속 배출하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유리천장’ 국민일보, 2023.9.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3458&code=23111633&cp=nv>

5) 나수진, [기장5] 여성총대 비율 확대한 ‘기각’, 뉴스앤조이, 2023.09.20.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09>

6) 로잔 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최형근, 역), 2014, IVP, 126쪽.

7) 로잔 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최형근, 역), 2014, IVP, 130쪽.

대체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소수의 여성들이 언제나 그랬듯 울분을 토하며 바깥에서 이야기해야 할까? 여성 의제가 자신의 의제로 여겨지는 남성이 나타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 모두가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참여와 복음 전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총체적인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야 하듯, 여성의제는 다양한 의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주요 의제로 자연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남성들이 여성 문제를 ‘내 일이 아니니까’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일처럼’ 생각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필요하다.

3) 자세를 낮춰 다가가기

기성세대에게 로잔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다. 나 또한 로잔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여겨진다. 하지만 평범한 젊은이들에게 로잔은 참여의 허들이 꽤나 높은 운동이자 낯선 대회다. 정보량이 부족한 동네 작은 교회의 청년들은 로잔의 존재나 참여하는 방법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로잔정신을 필요로 하고 로잔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로잔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역자, 신학생 중심의 홍보가 아닌, 구석진 동네의 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

로잔이 자발성을 강조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보과다 시대에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고고한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쉬운 팸플릿을 만들고, 로고송을 만들고, 프로젝트 팀을 꾸려 직접 영업을 뛰어야 한다. 나 또한 그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로잔에 작은 희망을 걸게 된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보다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열린다.

큰 교회가 조직적으로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모여 하나의 이어진 운동과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로잔의 원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을 때다. 로잔이 여느 개신교 모임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남기 위한 곳이 아니라면.

3. 우리는 진짜 연결되고자 하는가?

사실 진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진짜 연결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진짜 말하는 만큼 살아가고 있을까?

만화가 윤태호의 <미생>이라는 오피스물 작품을 보면, 신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사업 기획안을 쓰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영업 팀에서 제출한 사업 기획안이 재무 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

되어 돌아온다. 문제점은 무엇이였을까? 작품 내 신입사원은 진짜 사업을 만들지 않고 ‘사업놀이’를 위한 기획안을 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⁸⁾ 영업 팀은 기획안을 쓰는 시늉만 했을 뿐, 기획안에 담긴 내용이 진짜 ‘일’이 되게끔 만들지 않았다는 거다.

여러 법정 드라마에서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건의 유죄와 무죄를 가려내기 위해 치열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용인되는 지점에서 ‘이정도면 됐다’고 판단할 만큼만 움직여 재판을 빠르게 끝내는 장면이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의 진짜 쟁점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해결을 하여 사건에 얽힌 것들을 풀어내는 것일 텐데.

케이프타운 서약 결론에서는 로잔의 여러 활동을 통해 나온 수많은 목소리를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 급진적인 순종의 제자도가 필요하다.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며,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
- 십자가 중심의 급진적인 화해가 필요하다. 하나 됨으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소망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한다.⁹⁾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 때도 이미 지지부진한 활동들을 고민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때 고민했던 대로 지금은 진짜 연결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안하면 드는 죄책감이 싫어 여전히 흥내만 내며 애통‘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른다면 방법을 강구하면서, 완벽한 결론이 아닐지라도 일단 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미생>에서는 삶은 어쩌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란¹⁰⁾ 신앙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다. 우리는 끝없이 문을 열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망설이기만 한다면 영영 문 너머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로잔은 운동이기에, 로잔 정신을 한 사람이 체득하고 온전히 실천해낼 때야 비로소 진정한 지속을 논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의 논의도, 내년 로잔대회에서 문서화될 많은 이야기들도 문장에 갇힌 구호로만 남기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글은 우리의 삶보다 자주 변지르르하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때문에 사람은 실망감 속에서도 여전히 연결될 공동체를 찾는다. 사람과 사람이 늘상 완벽하게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혼을 향해 기꺼이 내딛자. 우리의 화해가 한 발자국에서 시작될 때 로잔으로 계속

8) 윤태호,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3: 기풍”, 위즈덤하우스, 2012, 146~149쪽.

9) 로잔 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최형근, 역), 2014, IVP, 129쪽.

10) 윤태호,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3: 기풍”, 위즈덤하우스, 2012, 234~235쪽.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인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물 만난 물고기〉의 가사로 마무리해본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live like the way we sing.’

[발제문]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하기¹⁾²⁾

박다혜 _ 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³⁾

들어가며

저는 85년생 11년차 변호사입니다. 굳이 숫자로 제 소개를 시작하는 이유는, 소위 ‘청년’으로서의 어떠한 지표나 정체성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밀레니얼세대(M세대)의 끝자락에 걸쳐있기는 하지만, 저의 가치와 지향과 별개로 제가 가지고 있거나 저를 둘러싼 생애경험을 고려한다면 흔히 한국사회에서 ‘청년’이라는 세대로 일컬어지는 의미와 맥락을 갖고 저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⁴⁾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 <로잔운동과 청년의 공감>이 청년이라는 ‘세대’를 호명하는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1974년 로잔언약의 선포 당시 혹은 그 가까운 시기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을 청년으로 통칭하며 이들이 로잔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며 본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발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대학과 일반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환경단체, 노동조합 법률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소송과 자문, 연구, 입법,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환경, 정당 정치, 복지국가, 불평등 등의 의제에 관심이 많고 노동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에 활동으로 직

- 1) 본 발제문은 ‘로잔너머’ 연속심포지엄을 위해 모인 제한된 범위의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개인적 고백임을 밝힙니다.
- 2) 발제문의 제목은 벨 훅스,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2023에서 영감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 3)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소속
- 4) 저는 ‘청년’이라는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평가에 동의하며, 소득, 재산, 학력, 성별, 지역, 직업 등을 배제한 채 세대라는 분류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사유하는 대부분의 세대담론을 거부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분석은 신진욱, 그런 세대는 없다, 2022, 제1장과 제2장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접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운동과 기후위기운동에 애정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지난 2차 심포지엄(8/29) 발제문에서 구교형 이사장께서는 ‘86형 복음주의 세대’의 공동의 목표가 독재와 재벌 반대였다고 하셨는데⁵⁾ 저는 민주주의, 국가폭력, 자본주의, 불평등 등의 문제를 여전한 ‘오늘날의 과제’로서 꺼안고 씨름하면서, 동시에 젠더, 차별, 기후위기와 같은 의제 역시 ‘나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동을 하며 널리 이웃과 함께 존엄한 시민으로 사는 삶을 꿈꾸는,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어린 시절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나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다른 운동에 비한다면 교회나 교계, 복음주의 운동, 하나님나라 운동 등에 대한 일종의 소속감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며 저를 낮설고 신기해하는 질문을 교회 안팎에서 자주 받아 왔습니다. 한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가 제 고민이자 숙제라고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1. 로잔정신의 무엇에, 어떻게 공감하는가

이런 제가 이 자리에 섭외될 때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로잔운동에 대한 공감이라니, 새삼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찍이 대학 시절 출석하던 교회에서 로잔언약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 배워 알고 있었고, 로잔언약과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이 모두 등장하는 교리신조를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앎과 경험은 제게 분명 어떠한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배운 ‘복음의 총체성’을 실천하고자 어떠한 삶의 경로를 거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교회는 해외선교를 강조하며 제게 의대 진학을 강하게 권면했고,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활동한 캠퍼스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케 하는 것에 집중했을 뿐 사회 참여나 사회선교에 대해 언급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며 접한 르완다 학살과 같은 분쟁지역 문제,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빈곤과 착취, 전 세계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 등에 대한 깊은 고민, 당시 ‘장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범죄로 인해 위협받는 민주주의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한탄과 기도가 공명될 공간이 없었습니다. 신우회 등의 모임도 꾸준히 시도했지만 성적과 시험합격 같은 사적 성취를 여럿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제목으로 내놓는 자리에는 좀처럼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 제가 공동체라고 부르던 교회나 선교단체의 지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함께 모여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배웠지만, 아쉽게도 어디에

5) 복음과 상황 2021년 1월호에 실린 이강일 목사의 글(사이더도 바꾼 복음주의, 우리는 어떻게 할까)에서도 ‘우리 때’ 복음주의 운동을 동일한 취지로 평가합니다.

서도 세상 한 복판에서 같은 뜻을 품는 이, 동지(同志)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나와 이웃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것인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⁶⁾ 나의 노동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조금이나마 실천할 것인지와 같은 고민이 가득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던 이들과 그것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밖에서 저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야 복음주의 운동 등 교계의 여러, 그러나 작은, 결코 다수는 아닌 활동을 알고 반가워했을 뿐⁷⁾, 제가 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활동하는 동지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지난 심포지엄에서 백소영 교수께서 본인이 ‘복음주의 진영의 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자랐지만 복음주의 진영은커녕 교회의 딸도 아닙니다(저 스스로 뿐만 아니라 저를 그렇게 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그 관심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와 저의 예배를 이루는 내용은 교회가 흔히 ‘세상’이라 부르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책, ‘민지 않는 이들’로 가득한 크고 작은 공동체, 투쟁하는 이들로부터 배운 사랑과 연대의 경험, 공부하는 이들이 쌓아 올린 지적 성취에 빚진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의 곳곳에 반영되도록 애쓰는 길 위에 서고 싶다고 감히 꿈꿀 수 있었습니다.⁸⁾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써 내려간 저의 서사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대부분 무관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저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보수적인 신앙교육을 받고 협소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졌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주님의 신비가 존재했음을 압니다.⁹⁾ 캠퍼스 시절 거의 매일 모여 열방을 향해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던 기도는 오늘날 현장에서의 생생한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삶은 불화하지 않았고 제가 믿는 것은 자연스럽게 저의 공부, 일, 활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물론 그 과정에는 고민과 버텨므로 지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의 총체성’이나 ‘하나님의 선교’ 등의 개념을 잘 알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총체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하며 예배하여 왔습니다.¹⁰⁾ 재판을 준비하며 조용히 책상에 앉아

6) 시편 127:1

7) 몇 년 전부터 복음과 상황을 구독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교계 내 여러 활동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되었고, 여러 투쟁 현장에서 스치듯 마주친 소수의 예배가 누군가의 활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한국 대회는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올해에서야 처음 혼자 참여해봤습니다. ‘활동가’라는 용어를 그쪽(?)에서도 쓴다는 사실과 스스로를 활동가라 칭하던 직업인이라 여기든 이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이만큼이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8) 복음과 상황 2023년 6월호에 실린 제 글(신학하는 마음, 다행의 마음)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져왔습니다.

9)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신앙교육과 신앙생활 등을 미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미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만,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저는 분명 다른 교회, 다른 캠퍼스 선교단체를 선택할 것입니다.

10)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총체적이지 않은 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써내려가는 시간을 통해 그 어느 순간보다 간절하고 실제적으로 이웃들의 삶을 헤아립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고, 주께 탄원하기도 합니다. 세세한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 일터와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분투하며, 때로는 사건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갖 책과 논문과 보고서를 뒤지며 근거와 논리를 찾아 헤매는 순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진실된 예배이자 선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지지받는 안정감 속에서 노동의 과정과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제가 꽤 단단하고 의연한 사람 같지만 자주 그렇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농촌이주여성의 노동을 추적하며, 재벌기업에서 노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경찰까지 동원되어 온 가족이 사찰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산재가 은폐되고 장시간·야간노동이 험값으로 후려쳐지는 것을 보며, 심지어 법원 판결조차 소용없는 뻔뻔한 기업들과 철옹성 같은 공권력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이들을 계속 마주하며, 자주 분노하고 한탄합니다. 우리의 노동과 애씀이 한없이 헛되게 느껴질 때면 온종일 찬양을 들으며 침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고하고 애쓴 소송에서 패소해 내 이웃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쟁취하지 못할 때, 법원이 일터에서 죽은 이들을 외면하고 '목숨값'을 한없이 가벼이 볼 때와 같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때'를 만나면 심히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좌절하지 않고 넘어진 사람들을 돌보고 다음을 도모하는 멋진 동지들을 보며, 일터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이윤보다 일하는 사람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변화를 일구는 빛나는 이들 덕에, 마음을 추스르고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들을 떠올리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한 자락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는 때때로 실패해도 그 중심에 자리한 사랑을 보시고 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끝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이 보여 주는 인간의 노동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는 노동이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일부라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각기 다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우리의 노동하는 삶 전체가 사역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긴다(케이프타운 서약 2부 행동요청 A항).

복음이 상황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이면의 불의한 세계관과 체제에 도전하고 이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악한 날이 올 때에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헌신짝처럼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의 충성이나 행위들로 되돌아갈 것이다(케이프타운 서약 2부 행동요청 B항).

구체적인 맥락과 결은 조금씩 달리 하지만 로잔언약과 이를 계승한 각 서약이 보여주는 로잔정신은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상황에 뿌리 내리라고, 교회 담

벼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 사랑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저는 로잔정신에 공감하고 이를 계승하려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 자리가 “2024 로잔대회가 담아내야 할 ‘총체적 복음의 이슈’와 한국교회가 로잔정신을 영적, 신학적 자양분으로 삼아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되게는 오랫동안 복음주의 운동을 하며 그 실천을 돌아볼 수 있는 경험과 책임이 있는 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 ‘세상의 딸’인 저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묻는 것에서 그 고민을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세상의 이웃, 특히 작고 약한 이들을 사랑하다 보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질서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저항하는 동지들도 만나게 됩니다. 공공성과 운동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몫을 두고 지금까지 제가 찾은 답입니다. 변호사로서 입법활동을 하고 환경운동에 관여하고 지금처럼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법률원을 나와 내년부터 새롭게 움직이려 하는 시간은 그 답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법정에서의 언어와 운동의 언어처럼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각의 언어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실천에 유리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몫과 과정은 모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음의 우산 안에서 가능한 정체성, 가능한 서사가 단 하나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다른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언어, 이중언어를 쓰는 것을 널리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숫자처럼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는 본래부터 저러해서, 저러한 것이 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죽음조차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나와 내 자식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평온에 감사할 뿐,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해간다. (중략)

이윤의 추구는 기업의 본래 그러한 모습이고, 모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인간은 비록 밥줄이 시장에 얽매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산다. 경쟁과 이윤추구, 비용절감이 시장의 진리라고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장은 시장의 작동방식이 빚어내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하지 못하는 까닭은 시장은 그 문제를 시장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¹¹⁾

11) 김훈, 빛과 어둠 -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노동과세계, 2019. 9. 25.

우리에게는 세상 곳곳의 깨어짐과 슬한 움직임이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곁에 서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깨지고 상한 세상'이라는 것이 나와 이웃이 당면한 현실로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고개 돌리고 거리를 두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더 큰 불평등을 양산하는 블로소득 자본주의¹²⁾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화답이 침묵, 무관심, 중립을 지킨다는 핑계로 그에 공모하는 것은 아닌지 아프게 돌아봅니다. 오늘도 7명 이상의 노동자는 일터로 출근했다가 생을 잃었을 것인데,¹³⁾ 우리의 자리가 이윤추구와 시장의 논리로 다져진 매끈하고 평온한 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에 눈을 떴다고 하는 이들이 세상이 깨지고 상한 곳임을 인지했다면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변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며 교회로 초대하고, 나머지 각자 일상은 '깨지고 상한' 그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게, 혹은 그에 복무하며 산다?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나라를 꿈꾼다는 사람들이라면서, 우리의 '복음'이 어쩌다 그렇게 귀결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소위 믿음의 공동체에 갇히거나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동지와 공동체를 찾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가면 그곳에도 함께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예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과 손·발이 교회나 선교단체, 가령 이런 자리나 성서한국 대회에 모이는 단체들 같은 정도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참여하든 베풀어서 교회나 복음주의 운동 안에 변주하여 이식하든 말이지요. 다양한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쓰며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하나님을 함께 목격하고 예배하는 동지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12) 월 스트런지 외, 오버타임, 2021, 12, 13쪽

13)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논찬문]

〈황규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에 대한 논찬

전성민 _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유튜브 민춘살롱

로잔 언약은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치고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선언은 우선성이 아니라 궁극성으로 복음전도의 위치를 정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현실에서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참고로 논찬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통합”을 논할 수 있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마치 안과 밖에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잔 언약과 케이프타운의 신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 대한 갈등은 발제자가 말씀하신대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심지어 로잔 운동 자체 내에서도 그 갈등은 더 심화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립니다. 갈등하는 두 입장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힘을 견주면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물론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 쪽이 힘을 더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쪽의 입장이 세를 얻으며 힘이 약한 쪽은 갈등 자체를 회피하며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며 전체 무대에서 퇴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분석일 수 있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상황(그리고 어쩌면 국제 로잔과 한국 로잔의 상황)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비슷한 힘을 가지고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다기보다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입장이 좀 더 주류가 되면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은 자신들만의 세계로 퇴각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일 논찬자의 우려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발제자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견해와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견해가 비슷한 힘으로 긴장 속에 있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사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한국 기독교는 로잔언약에서 시작해 케이프타운 선언으로 정리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총체적 삶에 대한 이해가 거의 무너져 버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발제자는 자신이 경험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갈등의 극복하고 그것들의 통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체성을 실현하는 한 가지 길로 솔직함과 함께 시간 보내기에 기초한 진정한 대화를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제시합니다. 발제자가 인정한 것처럼 발제자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경험은 아니”지만 대화의 토대와 그 열매에 대한 경험과 성찰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갈등에도 잘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대화”는 현재 한국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장면들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논찬자는 기독교 세계관 논의와 밀접한 일을 하면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한 특징을 “혐오와 차별, 독선과 대결의 근본주의 신학이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지는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들과의 대결을 조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논찬자는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들과 대결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나누었을 때 많은 분들의 공감을 경험합니다. 대화는 기독교의 핵심 덕목인 겸손과 관용의 실천적 열매입니다. 겸손과 관용에 뿌리 내린 대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의와 갈등 상황에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한국 기독교,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국제 로잔 운동에서 발제자가 제안하고 바라는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대화가 가능한 토대(솔직함과 함께함)와 장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토대와 장을 마련하려는 의도와 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발제문의 제목과 덧붙여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대화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을까요? 대화는 하고 싶을까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 발제자가 제안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인 삶의 총체성 회복과 실현을 시작할 수 있을 때만 50년 전 로잔에서 시작해 14년 전 케이프타운에서 맺힌 열매를 그나마 맛볼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통합과 화해 가능성 논의를 넘어 어떤 복음 전도인지, 어떤 사회 참여인지, 이 둘과 평화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대화할 수 있는 “서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기회를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관계를 다시 논해야 하는 퇴행적 상황 속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서울의 특별한 기회”를 “새로운 세대”에 넘겨주는 것만이 “서울 2024”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논찬문]

〈김서진,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에 대한 논찬

김종호 _ IFES 동아시아 부총무

4년 전 중학교 3학년이던 막내딸이 우리를 따라 대예배에 참석했다. 그날은 마침 첫째 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찬 주일이였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라”는 안내에 따라 몇 분이 일어났다. 우리 부부 사이에 앉아 있던 막내가 그 광경을 보고 아내의 귀에 대고 묻는다. “왜 다 남자에요?”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울 것도 없고 익숙해진 광경에서 막내는 의문을 가졌다. 왜 다 남자인가? 한편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분들은 왜 다 여자인가? 진짜 고민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너무나 궁색하다는 점이고, 이에 답할 의지가 교단이나 각 교회 리더십 안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누나들 셋 아래서 자랐고, 딸 셋을 키웠지만 부끄럽게도 여성의 목소리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달리 봐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건 10년 남짓 된 것 같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없이 살았기 때문이고, 그걸 특권이라고 부르는 걸 깨달았다. 백인의 특권(white privilege)이라는 개념을 접하면서 내가 가진 남성의 특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늘 발제하신 김서진님은 이렇게 팔자 좋게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성 의제가 여성만의 의제가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나의 의제로 삼을 수 있겠냐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던 세상을 살다, 강남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의 죽음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 같은 분노의 목소리가 남성들의 아둔한 귀를 강타했다. 그 목소리에 놀라고 당황했고 숙연해졌고 미안했다. 한편으로는 숨기도 했고,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는 사람들도 나왔다. 혹은 반발하고 억울해하고 혐오를 강화하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그 지점을 간파한 정치는 여성과 남성을 갈라 혐오라는 연료를 태워가며 정치적 목적에 젠더

갈등을 활용하는 교활함을 보였다. 지난 6월, “화해의 제자도” 저자인 크리스 라이스와 대화를 하던 중 백인의 죄책감(white guilt)이란 용어를 처음 접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명을 따로 들을 필요도 없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다. 왜냐하면 나는 남성의 죄책감(male guilt)을 갖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딸들은 확실한 페미니스트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겪는 황당한 일들이 벌써부터 많은 걸 안다. 그런데도 딸들의 고민을 헤아리고 함께하지 못한 채 일부 사안들에 대해 내가 무지한 말을 하며 상처를 주는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 딸들의 분노와 격한 감정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도 위축이 되고 미안한 마음에 딸들 눈치를 보게 되었다. 죄책감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마비시키고 움츠러들게 만들어 마땅히 할 일인데도 외면하거나 침묵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 상대방의 무지를 공격하는 방식이 건강한 반응으로 이어지기란 매우 어렵다. 남성들의 각성과 건강한 역할을 기대하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인내한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답답함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만히 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공격한다고 변화되지도 않으니 결국은 진실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길 외에는 해법이 없다. 로잔이 김서진 님이 말한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 다른 세계를 끌어안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공간을 안전한 공간(safe space)이라고 부른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과 공격 이전에 공감을 연습하게 된다. 이렇게 로잔은 모든 이들의 놀이터와 안전한 공간으로 설계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특권은 책임을 수반한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의 이익과 안전에 만족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내 특권 너머에서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는 감수성을 갖춘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내가 언젠가는 약자, 소수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그때도 안전할 수 있을 때, 그 세상은 건강한 세상이다. 남녀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연습과 경험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교육이고 실천이 될 수 있다.

더욱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선의나 호의 이상의 장치들이 필요하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와 함께 일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행사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성비의 균형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였다. 그 규정 덕에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의 성비, 연령구성이 제대로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그냥 하다 보면 여전히 혜택처럼 한 자리 주고 마는 지금의 관행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참 징글징글한 게 교회다. 교회로 인해 답답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

로 느껴지는 사연들을 종종 접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표를 지내신 송인수 선생님과 함께 농반진반으로 ‘(사)교회걱정없는세상’ 설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며 허탈하게 웃은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곳이 또 없다. 교회에서라도 이런 갈등을 넘어 이해를 경험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 언어를 찾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이뤄져야 한다.

갈수록 분열과 대립이 심해지고, 어떤 권위 앞에 자기를 내려놓기보다 자아가 최고의 권위가 된 세상이거나 싶다. 자기의 생각과 억울함이 가장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 서로가 매우 공격적, 방어적인, 그래서 모든 게 조심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 안전하게 느낄만한 편안한 자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고 공감을 연습하는 공간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세상에서는 포기한 것들을 구현해내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로잔이 여전히 붙들어야 할 책임이고, 그래야 젊은이들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공간이 될 것이다.

[논찬문]

〈박다혜,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에 대한 논찬

이강일 _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목사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보지 못했던 삶의 태도를 만났습니다. 발제자 박다혜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다수의 복음주의자의 접근과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애증이 있지만 그래도 빛진 심정으로 사랑하며,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문제에 응답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은 세상과 무관한 이 교회활동을 마음에서 떠나보낸 지 오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발제자는 이런 신앙 분포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로잔언약을 신앙고백문으로 삼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신앙훈련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찬양을 특별히 강조하는 선교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서 노동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환경, 정당정치, 복지국가, 불평등, 여성, 기후 위기에 이르는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변호사 활동 사이에 특별한 연결점은 없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각각 별도로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일 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이며 '주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에 대한 독특한 이중적 태도가 계속 그의 발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교회 밖에서 나로서 살아왔다'는 그이지만 하나님만큼은 세상에도 계시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게 느껴질 때면 종일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끝내 승리하신다는 확신도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써 내려간 나의 서사' 속에 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교회가 깊이 개입하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있지 않습니다.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모를 동지들과 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문제에 맞서는 세상의 동지들과 함께 자기 이야기를 써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문에서 노동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점과 복음이 '불의한 세계에서 변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잔정신에 공감하고 계승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로잔의 총체적 선교 언급이 떠오릅니다.

총체적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드러내는 것이다.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총체적 선교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회개를 행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가 사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케이프타운 선언 1부 10항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그는 로잔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위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독자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이 천명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원래 WCC가 1950년대부터 견지하던 것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아직도 낯설고 설명이 더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은 '교회의 선교'라는 정신에 따라 세상에 복음을 구두로 선포하고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려는, 협의의 선교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교회를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유일한 주체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서 하시는 총체적 사역에 교회가 동참하라는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발제자의 고백은 '교회의 선교'보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표현들이 로잔언약(1974)이나 마닐라 선언(1989)이 아니라 케이프타운 서약(2010)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로잔운동은 문서상으로는 케이프타운 서약의 구체적 서술, 하나님의 선교, 화해의 정신까지 진척되었지만, 전체 구성원들이 이 정신을 이해, 구현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로잔운동이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저로서는 발제자의 로잔정신에 대해 '공감과 계승' 언급은 반가운 일입니다.

아울러 질문을 남깁니다. 자신은 '교회의 딸'이 아니고 차라리 '세상의 딸'이라는 표현은 전체를 다 읽고 보면 발제자의 논지와 다소 불일치해 보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느껴집니다. 현실 교회가 나의 세상 삶에 대해 지지와 응원을 보내지 못했으며, 동지는 세상에서 만났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교회의 딸이자 세상의 딸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했다면 본인의 전체 논지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로잔 케이프타운 선언을 인용하면서 로잔이 삶과 정체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필요해보였습니다. 끝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여전히 낯선 '하나님의 선교'의 선구적 모델 하나를 발제자의 삶과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잔너머’ 연속 심포지엄

4차/ 로잔운동과 신학의 과제

2023년 12월 26일

주관_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발제문]

로잔의 '총체성'과 '변혁'개념에 대한 사회신학적 평가

총체적 변혁신학으로서 로잔 : 복음과 사회변혁

김동춘 _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우리의 로잔 읽기가 일천한 이유가 있다.

- 로잔대회를 중심으로 통시적 흐름에 주목하면서 로잔대회에서 모아진 선언문을 요약·정리하거나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로잔해석이 되려면 로잔대회 이후 발간된 연구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살펴야 한다.¹⁾
- 또한 로잔운동은 선교학적이고, 선교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활동이므로 동시대의 선교학적 논의를 참고해야 한다. 로잔 내부에 직접 참여하든, 하지 않든, 로잔의 선교적 논의와 관련이 깊은 선교학자와 선교운동가, 그리고 사회활동가들의 글을 살펴보아야 한다.²⁾
- 로잔해석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로잔을 대표하는 신학자 및 선교학자들의 층위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로잔은 누구의 로잔인가? 존 스토틀의 로잔인가? 로널드 사이더의 로잔인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하는 로잔인가? 아니면 진보적인 INFEMITI나 미가네트워드가 말하는 로잔인가? 로잔의 신학자들의 선교관은 공통점도 있지만, 개인적인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 로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로잔신학은 로잔 내부의 급진 제자도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래디컬 복음주의자, 혹은 변혁주의자들이다.³⁾ 이 그룹에서 걸러져 나온 논의

1) Bruce J. Nicholls(ed.), In Word and Deeds: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Eerdmans, 1985; 휘튼협의회(1983)의 자료들로 Vinay Samuel, Chris Sugden(ed.), The Church in Responce to Human Need, 1987. 한역; 비나이 사무엘, 크리스 숙덴 편,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 황을호 역, 생명의말씀사, 1992, Vinay Samuel, Chris Sugden, Mission as Transformation: A Theology of the Whole Gospel, Regnum Books, 1999.

2) 예를 들어, 데이비드 보쉬, 크리스 숙덴, 비나이 사무엘, 앤드류 커크, 피터 와그너, 로널드 사이더, 크리스토퍼 라이트 등을 들 수 있다.

3) 로잔운동에서 급진 복음주의 선교 흐름을 분석한 책으로, 앨 타이즌, 『로잔 이후의 변화』, 이광순, 이용원

가 사회신학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 심화된 로잔해석을 위해서는 로잔의 중심주제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 로잔대회에서 걸러진, 그리고 로잔을 관통하는 대(大)개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총체성이다. 1차 로잔대회부터 3차 케이프타운대회에 이르기까지 로잔의 사회적 신학은 ‘총체적 복음’과 ‘총체적 선교’를 말하고자 했다. 그리고 총체성은 변혁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발전적으로 논의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사회적 로잔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로잔은 보편적 로잔이나 범로잔의 신학이 아닌 <사회적 로잔신학>이다. 로잔이 표방하는 <총체적 선교>와 <변혁으로서 선교>가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과 사회변화, 복음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신학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로잔의 핵심 개념인 총체성과 변혁을 주의 깊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총체성과 변혁으로서 로잔신학

로잔의 선교신학은 좁은 의미의 선교관에서 포괄적 선교관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를 전도로 이해되었던 협의적 선교관은 1차 로잔대회(1974)에서 전도와 사회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선교관을 도출하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의 위임 사항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역사-사회적 차원)을 통합했던 로잔의 선교신학은 급기야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생태적 차원으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⁴⁾

로잔의 주제어는 총체성과 변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로잔의 전체 흐름은 ‘총체성’에서 ‘변혁’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변혁은 총체성과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총체적 선교와 총체적 복음의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이므로, 로잔신학의 핵심 주제는 총체적 복음이요, 총체적 선교라고 할 수 있다. 로잔에서 총체적 복음전도는 “온 세상을 향해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전하는 것”(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으로 요약되기도 했다.

총체성 용어의 변화

로잔에서 사용되어 왔던 wholistic은 케이프타운에서 integral로 바뀐다. 즉 총체적 선교로 표기되었던 wholistic mission이 통합적 선교로 번역된 integral mission로 표기되고 있다.⁵⁾ 그럼 왜 총체적 선교에서 통합적 선교인가? 필자의 추정으로는 로잔의 주된 의제가 복음전도와 사

역, 주안대학원대학교, 2015. Al Tizon, Transformation after Lausanne: Radical Evangelical Mission in Global-Local Perspective, Regnum Books, 2008.

4) 창조세계 돌봄과 복음에 관한 로잔 글로벌 컨설팅(2012).

5) 용어상의 표현에 대해, 백충현, “로잔운동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196집(2022) 봄, 173.

회적 책임이라는 이원화된 두 개념의 총체적 관점이 필요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념의 연결과 일치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wholistic mission과 integral mission은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말, 행동, 존재와 같은 다양한 선교적 측면을 통합하려는 노력의 응답이라고 보여진다.

I. 총체성이라는 개념: 총체성은 무엇인가?

총체성(holism 혹은 wholism)은 그리스어 holos에서 파생된 것으로 아프리카 철학자 잔 스머츠(Jan Smutts)가 1926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다. 총체성은 다른 용어로 '통전성', '통전주의'로 호환되기도 한다. 또는 근래에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지만, 전일성(全一性)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총체적(holistic)이란 부분적(partial)↔전체적(whole), 분열적(schismatic)↔통합적(integral), 양극적(polar)/이원론적(dualistic)↔총체적(holistic)/관계적(relational)이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한다면, 통전주의(wholism)는 일면적,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것이며, 분리된 관점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이며, 관계적으로 사물을 보는 관점을 말한다.

로잔에서 고민했던 총체성은 분명 이분법적 분열을 극복하려고 총체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로잔의 총체성은 존재론적 일치의 총체성이 아니다. 즉 신인의 존재적 합일이나 하늘과 땅의 일치와 같은 우주론적 총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총체성이요, 관계적 총체성이며, 신학적-윤리적 총체성이다. 복음전도와 사회행동(혹은 사회적 책임)에 내포된 총체성이란 개인과 사회의 통전성, 몸과 영혼의 통전성, 신앙과 행함, 수직주의와 수평주의,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세상을 아우르는 총체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총체성은 점차 생태적 총체성까지, 즉 로잔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창조세계의 돌봄까지 포함함으로써 복음의 총체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총체성 개념은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과 같은 로잔의 선교론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총체성 개념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련되어 사용되는데, (a) 존재론의 영역에서는 하늘과 땅(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초월과 내재, 정신과 물질, 성과 속의 관계에서, (b). 심신상관적(psychosomatic)으로는 몸과 영혼의 관계에서, (c). 생태학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d). 여성주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사용되며, (e). 기독교윤리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수직주의와 수평주의, 믿음과 행함, 구원과 윤리의 관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된다.

1. 이원론과 양극화의 화해 개념으로서 총체성

총체성은 일차적으로 이원론의 반대 개념이다. 이원론(dualism)은 이질적인 두 개념을 분리시키고, 대립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사회체제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념적 이원론으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양자의 사회이념은 이념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이념적 이분법과 양극화는 ‘사회적 시장경제’나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이념적 화해를 이끌어 낸다.

마찬가지로 선교관에 있어서 복음전도와 사회정의, 복음화와 인간화는 지난날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관 사이의 치열한 이원화와 양극화를 초래했다. 둘 사이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분열적이고, 대립적인 선교관의 양대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차 로잔대회에서 천명된 총체적 복음(wholistic gospel), 총체적 선교(wholistic mission) 개념의 등장으로 복음전도와 복음전파, 영혼구원과 교회설립에 역점을 두었던 **복음주의 선교관**과 사회정의, 인간화, 역사 안에서 해방을 강조했던 **에큐메니칼 선교관**이 지닌 이분법적 양극화 선교론은 총체적 선교 개념으로 극복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총체성이란 A와 B라는 이분법적 대립과 양극적 개념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화해적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부분적인 것에 대한 전체성과 통합의 개념으로서 총체성

총체성은 일종의 <전체론>이다. 달리 말해 총체성 개념은 <전체론적 관점>이다.⁶⁾ 따라서 부분을 넘어 전체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총체성이다. 또는 일면적인 차원(one dimensional)을 넘어 다면적인 차원(multi dimensional)을 사고하는 것이 총체성이다. 총체성을 개별적인 것의 통합이요, 부분적인 것을 결합하는 <전체성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총체성 개념이다.⁷⁾ 그래서 총체성은 전체성(totality)로 이해된다. 이제 총체성을 전체성으로 이해할 경우, 여기서 말하는 <총체성이란 부분의 합>을 의미한다.

로잔 1차 대회 이후 케이프타운서약에 이르기까지 로잔의 선교관의 전체 흐름은 <총체적 선교>로 요약된다. 그런데 여기서 “총체적”이란 개인적, 사회적, 생태적 차원을 통합하는 포괄적 선교를 의미했다. 이제 로잔이 지향하는 전포괄적 선교는 integral mission이란 용어로 표현되어 진다. 이런 취지에서 1999년 Integral Mission에 뜻을 둔 글로벌 네트워크인 미가 네트워크(Micah Network)가 결성되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3차 로잔대회의 케이프타운 선언문(2010)은 유달리 ‘통합적 선교’(integral mission)를 강조하고 있다.⁸⁾

6) 레오나르도 보프, 『생태신학』, 가톨릭출판사, 1996, 19.

7) 그래서 wholistic mission이나 wholistic gospel은 종종 integral mission이나 whole gospel로 표현되기도 한다.

8) 주목할 것은 케이프타운이 총체적 선교를 wholistic mission보다 integral mission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integral은 ‘통합적인’, ‘전체적인’이란 의미인데, wholistic과 얼마나 질적인 차이를 띠는가는 애매한

“**통합적 선교(integral mission)**는 복음이 개인들과 사회와 창조세계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사회와 창조세계 모두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개인, 사회, 창조세계) 모두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된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 백성의 포괄적 선교**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케이프타운 서약, 7a)(그러므로 케이프타운의 통합적 선교 대상은 개인, 사회, 창조세계이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확증한다.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우리의 교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수적인 표현들이다. …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전체성 가운데** 우리를 변혁시켜야만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여기서 통합적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책임, 이웃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구원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의 통합, 그리고 행함과 믿음의 통합이다).

“**통합적 선교(integral mission)**는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증명**이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나란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통합적 선교** 안에서 우리의 선포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하는 은혜에 대한 증거를 담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적인 중요성**을 갖는다(케이프타운 서약, 10c).

3. 변증법으로서 총체성?: 전체를 통합하지만 다시 구분한다.

그런데 우리가 로잔의 총체성 개념에서 유의할 지점이 있다. 그것은 로잔이 사용하는 ‘총체성’은 한편으로는 나누어진 부분을 통합하고 결합하는 의미로 사용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부분과 개별을 독립적으로 구분하고, 구별하는 역설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이것을 로잔해석자들은 총체적 선교로부터 후퇴 내지 퇴행이라 비판한다. 과연 그런가?). 로잔의 총체성 개념은 개별적인 것을 통합하고 결합하는 전체성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역설적으로 통합하고 결합시킨 것을 다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보존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1차 로잔선언문 5항에서 “우리는 **왕왕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회한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대립시킨 것을 반성하면서도 다음 문장에 가서 모순되게도 “**인간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행**

점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integral mission은 ‘통합선교’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동이 복음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이원화된 것의 통합을 뒤집어 버린다. 여기서 긍정어법은 부정어법으로 회귀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다시 긍정어법으로 마무리한다.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라고 함으로써 앞 문구에서 나눈 두 개념을 다시 병행논리로 결합시켜 두었다. 따라서 로잔의 어법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진행된다.

- (a).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는 반대가 아니다(두 개념은 모순되거나 대립적이지 않다-긍정).
- (b). 인간과의 수평적인 화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해는 아니다.
사회행동이 복음전도는 아니다.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다(두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부정).
- (c).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의 두 의무이다.
(전도와 사회참여는 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포함된다-두 개념의 통합을 통한 긍정).

바로 이러한 로잔의 어법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논리적 지점이다. 로잔의 지향점은 개인적인 차원인가? 따라서 로잔은 궁극적으로 개인적 복음, 개인구원, 인격적 회심을 겨냥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차원인가? 따라서 로잔은 사회적 복음, 사회적 구원, 사회적 회심까지 포괄하는가? 라고 물을 때, 로잔의 입장은 사실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지 모른다. 로잔의 사회신학은 일견 <복음전도와 사회정의>, <개인의 믿음과 사회적 실천>, <인격적 회심과 사회적 변화>, <인간과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표현되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통합하고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있는 듯하지만,¹⁰⁾ 이를 뒤집고 다시 그 양자를 구분하여 두 대립을 유지·보존하는 경향이 있다(특히 **동반자 모델**이 이 범주에 속한다). 다시 말해 로잔의 어법에는 대립하는 두 대상을 정-반-합(these-antithesis-synthesis)으로 발전하여 그것을 종합하는 지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정과 반의 대립을 유지·보존하려는 지양(Aufhebung)의 논리가 역설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잔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원론도 비판하지만, 일원론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원론을 극복하려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일원론으로 회귀하지도 않으려 한다. 다시 말해 로잔은 이원론도 비판하지만, 환원주의도 경계한다. 바로 여기에 로잔의 총체성 개념의 이중성이 담겨 있다. 로잔은 양 날개를 분리시키는 이분법을 넘어서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양 날개를 통합하고 결합하다가도 다시 두 지점을 구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로잔은 개인구원을 비판하면서 구원의 사회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개인구원과 인격적 회심을 놓치지 않는다. 로잔은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끈

9) 이 언급은 선교를 인간화, 역사안에서 해방을 강조함으로써 수평주의와 세속주의적 선교로 기울었다고 평가되는 WCC 방콕대회(1973)를 염두에 둔 진술이기도 하다.

10) 로잔신학에서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로는, Vinay Samuel, Chris Sugde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Bruce J. Nicholls(ed.), In Word and Deeds: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Eerdmans, 1985, 189-214.

덕지게 강조하면서도, 다시 그 둘을 구분한다. 그리하여 두 대상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지 않고 다시 구별하여 각각을 보존시킨다. 그래서 총체적 복음을 추구하는 로널드 사이더는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의 관계를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된다**”(not separate, but distinct)라고 정리한다.¹¹⁾ 총체성의 신학으로서 로잔신학은 교회와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도, ‘교회는 교회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복음은 복음이고 사회는 사회다’라고 말하려고 한다. 로잔의 신학적 문법은 서로 대립되고 이원화된 <전도와 사회행동>, <복음과 사회정의>를 결속하려고도 하지만, 그 둘의 일치나 동일시하는 것은 거부한다. 로잔에서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이 사회행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로잔은 인격적 회심과 사회적 변화를 통합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화가 곧 인격적 회심을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양자 간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결속하려는 로잔의 급진 제자도 그룹이나 변혁주의자들까지도 <복음과 정치>를 말할 때, <정치와 분리된 복음>도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정치에 세례를 주는 복음>에도 비판적 거리두기를 한다.¹²⁾ 이처럼 분리된 양 날개를 통합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각각 구별하여 보존하는 것이 로잔신학이 말하는 총체성 논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관계적 개념으로서 총체성: 총체성은 상관적 개념이다.

총체성 개념에서 중요한 점은 <부분의 합이 총체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총체성이란 <부분의 총합>이 아니다.¹³⁾ 총체성은 부분의 총합 그 이상이다. 다시 말해 총체성이란 $A + B = C$ 가 아니라 A와 B를 상관적(correlative)으로 바라보는 개념이다. **상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양자를 상호적이고, 유기적으로, 관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로잔 논의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정의> 혹은 <복음전도와 사회행동>, <개인구원과 사회구원¹⁴⁾>을 말할 때, 양자의 대립의 극복 개념으로서 총체성이라든가, 또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것의 통합으로서 총체성, 즉 전체성의 개념으로 총체성을 파악했다. 이제 총체성은 두 개의 분리되고 균열된, 그래서 양극화된 것을 상호 관계적으로, 이른바 상관성의 방법론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1) 로널드 사이더,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113-118, 251-274.

12) 이런 점은 로잔신학에서 진보 복음주의 혹은 변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엘 타이즌이 해방신학을 비교적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 발견된다. 엘 타이즌, 『로잔 이후의 변화』, 이광순, 이용원 역, 주안대학원대학교, 2015, 127-147. 이처럼 신앙과 정치적 해방, 복음과 세속적 자유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학적 보수주의에서만이 아니라, 스탠리 하우어워스나 스캇 맥나이트에게서도 발견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의 정치학』, IVP, 2019, 73-82. 스캇 맥나이트, 『하나님나라의 비밀』, 새물결플러스, 2016, 369-447.

13) Leonardo Boff, Unser Haus, die Erde: Den Schrei der Unterdrückten hören, Patmos, 1996, 17.

14) 그러나 로잔문헌에서 ‘개인구원’은 등장하지만, ‘사회구원’(social salvation)이란 명시적인 표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복음주의 전통안에 속해 있는 로잔의 구원은 <개인구원 모델>이지 <사회구원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잔신학에서 구원은 개인적(individual), 인격적(personal) 구원이지만, <사회의 구원>이나, <사회적 구원>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구원의 사회적 차원>은 사용 가능한 표현이다.

(a). 총체성이란 단순히 양적(quantitative), 화학적(chemical) 총합이 아닌 관계성의 개념이다. 총체적 관점은 사물을 바라볼 때, A와 B를 서로 관련지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물을 일방향이 아니라 <~과 무엇을> 관련지어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을 남성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일방향이요, 일면적 관찰이라면, 남성을 여성과 함께, 혹은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연을 인간중심적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관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영혼과 몸의 심신상관 관계에서 영혼을 몸의 차원에서 관계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총체적 관점이다.

(b). 총체성은 상호성(mutuality) 개념이다. 총체적 관점은 상반된 양자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총체성은 단순한 양적인, 화학적 총합이 아니다. 총체적 관계는 이것과 저것을 다 포괄하기만 하거나 통합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양자의 독립성을 보존하면서 사고하는 관점이다.

로잔운동 내내 괴롭혔던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의 핵심은 이 둘의 관계를 ‘상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여기서 상관적이란 ‘상호관계적’이며 ‘상호의존적’이란 의미를 지닌다. 전도와 사회행동은 상관적이다. 전도는 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행동은 전도에 영향을 미친다. 티노우는 <전도와 사회변혁>이란 글에서 “전도와 사회변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전도를 떠난 사회변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사회변혁을 가져 오지 않는 전도는 없다. 사회변혁은 전도의 내용이요, 이로 인한 자연스런 결과이다... 왜냐하면 죽은 전도를 통해서 사회변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¹⁵⁾

5. 인간 상황에 응답하는 상관관계로서 총체성: 로잔의 총체성은 복음과 상황의 가교를 잇는 상황신학이다.

로잔의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총체성 개념은 현대신학의 상관성 개념에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로잔의 신학이 단순히 통합적이고 전체성의 선교론에 머물지 않고 복음의 사회변혁성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로잔 내부에 포진한 변혁주의자 혹은 진보 복음주의자들이 그들의 상황적 자리인 제3세계의 빈곤과 정치-경제적 억압이라는 삶의 자리와 경험을 주목하면서 이를 상황신학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이다¹⁶⁾.

그런 점에서 로잔의 상황신학은 <인간상황에 대한 계시의 응답>이라는 폴 킬리히의 <상관관계의 신학 방법론>과 관련이 있다. 킬리히에 따르면, 인간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독교 진리의 영원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선포할 경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복음전도 일변도

15) 비나이 사무엘, 크리스 숙덴 편,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회』, 황을호 역, 생명의말씀사, 1992, 306.

16) 이런 점은 3세계 선교학자들이었던 R. Padilla, Vinay Samuel, Chris Sugden, Samuel Escobar, Orlando Costas, El Tizon에게서 나타난다.

의 선교에 빠지면서 케리그마적 선교에 치우치게 되므로 영원한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응답하는 신학>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음과 사회적 상황>을 서로 상관적으로 연결될 때, 영원한 복음은 인간의 필요에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이 상관관계의 방법론이다.

이처럼 로잔이 강조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총체적 선교 프레임은 사실은 <복음의 사회적 응답>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총체적 선교는 톨리히의 상관관계의 신학방법론과 연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로잔 1차 대회 이후 휘튼협의회 연구서(1983)인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 The Church in Response to Human Need>는 인간의 필요에 복음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상관관계의 신학을 함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로잔의 사회신학은 한 마디로 말해 <상황신학적 복음화>이거나 <복음주의 상황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 로잔의 ‘복음과 사회변화’에 관한 모델 구성하기

1. 복음전도와 사회변화의 관계설정을 위한 참고모델 _ 이안 바버의 유형론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 모델을 설정하는 이안 바버의 유형론은 스티븐 베반스의 선교신학, 특히 상황화 신학의 모델화 작업에서 언급되고 있다.¹⁷⁾ 이안 바버는 과학과 종교의 유형론을 구상할 때,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의 5가지 유형론을 참고하여 초기에 5가지 유형론으로 정리하였다가 나중에 4가지 유형론으로 정리하였다.¹⁸⁾ 바버의 유형론은 로잔의 복음전도와 사회변화의 관계 모델을 설명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안 바버의 과학과 종교 유형론

- | | |
|-----------------------------------|---------------------------|
| (a). 과학과 대립하는(against) 종교_대립 | ▪갈등모델(conflict model) |
| (b). 과학에 속한(under) 종교_일치 | ▪독립모델(independence model) |
| (c). 과학 위의(above) 종교_종합 | ▪대화모델(dialogue model) |
| (d). 과학과 분리된(separate) 종교_분리 | ▪통합모델(integration model) |
| (e). 과학을 변혁하는(transforming) 종교_변혁 | |

17) 스티븐 베반스, 『상황화 신학』, 최형근 역, 조이선교회출판부, 76-80.

18) 이안 바버,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이철우 역, 김영사, 2002. 윤철호, 김효석 편, 『신학과 과학의 만남』, 백충현, “이안 바버, 매리 미즐리, 존 헤들리 브룩 & 제프리 캔터”, 115.

2.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 모델들

1) 대립모델_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은 대립한다.

대립모델에 의하면, 복음전도와 사회변화는 서로 연결점이 없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터툴리안의 언명처럼 복음과 사회행동은 서로 모순적일뿐이며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이 둘을 뒤섞지 말아야 한다. 대립모델의 관점에 의하면 영원한 필요에 속한 복음은 빵 문제 같은 지상의 현세적인 필요와 아무 상관이 없다. 복음은 영원한 말씀이요, 영적인 실재로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다. 복음, 복음전도, 복음화는 인간의 영원하고 궁극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사회정의, 인간화, 해방의 문제는 인간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속적인 것이다. 따라서 복음전도와 복음화, 그리고 사회정의나 사회변화는 양립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므로 이 둘을 상관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립모델은 이안 바버의 갈등/독립/대화/통합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갈등모델이다.

복음전도와 사회정의를 대립모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다. 피터 와그너에 따르면, 문화명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도명령은 그에 반비례하여 축소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전도명령(대위임령)과 문화명령은 상관적이지 않고, 반비례한다. 따라서 와그너에 있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대립적이다.¹⁹⁾

이러한 관점은 박영덕의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²⁰⁾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케빈 드영과 그렉 길버트 역시 선교와 사회정의를 분리시켜 설명하고 있다.²¹⁾ 이러한 관점은 <구원과 해방>을 결합하는 해방신학이나 <구원과 문화변혁>을 일치시키는 기독교세계관을 죄다 “세속주의 기독교”의 위험한 시도로 맹렬하게 비판하는 스캇 맥나이트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²²⁾ 심지어 스탠리 하우어워스조차 <구원과 정치>, <구원과 해방>, 그리고 기독교신앙을 자유와 같은 세속적 이념과 결합하는 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것들과 분리할 것을 촉구한다.²³⁾

그러나 전도명령과 문화명령을 대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해석이다. 대위임령에는 사회적 책임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전도의 위임령을 주실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책임은 단지 전도명령의 결과로서 부가적으로, 혹은 부차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명령(대위임령) 안에 전도의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²⁴⁾

19) 피터 와그너, 『성서적인 교회성장』, 홍철화 역, 보이스사, 1994, 233. 원서명 C. Peter Wagner, Church Growth and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이 책은 단순히 교회성장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복음과 사회정의를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와그너의 선교관은 교회성장학파의 자리에서 복음전도 우선주의에서 있거나 전도명령과 문화명령을 대립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 박영덕,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 생명의말씀사, 2019.

21) Kevin DeYoung, Greg Gilbert, Wha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Making Sense of Social Justice, Shalom, and Great Commission, Crossway, 2011.

22) 스캇 맥나이트, 『하나님나라의 비밀』, 김광남 역, 새물결플러스, 2016, 402-447.

23)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의 정치학』, IVP,

2) 우선주의 모델: 복음전도는 사회행동에 우선한다.

로잔에서 왜 복음전도 우선주의가 위력을 발휘하는가?

로잔운동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복음전도의 우위성(primacy), 우선성(priority), 긴급성(urgency)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로잔의 선교관의 전체 흐름은 '전도 우선주의'에서 '복음의 중심성'으로 이동했다고 하지만 로잔운동에서 복음전도 우선주의 입장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대의에 속한다.

복음전도 우선주의가 로잔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전도를 통한 개인구령은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신조와 신앙고백과 같은 유산이기 때문이다. 베빙턴의 설명처럼, 복음주의의 특징을 성서주의(biblicism), 회심주의(conversionism), 십자가중심주의(crucicentrism), 행동주의(activism)라는 4가지 요소로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십자가 중심주의), 개인의 내적 회심(회심주의), 전도를 향한 구령의 열정(행동주의)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고백이라면,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로잔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복음전도 우선주의는 교회의 선교적 위임과 선교 사명이라는 근본적인 대전제가 있다. 교회의 복음전파와 복음증거라는 과제는 교회의 본질적 과제에 속한다. 그런데 복음전도에 대한 강한 반감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을 개인전도에 두기 때문이다. 개인전도는 구령운동의 당연성의 시대에는 반감이 없었으나 지금의 기독교 상황에서 전도활동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무차별적으로 외치며, 지하철과 거리에서 노방전도 등의 행위가 공공질서를 해치는 반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로잔신학이 복음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로잔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의 사회변혁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복음이 인간 내면의 질서에서 시작하여 사회의 온전한 변화까지도 근본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속자일 뿐 아니라 주되심으로 인해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아래 왜곡된 구조와 뒤틀려진 질서를 변혁해야 하며, 변혁할 수 있다는 강한 자의식이 있다. 로잔의 복음주의자들은 사회-경제적 악마성과 현실사회의 불의한 구조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인식보다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복음의 능력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로잔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전도 우선주의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어쩌면 로잔운동에서 복음전도 우선주의란 단지 복음을 우선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행동주의적 우선주의라기보다 차라리 '복음' 자체의 우선주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복음주의자들에게 복음의 전파는 사회 참여나 사회변화보다 우선적인 사명임에 틀림없다.

24) 존 스토틀,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교란 무엇인가』, 김명희 역, IVP, 2018, 50. 스토틀는 예수님의 전도명령은 '땅 끝까지 가라'는 지리적 확장의 의미만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핵심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문화명령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데이비드 보쉬, 『세계를 향한 증거』, 전재욱 역, 두란노, 1993, 88-90; 윌드런 스코트,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선규 역, 두란노, 1988, 191-195.

점진적 모델로서 우선주의: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복음주의자들의 믿음 (개인⇒교회⇒사회)

복음전도 우선주의자들은 복음전파와 복음화가 선행하면 사회변화는 필연적으로 뒤따라온다고 확신한다. <개인과 사회> 관계에서 로잔의 사회신학은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보다 우선한다. 복음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로잔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회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된 개인이 변화된 사회를 가져온다.** 개인이 회심할 때, 사회변화가 결과할 것이다. 죄는 사회구조와 체제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사회 속에 내재된 죄의 근원은 인간의 영혼과 인격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복음에 의해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와 사회변화를 가져 올 수 없다고 믿는다.

우선주의 논리는 전도 외에 다른 신앙의 논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차원이 우선 해결될 때, 인간 사이의 수평적 차원이 해결된다. 따라서 수직주의는 수평주의보다 우선한다. 믿음이 먼저 선행될 때, 행함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진적, 순차적 모델로서 우선주의는 선교관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로잔의 복음주의자들은 개인구원과 내적 회심이 이루어지고, 거듭난 그리스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사회안에 많아지면, 악한 사회와 그 사회의 구조악은 결국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① 복음전도 우선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복음전도 우선주의의 함정은 ‘논리적 우선주의’라는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특정한 상황에서 언제나 복음전도 우선주의가 해답이 될 수 없다. 지금처럼 교회혐오 시대에서 복음전도 우선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전철 안에서,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겠는가? 오늘날의 상황에서 복음전도는 차라리 사회정의와 사회적 책임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 거듭난 개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사회 속에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우선주의자들의 확신은 <기능주의 사회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회관은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사회는 개인의 합(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개인이 설사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자본주의 사회질서에서 살아갈 때, 그의 개인적 도덕성만으로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충만한 초인격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이겨 낼 수 없다. 사회체제를 복음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르게 성찰하지 않으면 순수 복음으로 무장된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속한 악한 사회질서와 구조를 능가한 인격과 도덕성을 구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도 우선주의로 교회성장을 이룬 한국교회는 “개인이 변화하면 사회는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는 신화적 믿음과 달리 개인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사회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전도 우선주의라는 결과는 몸집만 거대한 괴물 같은 교회왕국을 생산하였을 뿐,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변화에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하였을 뿐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전도 우선주의자들은 사회변화나 사회적 책임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주의자들은 사회변화의 방법(전략)에 왜곡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주의자들은 교회가 수행할 긴급한 선교적 사명은 사회참여나 사회행동보다 먼저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는 일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회변화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개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다는 점이다.

② 복음전도 우선주의에 서 있는 총체적 선교

1차 로잔대회 선언문은 대표적인 전도 우선주의 입장에 서 있는 총체적 선교관이다.

“우리는 자주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해 온 것에 대하여 참회한다(이원화를 반성하면서). 인간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행동이 복음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지만(일원화 혹은 동일화를 경계하면서),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이다(총체적 선교를 피력한다). 그러나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는 최우선적이다(전도 우선주의로 결론을 짓는다)”.

존 스토틀은 1차 로잔대회를 주도하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여 총체적 선교관을 이끌어 내었고, 그 자신은 ‘동반자 선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해 스토틀은 **복음전도 우선주의에 서있는 총체적 선교론자**로 분류된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의 사명에서 도피하여 치유와 교육, 사회사업과 같은 선행에 몰두하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은 옳은 것이며 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사명, 각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명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사회를 개혁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²⁵⁾

결국 로잔의 사회신학은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주된 의제로 표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과 사회>, <수직주의와 수평주의>, <신학주의와 세속주의>²⁶⁾와의 긴장과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로잔선언은 복음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진일보하면서, 사회적 복음에 열려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개인적 복음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3) 동반자 모델

로잔은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이라는 양자의 긴장 사이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복음전도 우선주의>에 강조점을 두었으나 1차 로잔대회(1974) 이후 뢰튼협의회(1983)에서 <동반자 모델>로 이

25) 존 스토틀, 『존 스토틀의 복음전도』, 김성녀 역, IVP, 2001, 41-42.

26) 신학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해, 레오나르도 보프, 『주의 기도』, 이정희 역, 다산글방, 2000, 12-15.

동했다. 이는 로잔의 선교관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의라는 여진(餘震)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²⁷⁾

동반자 모델은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1차 로잔대회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양자를 긴밀하게 결속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동반자 모델은 하나님사랑과 + 이웃사랑, 복음전도와 사회정의, 개인의 회심과 사회의 변화를 ‘결혼’에 비유하거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분리될 수 없는 두 측면으로 설명하였다.²⁸⁾(바지나 가위에도 비유함).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협의회의 결과물로서 그랜드 래피드즈 보고서(1982)는 로잔언약(1974)에 나타난 이분법적 분리를 극복하려고 상당히 진전된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구속과 창조, 은총과 자연, 하늘과 땅, 칭의와 정의, 신앙과 행위를 불건전한 방법으로 서로 대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들을 구별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서로 관련시키며, 우리에게 각 쌍을 역동적으로 창조적인 긴장 가운데 유지할 것을 가르친다. 일원론처럼, 그것들을 혼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원론에서처럼 그것들을 분리시키는 것도 잘못이다.”²⁹⁾

동반자 모델은 한편으로 분리된 양극을 결합하여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반자 모델은 이원론을 넘어 일원론으로 이동하지 않고, 두 날개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동반자 모델은 일치나 동일시 유형이 아니다. 양자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구별하되, 분리되지 않는 가운데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동반자 모델의 핵심이다. 따라서 복음전도와 사회정의는 분리하지는 않으나 구별한다(not separate, but distinct. 이 공식은 로널드 사이더에게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

총체적 선교를 강조하는 존 스토티는 초기 로잔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는 두 측면의 균형을 동반자 관계로 규정한다. 그의 입장은 정확히 ‘균형잡힌 동반자 모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반자 모델은 이안 바버식으로 분류하면 일종의 <독립모델>에 속한다.

“동반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독립되어 있기도 하다. 각각 홀로 다른 하나와 나란히 독립적으로 서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수단도 아니며 다른 하나의 표현도 아니다. 각각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다. ... 전도와 긍휼사역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한 세트다”³⁰⁾

27) 이러한 관찰에 대해서는 로널드 사이더의 분류를 참고하라. 사이더는 빌리 그래함, 존 스토티를 비롯한 로잔언약의 주류의 관점이 모두 ‘개인주의적 복음주의 모델’(individualistic evangelical model)에 속한다고 분류한다. 로널드 사이더,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44-46.

28) 참고. J. Andrew Kirk, Good news of the kingdom coming: The marriage of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InterVarsity Press, 1983.

29) J. Stott,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An Evangelical Commitment, Exeter, 1983, 20.

그러므로 존 스토틀나 그랜드 래피드즈 보고서가 강조하는 동반자 모델은 전도와 사회행동은 선교적 행위에서 함께 동반되어야 할 사역에 속한다. 그러나 “전도는 전도이고 사회행동은 사회행동이다”. 전도와 사회행동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전도가 사회정의로 환치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사회정의가 전도로 환원되어서도 안 된다. 전도와 사회정의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분되어야 한다. 로잔의 독자들은 로잔의 끝없는 결합과 구분의 이분법적 도식 앞에 때로는 절망과 회의감을 느낄 정도이다.

그랜드 래피드즈 보고서는 이 점에 대해, “그 둘은 가위의 양날 혹은 새의 두 날개 같은 것이다. 이 동반자 관계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분명히 나타난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 그분의 사역에서 케리그마(선포)와 디아코니아(섬김)는 함께 나타났다. … 이는, 그 둘이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전도는 사회적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도 전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각은 다른 하나를 수반한다”

그런 점에서 존 스토틀, 그랜드 래피드즈 보고서, 그리고 로널드 사이더는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의 총체적 선교를 강조하지만, 의외로 독립모델에 가까운 측면이 발견된다. 총체적 선교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로널드 사이더는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의 관계를 누구보다 치밀하게 결속하는 신학적 시도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 역시 동반자 모델의 입장에 서 있다.³¹⁾

그런데 동반자 모델은 그 나름대로 유용한 점이 있다. 동반자 모델은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을 묶어주면서도 양자의 동일시를 경계한다. 왜냐하면 일치모델로 가면 환원주의에 빠지게 된다. “사회정의가 곧 복음전도이다”라고 환원하거나 “전도가 곧 사회정의다”라는 환원주의의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선교학자 스콧 선퀴스트(Scott Sunquist)는 복음전도와 사회정의를 동반자로 보는 것을 이분법의 오류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전도를 말씀과 사역, 또는 복음전도와 정의, 또는 말씀선포와 사회정의라는 이분법으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한 가지 성품 -사랑- 으로부터 시작한다”³²⁾ 그래서 선퀴스트는 복음전도와 사회정의를 동전의 양면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4) 홀러넘침 모델: 로널드 사이더

사이더의 총체적 선교는 동반자 모델과 공유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더 특유의 관점은 ‘홀러넘침 모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복음주의 사회행동주의자 사이더는 로잔신학에서 가장 명료한 총체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평가된다. 로잔신학 전체에서 로널드 사이더는 총체적 복음(wholistic gospel)과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의 완성판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그의 Good News and Good Works는 그 책의 부제처럼, ‘온전한 복음을 위한 신학’(A

30) 존 스토틀, 『선교란 무엇인가?』 IVP.

31) 로널드 사이더,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CLC, 참조, 김동춘, 『전환기의 한국교회』, 대장간, 96-97.

32) 스콧 선퀴스트, 『기독교 선교의 이해』, 이용원 역,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5, 604-605.

Theology for the Whole Gospel)의 교과서라 불릴만하다.³³⁾ 그에 따르면, 죄는 개인적이면서 구조적이다. 회개는 개인적인 죄로부터의 회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인종차별, 불의한 경제구조에의 가담), 즉 사회악로부터 전향을 포함한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이웃과의 화해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둘은 동일시될 수 없다.**

복음화는 구두적 선포와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수의 복음화 사역은 가르침, 전파, 치유를 통한 총체적 사역이었다. 복음은 해방의 복음이요, 회복의 복음, 온전성의 복음이요, 개인적, 사회적, 지구적, 우주적 구원의 복음이다. 사이더는 하나님나라는 죄용서와 칭의, 내면의 성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사회질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나라이고, 구속에 의한 만물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주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구원은 사회적이며(social), 집단적이며(corporate), 공동체적인(communal) 특성을 지닌다.³⁴⁾ 더 나아가 신약의 구원은 신체적 치유로서 구원을 보여주면서 구원이란 영적 치유만이 아닌 파괴된 물리적 육체의 변혁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이더는 재세례파의 한 지류인 그리스도 형제단 출신으로 대안공동체를 통한 **홀리넴침 모델**에 서 있다. 그는 예수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교회는 세상과 전적으로 구별된 대안적, 대조사회적 실재를 세상속에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한다. 사이더에 따르면 교회는 말(word)과 행동(deed)만이 아니라 교회의 구별된 삶을 세상속에 보여주는 “존재”의 방식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행위가 된다고 말한다. 사이더는 독특하면서 구별된 교회의 존재방식을 통해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를 넘어 소박한 삶의 양식(simple lifestyle)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코이노니아를 구현하며, 예수의 산상수훈적 가르침을 본받아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적 제자도를 구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존재 자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구원과 하나님나라의 실재를 세상 속에 홀리넴치게 함으로써 복음의 온전함을 선교적으로 증거하게 된다고 말한다.³⁵⁾

물론 사이더가 ‘교회론적 대안주의’로 분류되는 소박한 홀리넴침 모델에 머물러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이더가 초기에 집중했던 복음주의적 사회행동(evangelical social action)은 점차 시민사회 속에서 공공정책의 접목을 통해 공적 선교론(public missionology)의 방향에서 복음의 사회적 실천을 확장해 나갔다.

5) 통합적 선교 모델: 크리스토퍼 라이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초기 로잔운동의 대표자였던 존 스토틀의 총체적 선교관을 계승하면서도

33) Ronald J. Sider, Good News and Good Works: A Theology for the Whole Gospel, Baker Books, 1993. 한역,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CLC, 2013.

34) Ronald J. Sider, Good News and Good Works, 79, 85. 이에 대해, 김동춘, 『전환기의 한국교회』, 92-95.

35) 로날드 사이더,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322-323. 홀리넴침의 방식의 복음전도는 스탠리 하우어워스에게서도 발견된다. 하우어워스에 의하면, 구원과 정의를 구분되어야 한다. 정의가 구원일 수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므로 세속적 차원의 정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 정의의 실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상속에 홀리넴침으로 가능하다.

그 한계를 발전적으로 확장해 간 로잔신학에서 중요한 신학자로 평가된다.³⁶⁾ 그는 2005~2011년까지 로잔 신학실행분과 의장으로 활동했고, 3차 로잔대회에서 케이프타운 서약 입안자였다. 구약학자로서 라이트는 성경 내러티브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교이자 하나님백성의 선교를 주제로 한 선교적 성서해석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를 제시한다.³⁷⁾

라이트의 총체적 선교의 밑그림은 그의 구약윤리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란 삼각형 구도에 토대를 두고 있다.³⁸⁾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땅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라이트는 사회, 정치적, 역사 패러다임을 넘어 창조세계를 포함한 생태적 선교를 포괄하는 총체적 선교를 구성한다. 그런데 라이트의 선교론은 ‘총체적’(wholistic)이라기보다 ‘통합적’ 선교(integral mission)로 표현된다. 이러한 점은 케이프타운 서약의 입안자인 라이트를 통해 그대로 반영되는데, 이제 로잔의 선교는 통합적 선교라는 뉘앙스로 표현되고 있다.³⁹⁾

라이트의 통합적 선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중심으로 <복음전도>, <정의와 동정심>, <창조세계 돌봄>을 통합하는 통합적 선교를 말한다. 선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케리그마), 동정심과 정의(사회-정치적, 디아코니아적), 창조적 책임(창조세계에 대한 생태적 책임)으로 통합된다. ⁴⁰⁾ 그리하여 라이트에 있어서 선교의 큰 틀은 <교회, 사회, 창조세계 church, society, creation>를 포괄하는 통합적 선교론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⁴¹⁾

① 점진적 선교모델로서 라이트

그런데 라이트의 선교론은 **개인적-사회적-생태적**으로 발전하는 도식이든, **복음전도-사회적 책임-창조세계**라는 도식이든, 개인, 복음전도에서 시작하여 사회와 창조세계로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점진적 선교모델>이기도 하다. 라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실체로서 하나님나라는 저세상에 속한 영화된 사적 차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영적, 개인적 차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그 차원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인간 삶의 모든 차원에 대한 다스림으로 확장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시작하여 땅에서의 임함으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사회, 정치, 삶 전체로 확장된다. 하나님나라는 먼저 영적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사회-정치적 차원으로 확장, 발전된다는 것이다.⁴²⁾ 정리하면 라이트는 성경의 선교적 내러티브에 근거하여

36) 이 점에 대해서, 존 스토틀,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교란 무엇인가>에서 각 챕터에 나타난 스토틀의 선교관에 대해 더 전향되고 확장된 라이트의 설명을 보라.

37)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IVP, 2010.

38) 크리스토퍼 라이트,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김재영 역, IVP, 2015.

39) 그러나 wholistic mission과 integral mission이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뉘앙스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40)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것이 너희 신이다』, 한화룡 역, IVP, 183.

41) Christopher J. H, Wright, “Participatory Mission: the Mission of God’s People revealed in the whole Bible Story”, in: Jason Sexton, Jonathan Leeman, Christopher J. H, Wright, John R. Franke, Peter J. Leithart(ed.), Four Views on the Church’s Mission, Zondervan, 2017, 80-91.

42)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것이 너희 신이다』, 192.

하나님백성의 선교가 사회와 세상의 공적 영역에서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III. 총체성에서 변혁으로: 변혁은 총체성의 연결개념이다.

로잔신학을 관통하는 중심개념이 ‘총체성’이라면, 그와 또 다른 개념은 ‘변혁’이다. 특히 변혁 개념은 83년 휘튼협의회에서 중요하게 부상했다. 여기서 “변혁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transformation)가 발표되었는데, 성명서 제목은 <변혁: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휘튼협의회에서 논의된 자료를 모은 글이 The Church in Response to Human Need(1987)로 출간되었다.⁴³⁾ 그리고 로잔이 지향하는 총체적 선교를 “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 다양한 관련 글을 모아 <변혁으로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다(1999).⁴⁴⁾

그렇다면 로잔이 말하는 <변혁으로서 선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⁴⁵⁾

1) 총체적 선교와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총체적 변혁

휘튼협의회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변혁은 로잔이 합의한 ‘총체적 선교’ 개념의 연장선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변혁으로서 선교’를 소개하는 Mission as Transformation은 먼저 총체적 선교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총체적 선교는 기독교선교의 전체 범주 안에 선포(proclamation), 전도(evangelism), 교회개척(church planting), 그리고 사회적 변혁(social transformation)을 통합하는 선교이다.”⁴⁶⁾ 그리고 크리스 숙덴은 변혁으로서 선교란 “전도와 사회변혁 사이의 통합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⁴⁷⁾ 결국 ‘총체적 선교’와 ‘변혁으로서 선교’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변혁으로서 선교’는 로잔의 핵심 의제였던 총체적 선교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 연속성을 지니면서 발전적이며, 실천적 구체성을 담아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 Vinay Samuel, Chris Sugden(ed.), The Church in Response to Human Need, Eerdmans, 1987. 한역. 비아니 사무엘, 크리스 숙덴(편),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 황을호 역, 생명의말씀사, 1992.

44) Vinay Samuel, Chris Sugden(ed.), Mission as Transformation: A Theology of the Whole Gospel, Regnum Books, 1999. 이 책에는 이전 자료집인 The Church in Response to Human Need(1987)에 실린 여러 편의 글이 중복되어 있다.

45) 이상한 점은 로잔에서 등장하는 변혁 개념을 데이비드 보쉬의 저작의 제목인 “Transforming Mission”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글도 있다. 즉 변혁으로서 선교를 보쉬가 시도한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인 ‘변화하는 선교’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앨 타이즌, 『로잔 이후의 변화』, 40-41.

46) Vinay Samuel, Chris Sugden(ed.), Mission as Transformation: A Theology of the Whole Gospel, Regnum, 1999, 뒷표지.

47) Chris Sugden, Gospel, Culture, and Transformation, Oxford: Regnum, 2000, 23.

2) 개발(development)에서 변혁(transformation)으로 이동하는 상황적 개념으로서 변혁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했던 로잔에서 언제부터 변혁의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개발(development)에 대한 회의적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세계의 개발원조가 저개발국가의 종속의 심화를 가중시킨다는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해방신학이 이를 비판하면서, <개발에서 해방>을 말할 때, 로잔의 휘튼협의회 역시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회”라는 협의회에서 <개발이 아닌 변혁>을 말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휘튼의 변혁은 해방신학의 사회변혁론이 표방한 해방론에 대한 복음주의적 응답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적합한 선교라고 할 수 있다.⁴⁸⁾ 로잔선언 이후 휘튼협의회는 총체적 선교라는 포괄적 개념에 만족하지 않고, 로잔이 추구한 복음에 근거한 사회변화를 변혁이라는 틀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로잔 내부의 진보 복음주의자 혹은 변혁주의자들은 복음화가 해방없이 불가능하며, 수평적 화해없이 수직적 화해가 없다는 사회변혁적 차원의 선교를 강조했다. 다수의 급진복음주의자들은 이런 차원에서 총체적 선교를 변혁으로서 선교로 진척되어야 할 필요를 공감했다.⁴⁹⁾

3) 총체적 변혁으로서 변혁: 성경적, 신학적, 사회적 변혁

로잔이 말하는 변혁은 <총체적 변혁>이라는 성격을 띤다. 로잔의 변혁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변혁만이 아니라 복음적 변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로잔의 변혁은 일차적으로 성경적, 신학적 개념이다. 변혁에 대한 휘튼선언서는 변혁을 곧장 사회과학적 변혁이나 사회변혁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적이고 신학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에서 복음적 변혁의 뉘앙스가 풍겨난다. 그럼에도 사회-문화적 변혁의 측면이 아예 간과되는 것은 아니다.

로잔의 변혁은 이중적 뉘앙스를 풍긴다. 한편으로 이 변혁은 로잔의 총체적 복음과 총체적 선교의 연장선에서 설명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해방신학처럼 사회 변혁적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변혁이란 반드시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문화적 변혁과 관련 지으려 한다. 결론적으로 로잔의 변혁은 복음에 기초한 사회적 변화를 선교적이고, 실천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로잔이 말하는 변혁은 복음적 변혁에서 출발하여,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개념이다.

4) 로잔의 변혁주의자들은 ‘개발에서 변혁으로’ 밀고 나갔지만 그 변혁을 “해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잔은 복음주의적 변혁과 해방신학적 해방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또한 구별하고자 한다. 급진 복음주의자 혹은 변혁주의자인 앨 타이즌은 해방신학을 긍정적으로 동조하는 로잔 내 진보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해방신학의 맑스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관점을 간과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⁵⁰⁾

48) 앨 타이즌, 『로잔 이후의 변화』, 43-45.

49) 변혁으로서 선교에 공감하는 급진복음주의자들 혹은 변혁주의자들은 Vinay Samuel, Chris Sugden, Rene Padilla, Samuel Escobar, Ronald Sider, Orlando Costas, Tom Sine 등을 들 수 있다.

50) 앨 타이즌, 『로잔 이후의 변화』, 127-138,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 131-138.

IV. 로잔의 총체적 선교와 총체적 복음에 대한 사회신학적 평가

1. 로잔의 개인주의적 복음전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로잔의 <개인주의적 복음전도>의 강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개인적 복음이요, 사적 복음의 한계인가? 우리는 로잔 내부의 진보 복음주의자들 혹은 변혁주의자들조차도 사회복음과 복음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복음주의에 갇힌 로잔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면 복음화 대신 인간화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보다 ‘역사안에서의 해방’만을 외칠 때, 이는 필연코 “복음 없는 사회정의”가 되거나 “복음 없는 휴머니즘”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로잔의 우려가 아닐까? 우리는 로잔의 실행자들이 “사회행동주의로서 복음 운동”으로 전락될 로잔의 염려에 대해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로잔운동이 줄곧 개인을 향한 복음전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판넨베르크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판넨베르크는 독일 국가교회라는 신학적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역사로서 계시>를 주창하여 계시를 보편역사의 지평으로 확장한 바 있으며,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공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사 신학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넨베르크는 자신의 교회론에서 **신앙의 개인적 성격**을 유난히 강조한다.⁵¹⁾ 바로 이런 점은 로잔의 <개인주의적 복음화 모델>이 ‘신앙의 사사화’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개인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종교없는 사회’와 가나안 성도(churchless christians)로 표현되는 탈교회 상황에서 변혁주의자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

2. 총체적 선교, 총체적 복음의 한계와 비판 _ 사회신학적 관점

1) 로잔신학은 애초부터 <사회의 신학>이나 <사회를 위한 신학>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또한 로잔의 주된 관심은 처음부터 <복음과 사회변혁>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문제였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한다. 로잔은 <복음의 사회적 차원>이나 <복음의 정치적 의미>를 질문하면서 복음 자체의 ‘사회’변혁적 성격이나 복음의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논하기보다⁵²⁾ <복음전도와 사회변화>나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이었다. 따라서 로잔의 의제는 복음주의 교회의 선교적 과제인 <복음의 전파> 문제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어떻게

51)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III』, 신준호 역, 새물결플러스, 171-172. “교회의 선교 메시지와 예배의 선포도 우선적으로 **개인들을 향하며, 개인의 구원을** 목표로 삼는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해 **각 개인에게** 주어지며 복음과 성례전을 통해 중재된다.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체들이 세대의 고리로 연결되는 출생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상 믿음과 세례를 통해 거듭난 개인들의 공동체다**”(굵은 글씨는 필자의 표기임). 판넨베르크는 교회론에서 그리스도인 개인의 믿음과 교회의 신앙고백 사이의 관계를 면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202, 209-222.

52) 물론 로잔은 총체적 복음의 틀 안에서 복음의 사회변혁적 차원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영적, 개인적, 문화적 변혁적 차원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니었다.

균형 있게 설명하면서 양자를 결합하여 통전적인 선교방향을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한 ‘복음화 운동’이요, ‘복음적 선교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신학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로잔운동은 월터 라우선부쉬의 ‘사회복음의 신학’처럼, <사회적 복음 social gospel>을 말하지 않았고, 헤르만 쿠퍼와 레온하르트 라가츠의 종교사회주의처럼 자본주의가 지닌 악한 사회구조를 비판하면서 ‘종교적’인 사회주의(religious socialism), 즉 기독교적 원리에 근거한 사회주의 이상을 구현할 사회신학적 비전을 내비친 적이 없었다(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로잔에 영향을 입은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그룹은 로잔신학을 복음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학으로 접목하여 복음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근거로 삼았다).

2) 로잔의 총체적 선교나 총체적 복음은 자칫 **개념의 병렬 작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 총체적 선교란, 아주 간단하게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실천>을 나란히 걸쳐 놓는 ‘병합논리’에 그칠 우려가 많다. 그래서 총체적이란 자칫 개념의 조합 놀이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총체적 선교는 구체적인 투신과 실천을 실행하지 않은 채 교회의 목회 방향과 목표에 몇 몇 항목을 기계적으로 열거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가처치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총체적 선교를 목회사역의 목표로 열거해 놓는다면, 그것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총체적 선교가 빈곤, 인권차별, 구조악, 불평등과 같은 인간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분명한 상황신학적이지 않는 총체적 선교는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인 선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총체적 선교, 총체적 복음의 협소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총체적 복음을 <전도+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기보다 복음 자체가 이미 개인적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 <사회적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 복음의 내용 자체에 정의, 평화, 치유, 변영과 복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데이비드 보쉬는 일찍이 1차 로잔선언문에 표명된 이분법 논리를 이렇게 비판한 바 있다: “전도가 사회적 책임보다 우선적이라면 한 요소는 교회의 선교사명에서 우선적이고, 다른 요소는 이차적인 사항이 되며, 그렇게 되면 하나는 본질적인 요소지만, 다른 하나는 선택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또한 사회행동이 복음전도가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사회행동을 통한 사회적 소외의 극복이 복음의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아닌가? 또한 정치적 해방이 전도가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 측면이 아닌가? 그러므로 복음과 사회정의를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복음 자체가 정의를 내포한 것으로 말해야 하지 않는가?”.

복음을 사회 정의와 연결하여 설명하듯,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인 칭의를 정의와 연결한다면, 기독교의 구원교리의 중심 개념인 칭의를 사회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결부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칭의와 정의>는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칭의의 내용과 칭의 자체에 이미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⁵³⁾

2) 구원론의 속죄모델의 협소함을 넘어서야 한다.

로잔의 사회책임의 신학이 사회신학적으로 진일보하려면, 무엇보다 복음주의 구원관의 강조점이었던 죄 사함, 중생, 하나님의 자녀 됨, 칭의에 대한 개인구원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또한 대리형벌론적 속죄론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설사 대리형벌론적 속죄론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희생양 속죄론과 연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개인적 죄 사함이라는 개인구원이 차원이 아니라 이 세계의 희생자를 위한 죽음과 연결되어야 한다.

3) 역사구원 모델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역사상 기독교 구원이해는 <개인구원>, <교회구원>, <역사구원>, <실물구원>이라는 구원모델로 적용되어 왔다. 여전히 작동되는 주된 구원관은 영혼구원, 영생 얻는 구원으로 이해된 개인구원이다. 개인구원이라는 틀은 교회구원모델, 즉 교회가 구원의 중재자요, 은총의 담지자로서 구원기관이라는 생각, 그리고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회중심적 구원관을 넘어서 역사의 지평에서 구원을 사고하는 역사구원모델로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출애굽으로서 구원>이나 도시의 구원을 사고하지 않으면 사회구원으로 확장해 나갈 수 없다. 또한 구원론은 현실의 악의 문제와 씨름하는 신정론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톰 라이트는 구원을 저 피안으로의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는 영혼구원이나 개인구원이 아니라 이 세계의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승리라고 말한다.⁵⁴⁾

4) 창조신학적 구원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구원관의 확장은 선교관의 지평을 넓어지도록 이끌어 준다. 따라서 <구속사와 세속사>, <창조와 구원>의 일치를 통해 선교관의 지평을 진일보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원이해는 종말론적 구원을 이 땅에서의 새 창조이며, 문화변혁으로서 구원을 강조하는 리처드 미들튼의 구원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⁵⁵⁾ 하나님나라가 역사 속에서, 무엇보다 지상의 현실에서 실현됨을 강조하는 역사의 지평 안에서 구원, 창조신학적 구원관은 로잔의 개인주의적 복음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전거가 된다. 미들튼과 유사하게 톰 라이트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천국의 예루살렘은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천국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나 이 땅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적 통치로 인해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의 현실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⁵⁶⁾ 이처럼 구속을 창조세계의 총체적인 변혁으로 이해하는 구원관은 로잔의 한계를 극복

53) 김동춘 편, 『칭의와 정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학술총서 vol.1, 새물결플러스, 2017, 444-450.

54) “창조, 악, 그리고 구속의 계획,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저자들, 특히 바울과 계시록의 저자가 표현하고자 애쓴 주제들이다” N.T.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167.

55) 리처드 미들튼, 『새하늘과 새땅』, 새물결플러스, 2015;

하는 사회신학의 지평을 제공해 줄 것이다.

5) 총체적 선교,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복음화를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관으로 진척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르멘신학선언서는 개인을 향한 칭의와 성화를 ‘정치적 성화’의 차원으로 확장. 해석하고 있다.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 전통의 신칼빈주의 유산인 기독교세계관처럼, 개인구원으로 넘어 문화의 구속, 일의 구속, 정치와 경제의 구속의 차원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6) **실물구원 모델을 통해 총체적 구원과 총체적 선교의 가능성을 열어 가야 한다.**

구원은 복지와 웰빙, 건강, 풍요로움을 내포하고 있다.⁵⁷⁾ 그런데 이러한 실물적 구원은 영적 구원, 육체적 구원, 물질의 번영을 말하는 오순절신학에서 강조되고 있다.⁵⁸⁾ 로잔네 오순절 그룹은 총체적 선교를 **복음전도, 사회행동, 이적**을 강조한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순절의 구원신학이 물질 구원이요, 육체구원이라는 점에서는 총체적 구원론의 측면을 함축하고 있지만, 그러한 구원관은 오히려 세속주의적 변영신학으로 흐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는 점이다.

4. 로잔신학의 사회신학적 가능성: 해방신학과 비교

1) 로잔의 총체적 선교와 총체적 복음은 인간 내면의 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사회-정치적 차원을 결합하려는 신학적 노력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신앙적인 차원과 실천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교회의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장점이 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해방신학은 가난이 초래한 인간 상황의 비참을 구조적 죄(structural sin)에서 찾으려는 강점이 있는 반면, 카이퍼적 신칼빈주의는 가난이라는 구조악의 근본 원인을 죄로 인한 우상숭배요, 종교적 동인에서 찾으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⁹⁾ 이것은 복음의 총체성을 신학적 차원과 인간학적-사회적 상황 모두에서 찾으려는 로잔신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해방신학은 흔히 구속사와 세속사, 창조와 구원의 일치를 주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방신학은 <하나님나라와 현세적 사회의 진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역사 안에서 해방>의 관계를 설명할 때, 로잔신학 만큼이나 그 둘의 관계를 연결하면서도 예리하게 구별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6) N.T.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176-178. 이와 비슷한 입장이 미들튼에게서도 발견된다. 마이클 위트머 편, 『천국에 대한 네 가지 견해』, IVP, 2023, 101-148.

57) 김동춘, “기독교의 구원과 복지”, 백석저널 6(2004), 131-151.

58) Miroslav Volf, “Materiality of Salvation: An Investigation in the Soteriology of Liberation and Pentecostal Theologies”,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26, no.3(summer 1989), 447-467.

59)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IVP, 2007, 제3장 “리마인가, 암스테르담인가: 해방인가 개헌인가”.

구티에레즈는 “정의의 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하나님나라의 건설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방활동에 참여하는 일 그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구원사업이다”라고 말한다.⁶⁰⁾ **하나님나라의 성장과 현세적 진보**는 사실상 둘 다 인간과 인간의 친교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관계에 있다. 그래서 구티에레즈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장과정은 역사적으로 인간해방 ‘한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티에레즈는 다음과 같이 양자를 구별한다.

“양자는 동일한 실재는 아니다. 그러나 해방을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들이 없다면, 그리스도 왕국의 성장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왕국이 도래하지 않는 한 해방운동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하지는 못한다. **그 왕국은 무엇보다도 선물이다.**”

“역사적, 정치적 사건이 곧 그리스도 왕국의 성장이며, 구원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 그 ‘자체’는 아니며 구원의 ‘전부’도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왕국의 역사적 실현이다.”⁶¹⁾

해방신학자들은 <해방으로서 구원>을 말한다고 단언하지만, 레오나르도 보프는 **구원과 해방**을 단순하게 일치시키지 않는다. 역사상의 해방이 ‘죄로부터의 해방’ 그 자체는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차원의 죄로부터의 ‘총체적 해방’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불의로부터의 해방 역시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부분적 해방’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상의 해방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 불의로부터 해방이 일어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적 차원이 현실화된다. 결론적으로 **해방이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은 해방을 포함한다**는 것이 구원과 해방의 관계 진술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역사 안에서의 해방 Salvation in Jesus Christ and Liberation in History>사이를 결합하면서 구별하는 그들의 논리는 로잔이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을 결합시키면서 구별하는 지점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3) 올란도 코스타스는 남미 진보적 복음주의 선교학자로 일찍이 통합적 선교론을 제시하였다.⁶²⁾ 그는 그의 유작 “Liberating New: A theology of Contextual Evangelization”에서 예수 복음화 사역의 사회적 자리를 주변부로서 갈리리를 말한다. 이는 거의 민중신학적 접근에 가깝다.⁶³⁾

4) 존 스토틀가 해방, 치유를 구원과 동일시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구원을 그리스도에 대한 인

60)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해방신학』, 성명 역, 분도, 1977, 100.

61)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해방신학』, 229.

62) Orlando E. Costas, The Integrity of Mission: The Inner Life and Outreach of the Church, Harper Collins, 1979; 한역, 오르란도 E. 코스타스, 『통합적 선교신학』, 진희근 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2.

63) Orlando E. Costas, Liberating New: A Theology of Contextual Evangelization, Eerdmans, 1989, 49-70.

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인격적 차원이라고 말할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복음주의 전통의 개인주의적 구원관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모델>로 규정하는 부분이다. 그는 “출애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모델(redemption model)이며 기념되는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속박에서 총체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사건”으로 규정한다.⁶⁴⁾ 라이트가 볼 때, 출애굽의 구원은 a). 정치적(political) 차원의 구원, b). 경제적(economic) 차원의 구원, c). 사회적(social) 차원의 구원, d). 영적(spiritual) 차원의 구원을 포괄하는 총체적 구원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것이다.⁶⁵⁾ 이 해석은 지난날 출애굽을 둘러싼 보수 복음주의와 진보 에큐메니칼 및 해방신학 사이의 해석학적 대결을 극복하는 진일보한 관점이다.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을 가리키는 영적인 구속을 말하는 것이라 하여 예표론적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출애굽의 목표는 정치-경제적 해방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출애굽의 목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종교적 동기였지 노동 착취에 억눌린 노예들이 벌인 정치적 해방이 아니었다고 하는 입장이었으나 라이트는 이에 대해 영적인 구속과 함께 정치,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구속을 제시한 것이다.

64) A. Scott Moreau(ed.), 『선교학 사전』, CLC, 2014, 130.

65)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롱 역, IVP, 335-362.

[발제문]

세계화의 종교적 표현으로서 오순절운동 : 현상, 동력, 그리고 과제

배덕만 _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I. 서론

세계화, 신자유주의, IMF, 한미 FTA, 구조조정, 비정규직 등은 이미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경제 용어들이다. 동시에, 한류, BTS, NETFLIX, YouTube, 인터넷도 동일하게 일상화된 세계화의 표현이자 도구다. 즉, 경제적으로 한국사회는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으며, 문화적으로 세계화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종교, 특히 기독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 글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려는 소박한 시도다. 즉,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 및 대응과정에서 한국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변모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화 시대에 가장 주목 받은 오순절운동을 중심으로, 세계화와 종교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오순절운동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신앙운동이자 세계화의 대표적인 종교 브랜드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신교회 중 하나다. 따라서 본 글의 적절한 소재임에 틀림없다.

먼저, 이 글은 세계화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세계화와 종교의 상관관계를 대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세계화와 세계오순절운동 및 한국오순절운동 간의 역동적 관계를 차례로 다룰 것이다. 이때, 오순절운동이 세계화와 형성한 관계의 현재 모습과 이것을 가능하게 한 주된 동력에 주목할 것이다. 끝으로, 이런 검토를 통해 발생한 문제와 제기된 제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로써, 세계화와 오순절운동이 맺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길 기대한다.

II. 본론

1. 세계화

1) 개념

인류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했지만, 전쟁, 상업, 선교, 이민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 접촉교류했다. BC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을 통한 헬레니즘의 확산, 7세기 이슬람의 팽창과 11세기 십자군전쟁, 13세기 몽골제국의 출현은 전쟁을 통해 세계가 긴밀하게 접촉하며 영향을 주고 받은 대표적 예들이다. BC 1세기 이후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 중앙아시아, 중국이 상업적으로 연결되었으며,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 개척자, 상인, 선교사 등을 통해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가 연결되었다. 이후,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럽인들이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런 교류와 접촉은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속도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만약 세계화를 “수많은 국가와 그 시민들이 자본, 상품, 문화적 품목 및 인간존재가 국경을 넘어 점점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 세계적 통합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¹⁾ 인류의 역사는 곧 세계화의 역사이며, 현재는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가 가장 빠르고 다방면으로 전개되는 시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화(globalization)는 “구체적으로 말해 무역과 자본거래, 그리고 이민의 자유화를 통해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통합되는 현상”이며, “이것은 교통통신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와 정책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 이런 이해를 토대로, 현재 널리 통용되는 세계화의 의미를 신학자 장윤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는 1970년대 초, 국경을 넘어선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제약하고 있던 브레튼 우즈 전후 경제체제가 붕괴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현 단계 세계화의 가장 순수한 표현은 금융자본의 세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금융자본은 과거 오랫동안 국내 시장에 묶여 있던 족쇄에서 해방되어 주식 및 채권 시장, 투자 및 상업은행, 헤지펀드 및 사적 자본회사들과 같은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온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세계화’란 이와 같은 사적으로 통제되는 금융자본이 빠른 속도로,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종종 엄청난 양으로 국경의 장벽을 맘대로 넘나들면서 기존의 민족국가 단위의 경제 질서를 해체하는 현상을 가르킨다.³⁾

1) M. Warburg, “Bahi and Globalization,” Social Compass 46(1), 48. 김성건, 『글로벌사회와 종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6에서 재인용.

2) 세계화에 대한 이런 이해는 인도출신 경제학자이며 세계화 지지자인 자그디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의 것이다. 송충기 외,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 (서울: 아카넷, 200), 550. 바그와티의 주장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널리 공유되고 있다.

3) 장윤재, “모든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 『대학과 선교』 제14권

이런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화의 이중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세상의 시공간이 압축되고, 자본, 문화, 인구가 활발하게 이동교류하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을 넓은 의미의 세계화로, 그리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신자우주의 체제의 전세계적 확산을 좁은 의미의 세계화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겠다.

2) 특징

먼저, 신자우주의 체제 하에서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 국가기업개인 간의 상관성(interconnectedness)이 극대화되었다. 이런 상관성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무한 경쟁을 촉발했다. 영토와 규제마저 해체된 상태에서 시장은 거대해졌고, 생존과 욕망의 충족을 위한 '만인대 만인의 투쟁'은 극에 달했다.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노출되거나 접촉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공통된 이익과 목적을 위해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경쟁자들 간의 선행조건이 다르기에, 이 경쟁은 본래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 결과, 이 생존경쟁은 흔히 예상대로 종결되고, 승자독식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의 순환고리가 강화된다. "우리 모두는 세계화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부자들이 항상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둘째, 세계화에는 역설적 요소(paradoxical elements)가 공존한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가 지구촌이란 단일 장소로 변모하면서 '문화적 동질화' 현상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각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확보하려는 '문화적 이질화' 현상도 출현하기 때문이다.⁵⁾ IMF시대 이후 한국에서 세계화가 시대적 에토스가 되던 시절에 '신토불이' 운동이 함께 유행했던 것이 단적인 예일 것이다.

셋째, 세계화에는 "역식민화"(reverse colonization) 현상도 존재한다. 당연히, 신자우주의 체제에서 서방 선진국들의 영향력이 가난한 비서방국가들을 압도한다. 그럼에도, 비록 동일한 강도와 비율은 아니지만, 세계화가 점점 더 탈중심화(de-centered)되면서 비서방국가들의 영향력도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⁶⁾ 북미에서 멕시코 음식이 유행하고, BTS를 필두로 한 한류의 인기가 서방국가들로 확산되는 것을 통해, 이런 "역식민화"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세계화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가속화한다. 신자우주의 체제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은 '이윤'이다. 자본은 더 많은 이윤 획득을 위해 유리한 시장을 찾아 끊임없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런 욕망 앞에서 지역, 국가, 민족, 인종의 경계는 쉽게 허물어진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도 없다. GM이 디트로이트 대신 한국에 생산공장을 확보하고, 필리핀 여성들이 홍콩에서 가정부로 취직하며, 중동의 억만장자가 영국의 축구구단을 인수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

(2008), 162.

4) Lap-yan Kung, "Globalization, Ecumenism and Pentecostalism: A Search for Human Solidarity in Hong Kong,"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6/1 (2003), 105.

5) 김성건, 『글로벌사회와 종교』, 19.

6) Lap-yan Kung, "Globalization, Ecumenism and Pentecostalism: A Search for Human Solidarity in Hong Kong," 100.

당할 것이다. 그 결과, 민족주의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3) 비판적 성찰

먼저, 신자유주의 체제로 세계경제를 재편하려는 이들은 세계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빈곤이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전근대적·비합리적·비효율적 경제구조 안에서 낙후되었던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합리적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근대적 경제구조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시장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원개발과 기술발전, 제품의 품질 향상 등의 긍정적 결과를 낳고, 이것은 국가전체의 경제성장과 국민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의 빈곤, 건강 문제 등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와 경제적 자유의 향상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존 노버그(John Noberg)의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⁷⁾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화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퍼붓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가진 자’들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결코 공정한 체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만 극심해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3세계 국가들은 지구시장화라는 무한의 경쟁 속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출발선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⁸⁾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은 상위 최고소득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다. 자본을 가진 자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를 늘리겠다는 의도이지만, 그들 외 99%, 정확히 말하면 하위 90%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온다.”⁹⁾ “세계화가 옛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도래한 탈냉전의 세계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중심축의 자본주의 경제가 그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창한 새로운 패권적 체제일 뿐이다.”¹⁰⁾

한편, 생태학자들은 세계화가 초래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에 주목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화하면서 무한경쟁시대를 열었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은 협소한 국내시장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자신들의 상품을 수출하고 매장을 확대했다. 결국,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무한한 탐욕이 막대한 자원의 소비와 환경 파괴를 낳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중 하나인 맥도널드의 햄버거에 들어갈 소고기 공급을 위해, 아마존의 밀림이 거대한 목장으로 바뀌고, 탄소배출량의 급증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결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대중적 상식에 속한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그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데

7) 신경규,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선교: AGAPE 문서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제45집 (2017), 138.

8) 김대용, “세계화 시대 속의 소통과 해방: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27(1) (2013), 14.

9) 신경규,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선교: AGAPE 문서를 중심으로,” 150.

10) 김성건, 『글로벌 사회와 종교』, 18.

필요한 귀중한 자원을 급속히 탕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의 세계화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부추겼고, 거기에는 당연히 막대한 자원의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1950년에 3.8조 달러에 달했던 세계경제의 총 생산량은 현재 그의 약 5배인 19.8조 달러에 육박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은 지구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과연 그럴 권리가 있을까?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자원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독식할 권리가 있는가 말이다.¹¹⁾

끝으로, 현재 세계화 담론이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다. 그는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는 것은 경제적 세계화 현상만 주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판단오류라고 지적한다. 세계화는 경제적 현상일뿐 아니라, 정치적·기술적·문화적 현상이므로, 세계화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이렇게 확장할 때, 세계화 현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¹²⁾ 이것은 세계화를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는 현재의 세계화 담론을 확장시킨다는 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세계화 현상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에, 세계화의 영역과 범주를 확대할지라도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인 ‘불평등’의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세계화와 개신교

먼저,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 종교가 되었다. 지난 2천 년의 교회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서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확장된 ‘선교의 역사’였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행1:8)는 대사명에 헌신한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지역종교에서 전 세계인들의 종교로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세계의 모든 대륙과 국가에 전파되어 대사명이 거의 실현된 듯한 현재의 상황은 20세기 중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다. 통신기술과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교회들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의 결과로, 가톨릭이 지배적인 라틴아메리카, 이슬람이 압도적인 터키와 중동,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 중국, 중앙아시아 같은 공산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의 소수민족과 한국까지 세계기독교권 내에 빠르게 포함되었다. 분명히, 20세기는 ‘기독교의 세계화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¹³⁾

둘째, 세계화와 종교의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영수의 지적처럼, “미국

11) 장윤재, “모든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175.

12) 앤서니 기든스, 『질주하는 세계』, 박찬욱 옮김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제1장 참조.

13) 20세기에 전개된 선교활동과 개신교의 확장에 대해선, 배덕만,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 (서울: 흥성사, 2020), 19-24를 참조하십시오.

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거래를 중심으로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해왔기 때문이다.¹⁴⁾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에는 종교도 포함된다. 1945년 이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국 선교사들, 선교단체들,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했다. 또한 그런 영향 하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 출신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우 자연스럽게 미국 교회의 자본, 언어, 신학, 음악, 인맥 등이 선교지역으로 이전되었다. 특히, 빌리 그레이엄, 오랄 로버츠, 팻 로버트슨 같은 이들의 영향으로, 복음주의, 오순절운동, 은사주의, 변영신학, 교회성장학, CCM 등의 미국형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셋째, 기독교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했다. 물론, 필립 젠킨스의 지적처럼, “서구기독교’라는 개념 전체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왔던 진정한 양식을 왜곡하는 것이다.”¹⁵⁾ 그럼에도, 1900년에 세계기독교 인구의 약 70%가 유럽인이었으나, 2000년에는 29%로 급감했다. 2025년에는 2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적도 이남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태평양군도, 그리고 일부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 비율이 전체 기독교 인구의 7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¹⁶⁾

넷째, 기독교 선교가 세계화가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할 뿐 아니라, 세계화의 현상 자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즉, 기독교의 다양한 선교활동은 경제, 정치, 과학기술 영역에서 진행된 세계화의 제도와 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제도와 장치를 활용하여 기독교 선교활동이 매우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세계화의 장치와 도구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세계를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는 ‘우리 삶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이 가시화’되는 현상을 촉발하는 강력한 종교적 도구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동, 선교 보고서를 인터넷으로 보내는 행위, 선교비를 한국의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현지 은행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 기독교 복음의 가치를 소개하는 선교 활동 등이 모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세계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¹⁷⁾

다섯째, 다수의 학자들은 세계화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 즉 불공정한 경제체제와 경제적 양극화

14) 배영수 “오늘날의 세계화,”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 송충기 외 (서울: 아카넷, 2009), 551.

15) 필립 젠킨스, 『신의 미래』, 김신권·최요한 옮김 (서울: 도마의 길, 2009), 50.

16) 김상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학과 선교』 제13권 (2007), 41. 한편, 단지 인구의 이동을 중심축의 이동으로 당연시하거나, 지나치게 통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세계기독교론에서 오래 등장하곤 하는 기독교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강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세계기독교 연구가 기독교 인구 동향에 지나치게 매혹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물을 수 있다. 오늘날 남반구 기독교인의 수효가 북반구기독교인보다 많아졌다고 해서, 기독교의 중심축이 움직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방연상·이만형, “세계기독교: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선교신학』 제41집 (2016), 202.

17) 김상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 42.

현상에 대한 예언자적 성찰과 실천을 촉구한다. 예를 들어, 홍콩의 쿵(Kung)은 세계화가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무관심의 정신’을 촉진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는 ‘연대의 정신’을 강화할 대안으로 기독교 에큐메니즘을 제시하면서, “교회가 인간적 연대를 실현하는 도구”로 세계화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¹⁸⁾ 장윤재는 세계화가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부정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세계화 시대에 해방신학의 유산은 더욱 소중한 ‘살아 있는’ 유산이다.”고 주장한다.¹⁹⁾ 박승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사실상 기득권자들을 위한 원리이며…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제도”라고 규정하면서, “기독교신학은 신자유주의의 바로 이러한 면에 대한 통찰력을 기여야 한다”고 제안한다.²⁰⁾

여섯째, 세계화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기독교는 단연 오순절-은사주의운동이다. 물론, 오순절운동의 기원(때와 장소)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것이 20세기의 현상이며 배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선교통계학자 데이비드 바렛과 토드 존슨에 따르면, “1970년 오순절 신자들은 6,700만 명이었으나 2010년 6억 1,40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²¹⁾ 이런 오순절운동의 폭발적 부흥이 소위 “남반구기독교”의 출현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젠킨스는 남반구 기독교는 대체로 “초자연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 대개 기독교의 급진적인 정치 활동보다 개인의 구원에 더 관심”이 많으며, “성서적 권위 위에서 깊은 개인적 신앙과 공동체적 정통주의, 신비주의와 청교도주의를 선포”한다고 그 특징들을 요약한다.²²⁾ 그러면서 이 시대에 가장 성공한 기독교 운동으로 오순절 운동을 소개한다.

오순절주의자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유래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다. 1900년만 해도 대단히 적은 숫자였던 오순절주의자가 수억 명이 넘게 성장한 지금, 오순절 운동을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성공한 사회운동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현재의 전망에 따르면, 오순절 교인의 숫자는 2050년 이전에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촌 종교라는 관점에서 오순절파 교인의 숫자는 전체 힌두교인과 맞먹을 뿐 아니라 전체 불교도인의 2배에 육박할 것이다.²³⁾

18) Lap-yan Kung, “Globalization, Ecumenism and Pentecostalism,” 111.

19) 장윤재,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계화 시대 남미 해방신학의 유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40집 (2005), 216.

20) 박승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조직신학논총』 54권 (2019), 86.

21) 배덕만,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 (서울: 홍성사, 2020), 80.

22) 필립 젠킨스, 『신의 미래』, 30-1.

23) 필립 젠킨스, 『신의 미래』, 32.

3. 세계화와 오순절운동

1) 현상

먼저, 오순절운동의 기원 자체가 세계화적 특성을 지닌다. 현재 학계에선 오순절운동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즉, 오순절운동이 미국에서 성결과 성령세례의 관계, 사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수용 등의 문제로 감리교 내에서 분화된 성결운동에서 기원했다는 주장²⁴⁾과 미국의 성결운동과 상관없이 인도, 중국,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²⁵⁾이 공존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방언의 신학적 의미에 집중하느냐, 포괄적으로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오순절운동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오순절운동이 고전적 오순절운동-신오순절운동(혹은 은사주의운동)->제3의 물결->신사도개혁운동 등으로 분화진화되었고, 이 모든 흐름들이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이란 이름 아래 포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면, 오순절운동을 미국 성결운동의 부산물로 한정하는 대신,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성령운동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오순절운동은 처음부터 세계적 종교현상(global religion)으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오순절운동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운동이다. 따라서 "오늘날 개신교의 근본주의를 대표하는 펜테코스타리즘, 즉 오순절 성령운동의 성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장된 것이다."라는 사회학자 김성건의 평가는 적절하다. 이런 확장은 통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인용했던 데이비드 바렛과 토드 존스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70년 오순절 신자들은 6,700만 명이었으나 2010년 6억 1,40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²⁶⁾ 그야말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이다.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빈슨 사이난(Vinson Synan)은 "현재 오순절과 교회들은 전세계에서 로마 가톨릭 다음으로 큰 기독교 집단으로서 당당히 주요 기독교 '전통'(tradition)의 하나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다.²⁷⁾ 우리는 이런 현실을 카사노바의 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개신교인들은 현재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10%를 구성한다. 그런 비율이 칠레(20% 이상)나 과테말라(30% 이상)에서 더 높다. 브라질에서 비율은 더 작지만, 절대수 면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250만 명).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매일 새로운 복음주의 교회가 설립되고, 그들 중 90%가 오순절-은사주의 교회다. 오늘날 모든 라틴아메리카 개신교인들의 2/3가 오

24)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는 도널드 데이턴이다. Donald W.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7).

25) Allan Anderson, *An Introduction to Pentecos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26) 배덕만,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 80.

27)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Charismatic Movem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7), ix-x.

순절-은사주의자들이다. 정말, 라틴 아메리카, 특히 브라질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오순절 기독교의 세계적 중심 중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온세상으로 [오순절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세계의 유일한 중심지는 아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가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순절적 기독교의 성장도 동일하게 폭발적이다. 더욱이, 아프리카의 오순절운동은 라틴 아메리카의 오순절운동 만큼 지역적이고, 자생적이며, 자율적이다. 동일한 이야기가 한국이나 중국의 오순절운동에 대해서도 반복될 수 있다.²⁸⁾

셋째, 오순절운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연결되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오순절운동을 연구한 마이클 윌킨슨(Michael Wilkinson)에 따르면, “교단 간의 새로운 관계, 전세계적 목회자 청빙, 인터넷을 통한 신학교육, 특별 행사와 집회, 기도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 국제적 사역, 출판, 음악,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통해, 캐나다오순절교회(PAOC)에 소속된 타문화타인종 교회들이 국내외적으로 관계망을 형성·유지하고 있다.²⁹⁾ 심지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Fiji)의 경우, 성공적인 오순절교회 ‘하비스트 미니스트리’(Harvest Ministry)와 이 교회의 담임목사(Head Pastor)의 사역이 피지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담임목사 술리아시 쿠룰로(Suliasi Kurulo)는 미국과 영국의 대형집회에서 빈번히 설교하고, 영국, 미국, 독일, 그 외 여러 나라에서 수시로 목회자들을 피지로 초청한다.³⁰⁾ 이 교회에 속한 신학교(World Harvest Institute)는 미국의 오순절대학인 오렐로버츠대학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30여 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전 세계에 5000개의 회원 교회들이 존재한다.³¹⁾

넷째, 오순절운동은 세계 도처에서 기존의 문화 및 타종교 들과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심각한 갈등도 초래한다. 즉, 카사노바에 따르면,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이 이티오피아, 인도, 루마니아에서 각각 콕틱교회,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와 긴밀히 접촉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오순절 영성이 미국과 개신교의 범주를 넘어 세계 도처에서 비오순절교단들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세계적 기독교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³²⁾ 하지만 그런 접촉과 영향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본주의적 성향의 오순절운동이 타문화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전투적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이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어디서나 자신들의 지역문화를 뻘뻘하고 비타협적으로 맹공을 퍼붓는다. 즉, 브

28) Jose Casanova, “Religion, the New Millennium, and Globalization,” *Sociology of Religion* 62(2001), 436-7.

29) Michael Wilkinson, “The Globalization of Pentecostalism: The Role of Asian Immigrant Pentecostalism in Canada,”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3/2 (2000), 222.

30) Karen J. Brison, “The Empire Strikes Back: Pentecostalism in Fiji,” *Ethnology*. 46/1 (2007), 34.

31) “Suliasi Kurulo” (https://en.wikipedia.org/wiki/Suliasi_Kurulo, 2023년 5월 10일 접속).

32) Jose Casanova, “Religion, the New Millennium, and Globalization,” 435.

라질에선 아프리카-브라질 정령신앙에 대항하여, 아이티에선 부두(Vodou)에 대항하여, 아프리카에선 마법에 대해, 한국에선 무속에 대해...그런 오순절적 태도는 타협이나 거절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백병전이다. 이것을 그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른다.³³⁾

2) 동력

무엇보다, 오순절운동의 폭발적 성장과 세계적 팽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방언과 신유, 축귀 등을 동반한 “성령세례” 체험이다.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의 영향 하에, 서구에선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약화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신론, 자유주의, 근본주의, 부흥운동 등이 연속적으로 출현했지만, 이런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체험한 성령세례는 교리적, 관념적, 형식적, 소극적 신앙에 머물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오순절운동의 빠른 확산의 한 가지 이유는 20세기 초반에 급진적인 복음주의 진영에 만연해 있던 성령의 임재 현상들이 동반된 부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였다. 특히, 그들 중 가장 헌신된 종들인 선교사들 사이에서. 1910년, '성령의 부어짐'이라고 불린 부흥들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다. 부흥들은 종종 서로 연결되었으며, 모든 경우에 성령의 역사로 간주되는 비밀상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이 동반되었다.³⁴⁾

또한, 성령체험은 오순절주의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길 권능(power)을 제공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오순절운동이 성결운동과 분리될 때,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는 성령세례의 본질을 '성화/정결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권능'으로 이해할 것인가?'였다. 결국, 성화/정결 대신 “섬김을 위한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 찰스 팔함(Charlews F. Parham)의 추종자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 되었다.³⁵⁾ 따라서 초기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동의어로 사용했으며, 하비 콕스(Harvey Cox)가 자신의 오순절 연구서 제목을 Fire from Heaven이라고 지은 것도 오순절운동의 이런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널드 밀러와 테쓰나오 아마모리는 전쟁, 기근, 질병이 만연한 지역에서 탁월하게 봉사하는 기독교 단체들 중 상당수가 오순절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을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린다.

33) Jose Casanova, “Religion, the New Millennium, and Globalization,” 437. 필립 젠킨스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수단, 필리피의 예에서 보듯 인구의 성장은 과열된 종교 간의 경쟁, 개종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세속법을 통해서 종교적 도덕법을 강요하려는 경쟁적 노력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종교적으로 열심히라는 것은 언제나 광신으로 변해 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신의 미래』, 41.

34) Allan Anderson, “Spreading Fires: The Globalization of Pentecost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31/1 (2007), 10.

35)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94.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사회과학자들이 현실을 설명하는 때로는 오만한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표현하고 싶다.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성령운동의 성장에 대한 가장 간결한 설명은 바로 'S'(the Spirit, 성령) 요인을 언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성령운동 내의 많은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³⁶⁾

끝으로, 오순절운동이 특히 남반구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신유와 미국식 변영신학이 탁월하게 결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순절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한 강력한 무기이자 치명적인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연구한 김대용의 지적처럼, “아프리카 독립교회는 현실세계를 악한 영과 사탄의 세력과의 우주적인 영적 전쟁터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병과 저주는 영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비는 것이다.” 특히, 의학 수준과 시설이 미약한 아프리카에서 성령을 통한 치유행위가 진행되는 교회는 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병원이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자연환경과 혼란스런 정치 질서 속에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선포되는 미국식 변영신학은 매우 설득력 있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으며,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영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기업 자본주의와 동시에 펜테코스탈리즘 신앙에 기초한 복음주의적 선교사 양자를 내보내고 있는 가장 큰 근원이다. 이런 측면에서 물질적 번영에 대한 펜테코스탈 운동 진영의 강조는 세계화 과정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는 ‘부의 꿈’ 즉 ‘세계화의 꿈(globalization dream)’가 매우 잘 들어맞는다.³⁷⁾

3. 세계화와 한국오순절운동

1) 현상

한국의 오순절운동은 자생적 성령운동과 해외 오순절운동이 결합하여 태동했다. 먼저,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 등의 초기 부흥사들에 의해 그 영향력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1930년대 평양, 원산, 철산에서 강력한 기도운동과 함께 토착적 은사주의자들이 출현했다. 1940년대 초반부터 대한수도원, 용문산수도원 등의 자생적 기도원들이 출현하면서 성령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오순절 선교사들이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지에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³⁸⁾ 해방 이후, 하나님의성회(1953년), 하나님의교회

36) 도날드 밀러-테쓰나오 야마모리,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하는가?』(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264.

37) 김성건, 『글로벌 사회와 종교』, 75.

(1963년), 한국연합오순절교회(1965), 대한예수교복음교회(1969년) 같은 오순절교단들이 연속해서 설립되었다.³⁹⁾ 이미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의 초기 부흥운동이 당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던 성령운동의 한 부분이었음이 드러났다.⁴⁰⁾ 또한, 1930년대에 수입된 오순절운동도 미국에서 유럽과 전 세계로 확장되던 ‘오순절운동의 세계화 과정’중 한국에 상륙한 것이었다. 결국, 세계적 현상으로서 성령운동/오순절운동이 한국의 토착적 영성과 결합되면서, 한국의 독특한 성령운동으로 발전했다.

한편, 한국의 오순절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왔다. 대표적인 예가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글로벌한 활동들이다.⁴¹⁾ ‘한국적 오순절운동의 세계화’라고 명명할 수 있는 현상의 단적인 예를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이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혹은 필리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방문하면, 미국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유형의 보수적 복음주의의 영향이 지대함을 쉽게 발견할 것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신자들이 미국인도 아니요 자신들의 동족도 아닌 한 한국인 전도자에 대해 대단히 열광하고 있다. 그들은 신오순절주의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에 대해 이야기한다.”⁴²⁾

조용기 목사는 1964년 ‘미국하나님의성회 교단창립 60주년’에 한국 대표로 초대되어 최초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때 2개월간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한국과 한국교회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으며, 1978년부터 ‘일본 1천만 구령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독일, 중남미, 남아공, 러시아, 동남아시아, 동유럽, 오세아이나 등지에서 연속해서 집회를 개최했다. 2000년엔 “세계복음화를 주도할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데이비드 조 이발젤리스트 미션’(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을 창설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차원에서 1971년 샌프란시스코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한 이래 40년간 전세계 55개국에 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691개 교회를 설립했고, 8개국에서 11개의 신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한 방송을 통한 해외선교도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1980년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조용기 목사의 설교가 중국, 미국, 호주, 서독, 아프리카 등지로 방송되었다. 1977년에 설립된 국제교회성장연구소를 통해 지금까지 250여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고, 50여 개국에서 연인원 680여만 명이 참석했다.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셀교회운동, G-12 등도 조용기 목사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8) Mary C. Rumsey(미국), Gladys Parson(미국), Elfreda Offstead(미국), Elsie Meredith(영국), Lily Vessey(영국), Mildred M. Bessey(영국), Lindquest(노르웨이), Stevick(노르웨이?) 등이 해방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오순절 선교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미혼 여성들이었다. 이영훈, 『성령운동의 발자취: 하나님의 성회 교회사』 (서울: 서울말씀사, 2014), 123-24.

39) 배덕만, “한국오순절운동의 역사와 현황,” 『2022 한국오순절대회: 다음세대의 오순절부흥 자료집』 (2022. 6. 9), 115-25.

40)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182.

41) 이연승, “한국 오순절 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세계 기독교의 형성,” 『영산신학저널』 Vol. 29 (2013) 참조.

42) Steve Brouwer, Paul Gifford, & Susan D. Rose, *Exporting the American Gospel: Global Christian Fundamentalism* (New York, NY: Routledge, 1996), 105.

끝으로, 여의도교순복음회는 ‘제3회 하나님의성회 동북아시아대회’(1969), ‘제10차 세계오순절 대회(PWC: Pentecostal World Conference, 1973),’ ‘제1회 세계하나님의성회연합회 총회’(1994), ‘제18차 세계오순절대회’(1998), ‘제23차 세계오순절대회’(2022)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오순절운동의 허브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했다.⁴³⁾

2) 동력

무엇보다, 조용기 목사의 독특한 신학과 뛰어난 설교능력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과 오순절 운동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조용기 목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란 자신만의 고유한 신학을 개발했다. 그의 교단인 하나님의성회는 본래 사중복음(중생, 성령세례, 신유, 재림)을 신봉하지만, 조 목사는 여기에 ‘축복’을 추가하여 오중복음을 새롭게 구성했고, 요한3서 1:2(“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에 근거해서 축복을 3가지(영혼의 잘됨, 범사에 잘됨, 강건한 삶)로 세분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모두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연관된다. 즉, 조용기 목사의 신학과 목회는 질병, 빈곤, 죽음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다룸으로써, 청중들의 진지한 관심과 역동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다. 조 목사의 설교에 대해, 오순절신학자 마원석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조용기 목사의 오순절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상황화 설교는 신학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의 오중복음의 설교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다. 신학은 어디까지나 복음(성서)과 현장(문화)과의 만남을 다룬다. 이러한 면에서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상황화 신학의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조 목사의 목회신학과 설교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던진 파장과 영향력, 그리고 공헌은 매우 특이하고도 중요한 것이다.⁴⁴⁾

보다 구체적으로, 조용기 목사는 구체적으로 신유와 경제적 축복, 그리고 희망을 강력히 설교했다. 신유는 조 목사 개인의 체험에 근거했고, 초기부터 그의 사역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그의 설교와 저서를 통해 신유를 강조했고, 모든 집회에서 병든 자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또한, 성령세례를 통한 치유와 물질적 축복을 반복해서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희망을 유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이어졌다. 이런 그의 메시지에 대해 일각에선 변영신학과 기복주의라고 맹렬히 비난했지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만성적 가난에 찌든 사람들, 온갖 이유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교회에선 쉽게 맞볼 수 없는 커다란 감동과 위로가 되었다.

43) 배덕만,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운동의 역사와 신학』(대전: 대장간, 2012), 217-56.

44) 마원석,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형 설교가 신학적 발전에 미친 영향,” 『세계가 주목한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 교회성장연구소 편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100.

희망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요한삼서 1:2에 기초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신학자들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그의 영적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⁴⁵⁾

끝으로, 조용기 목사의 뛰어난 조직력과 창조적 실험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다. 1959년 5명의 신자들로 시작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 목사의 뛰어난 설교와 강력한 영적 은사, 그리고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뛰어난 영어 능력과 목회 초기부터 시작된 해외여행, 해외 교회 지도자들과의 폭넓은 인맥을 통해, 조 목사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교회성장학 같은 최신 신학을 빠르게 습득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신의 목회에 탁월하게 적용·실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교회성장학을 자신의 교회에 도입하여 다양한 하부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이것이 후에 셀교회의 기원이 되었다. 특히, 여성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했으며,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을 모아 ‘순복음실업인회’를 조직했다. 후에 7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교회로 성장했지만, 거미줄 같은 구역제도를 완성하여 교회 성장과 성도간의 교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⁴⁶⁾ 이런 조 목사의 리더십과 교회 조직은 국내외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4.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오순절운동을 향한 제언들

먼저,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들에 주목하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세계경제를 활성화하고 빈자들의 소득을 증대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선전과 달리, 세계화는 극소수의 선진국들과 일부 상층계급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돌아갔다. 세계화의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1997년 IMF 사태 이후, 중산층이 몰락했고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소득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700만 명 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사회의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⁴⁷⁾ 그럼에도, 대체로 보수적·친미적 성향이 강한 한국의 오순절주의자들은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은 간과한 채, 신자유주의 체제를 당연하고 심지어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45) Yonggi Cho, “The Secret Behind the World’s Biggest Church,” *Azusa Street and Beyond: Pentecostal Mission and Church Growth in the Twentieth Century*, Ed. L. Grant McClung, Jr. (South Plainfield, NJ: Bridge Publishing Inc., 1986), 102.

46) 2009년 자료에 따르면, 75만 5천명의 신자들, 28,957명의 구역장, 7903명의 지역장, 292명의 교구장, 171명의 목사, 356명의 전도사, 그리고 이 조지의 정상에 조용기 목사가 위치해 있었다.

47) 신경규,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선교,” 150.

오순절주의자들은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좌파 진영의 학자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에게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현상,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부익부빈익빈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라는 중대한 모순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기존의 세계화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중간계급 가운데서 개인적 성공이나 상승이동의 꿈, 즉 '세계화의 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펜테코스탈리즘의 종교문화가 이 같은 부르주아적 멘탈리티와 친화성을 갖는 것은 한국의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세계에서 단일교회로서 가장 큰 여의도순복음중앙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분명해보인다.⁴⁸⁾

둘째, 변영신학의 유혹에 저항하라.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복지제도와 사회적 인프라가 부실하며, 자연환경마저 열악한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질병과 가난은 극복하기 어려운 생존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오순절 설교자들이 강력히 선포하는 변영신학은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면서, 남반부 지역에서 오순절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오순절운동의 변영신학은 사회문제의 근원적·구조적 차원은 간과한 채, 단순히 복음을 물질적 축복으로 축소하고, 성령을 성장과 변영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치명적 오류도 범했다. 특히, 한국의 오순절운동이 세계오순절운동 및 세계선교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무책임하게 신학적 불량품을 수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선교학자 김상근의 조언은 적절하고 중요하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가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자칫 미국의 복음(The American Gospel)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해외 판매조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라는 물질적 축복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의 지표로 간주하는 변영의 신학(prosperity theology)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통해 미개발국가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⁴⁹⁾

셋째, 국수주의를 극복하라. 홍콩의 오순절운동을 연구한 쿵(Kung)에 따르면,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오순절운동이 근본주의로 경도되고 있다. 이때 그가 우려하는 것은 “전투적 국수주의”로 귀결되는 근본주의의 “부족적 사고방식”(tribe mentality)이다. “그것은 국가, 인종, 젠더, 종교, 민족에 의해 형성된 인간적 장벽들을 허무는 대신, 사람들 안에 경계들을 만든다. 오순절운동의 모호성은 그것이 세계적 운동이지만, 반드시 에큐메니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⁵⁰⁾ 쿵의 지적처럼, 이런 전투적 국수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부족적 사고방식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순절주의자들을 포함한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 난민,

48) 김성건, 『글로벌 사회와 종교』, 76.

49) 김상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 43.

50) Lap-yan Kung, “Globalization, Ecumenism and Pentecostalism,” 122.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차별과 혐오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⁵¹⁾ 예를 들어, 신사도개혁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개신교 극우단체 ‘에스더기도운동’이 “스웨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92%가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절반이 아동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성범죄율이 내국인보다 79배 높다” 같은 혐오성 가짜 뉴스들을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사실이 <한겨레>를 통해 보도되었다.⁵²⁾

넷째, 성령론에 대한 포괄적·심층적 연구를 강화하라. 오순절운동이 현대교회와 신학계에 끼친 최대의 공헌은 성령에 대한 관심을 회복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형성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으며, 교부들은 삼위일체론을 정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카파도키아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성령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몬타누스파, 피오레의 요아킴, 프란체스코 영성과 등의 극단적 신비주의의 부정적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운동은 위축되었고, 성령 자체의 존재감마저 오랫동안 미미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 정체현상을 일순간에 역전시킨 것이 바로 20세기에 출현한 오순절운동이다. 덕분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오순절운동의 성령론은 누가-사도행전에 근거하여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 신유, 축귀, 예언 등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성경의 다양한 성령론,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본질과 기능, 성령론과 생태, 여성, 평화, 정의의 관계 등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이런 현실의 책임은 바로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있다. 오순절운동이 ‘운동’과 함께 ‘신학’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다양한 면모에 대한 크리스터 스텐달(Krister Stendahl)의 흥미로운 묘사는 성령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교사로서 성령은 교회의 신앙과 인류의 지적 탐구를 갱신하고, 화해자(unifier)로서 성령은 교회의 사랑과 인류의 연대를 갱신하며, 해방자로서 성령은 교회의 정의와 인류의 도덕적 에너지를 갱신한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vivifier)으로서 성령은 교회의 소망과 인류의 열망을 갱신한다.⁵³⁾

다섯째, 오순절운동과 민중신학의 결합을 시도하라. 아마도, 한국은 비교적 세계화 체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그 결과, 수많은 관광객과 유학생 뿐만 아니라, 이주민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한국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민층이 증가했다. 여기에 이주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빈민층에 합류하고 있다. 겉모양은 이전보다 화려해졌지만, 속사정은 1970년대 산업화 초기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형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에 오순절운동과 민중신학을 모두 성령운동(모성적 성령운동+부성적 성령운동)으로 이해하고 양자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던 유동식의 제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이 조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창조적으로 수용·실천하느냐

51) 이 문제에 대해선, 권지성 외, 『혐오와 한국교회』 (서울: 삼인, 2020)을 참조하시오.

52) 김완·박준용·변지민,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 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한겨레』 (2018. 9. 27).

53) Krister Stendahl, *Energy of Life* (Geneva: WCC, 1990), 49-50. Kung, “Globalization, Ecumenism and Pentecostalism,” 116에서 재인용.

에, 오순절과 세계 기독교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이 두 형태의 성령운동은 하나의 한국 교회의 신앙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 이것은 서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상호 비판을 통해 상화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하나의 한국교회를 형성해 가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⁵⁴⁾

III. 결론

세계화는 21세기 한국에서 더 이상 이론이 여지가 없는 삶의 양식이 되었다. 세계화를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 협소하게 이해하든, 아니면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 문화, 종교의 긴밀하고 역동적인 교류와 통합의 과정으로 폭넓게 이해하든,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삶의 지평이 확장되고 삶의 질도 향상된 것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크게 악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 부정적 결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경제, 기업, 자본, 이윤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자 시대정신이 되면서, 다른 전통적 가치와 인문학적 소양이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란 정글법칙이 지배적인 규범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비인간화 현상도 극심해졌다. 그래서 세계화의 예외적 혜택을 누리를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심지어 그들마저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못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헬지옥” 혹은 “지옥불반도”라고 칭하며, 유일한 해법으로 “죽창과 탈출”을 운운한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이런 시대에 오순절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 이미, 한국의 오순절운동은 한국교회의 주류, 중심, 정상을 차지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필두로, 지역마다 오순절-은사주의 교회들이 대형교회들로 성장했고, 한국교회의 신앙양태와 문화에도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성령과 방언, 신유와 축복, 적극적 사고방식과 교회성장학, 번영신학과 셀교회 등은 오순절운동이 한국교회에 보급한 종교적 ‘대박상품’이다. 하지만 사회적 평판과 타당성을 상실하면서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멈추고 빠르게 추락하는 비극적 현실에 대해 오순절운동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오순절운동이 한국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지만, 동시에 한국교회의 쇠퇴와 타락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으로 친자본과 반공이란 특정 이데올로기와의 유착, 교회세습과 성적·재정적 스캔들로 드러난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 교회건축과 현금강조로 집약된 기복신앙의 패단, 교회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 차별

54) 유동식, “한국교회와 성령운동,” 20-21.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유동식 외 (서울:크리스찬아카데미, 1981), 21.

과 혐오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회개나 개선의 노력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구차한 변명이나 남 탓하기에 몰두할 뿐이다. 일각에서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오순절운동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물론,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이 오직 오순절운동만의 시대적 과제는 아니다. 하지만 오순절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그리고 세계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에, 특별히 이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마지막 장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오순절운동이 진지하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길 기대한다. 즉, 이 시대의 오순절주의자들이 세계화의 현란한 선전문구 배후에서 진행되는 부정적 현실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변영신학의 덮에서 벗어나며 국수주의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신학적으로 성령론의 발전에 좀더 힘을 쏟고, 오순절운동과 민중신학의 창조적 결합을 진지하게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오순절운동이 자신의 신앙적 동력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난제들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감당할 때, 세계교회의 개혁과 부흥의 핵심적 주체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제에 눈을 돌린 채 오직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만 집착한다면, 한국교회와 자신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부디, 오순절운동의 진지한 성찰과 용감한 도전을 기대한다. 정녕,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할 때다.

참고문헌

- 권지성 외. 『혐오와 한국교회』. 서울: 삼인, 2020.
- 김대용. “세계화 시대 속의 소통과 해방: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27(1) (2013).
- 김상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학과 선교』 제13권 (2007).
- 김성건. 『글로벌사회와 종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_____.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성령운동의 영성과 해방신학.” 『선교신학』 제20집 (2009).
- 김완박준용변지민,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 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한겨레』 (2018. 9. 27).
- 도날드 밀러•테스나오 야마모리.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하는가?』.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 박송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조직신학논총』 54권 (2019).
-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 방연상•이만형. “세계기독교: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선교신학』 제41집 (2016).
- 배덕만.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운동의 역사와 신학』. 대전: 대장간, 2012.
- _____.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 서울: 흥성사, 2020.
- _____. “한국오순절운동의 역사와 현황.” 『2022 한국오순절대회: 다음세대의 오순절부흥 자료집』 (2022. 6. 9).
- 배영수. “오늘날의 세계화.”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 송충기 외. 서울: 아카넷, 2009.
- 마원석.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형 설교가 신학적 발전에 미친 영향.” 『세계가 주목한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 교회성장연구소 편.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 신경규.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선교: AGAPE 문서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제45집 (2017).
- 앤서니 기든스. 『질주하는 세계』. 박찬욱 옮김.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 유동식. “한국교회와 성령운동.”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유동식 외. 서울: 크리스찬아카데미, 1981.
- 이연승. “한국 오순절 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세계 기독교의 형성.” 『영산신학저널』 Vol. 29 (2013).
- 이영훈. 『성령운동의 발자취: 하나님의 성회 교회사』. 서울: 서울말씀사, 2014.
- 이정배.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동아시아 종교문화의 역할과 제안: 한국 기독교의 시각에서.” 『신학논단』 제43집 (2006).
- 장윤재.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계화 시대 남미 해방신학의 유산.”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제40집 (2005).
- _____. “모든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 『대학과 선교』 제14권 (2008).

- 필립 젠킨스. 『신의 미래』. 김신권·최요한 옮김. 서울: 도마의 길, 2009.
- Anderson, Allan. *An Introduction to Pentecos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Spreading Fires: The Globalization of Pentecost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31/1 (2007).
- Brison, Karen J. "The Empire Strikes Back: Pentecostalism in Fiji." *Ethnology* 46/1 (2007).
- Brouwer, Steve. and Paul Gifford, & Susan D. Rose. *Exporting the American Gospel: Global Christian Fundamentalism*. New York, NY: Routledge, 1996.
- Casanova, Jose. "Religion, the New Millennium, and Globalization." *Sociology of Religion* 62 (2001).
- Cho, Yonggi. "The Secret Behind the World's Biggest Church." *Azusa Street and Beyond: Pentecostal Mission and Church Growth in the Twentieth Century*, Ed. L. Grant McClung, Jr. South Plainfield, NJ: Bridge Publishing Inc., 1986.
- Dayton, Donald W.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7.
- Kung, Lap-yan. "Globalization, Ecumenism and Pentecostalism: A Search for Human Solidarity in Hong Kong,"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6/1 (2003).
- Synan, Vinso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Charismatic Movem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7.
- Walters, Malcolm.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1999.
- Wilkinson, Michael. "The Globalization of Pentecostalism: The Role of Asian Immigrant Pentecostalism in Canada."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3/2 (2000).
- "Suliasi Kurulo" (https://en.wikipedia.org/wiki/Suliasi_Kurulo, 2023년 5월 10일 접속).

[논찬문]

〈김동춘, 로잔의 총체성과 변혁 개념에 대한 사회신학적 평가〉 논찬

이강일 _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목사

기존의 로잔 관련 연구가 총체적 선교의 의의나 문제점에 대한 선교신학계의 논의였다면, 김동춘 교수의 논문 “로잔의 총체성과 변혁 개념에 대한 사회신학적 평가”는 총체성 개념 자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신학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로잔신학을 관통하는 개념을 총체성으로 꼽으면서, 총체적 선교가 변혁적 선교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로잔신학은 총체적 복음을 강조하는 선에서 ‘땀똥’ 있다고 지적하면서, 총체성 개념 분석과 복음전도 우선주의에 대한 비평을 통해 로잔신학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총체적 선교가 담보 상태인 이유를 로잔 총체성 신학의 역설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한 부분이다. 로잔의 총체성 신학은 통합과 동시에 구별도 하기에 역설적이다. 실제로 로잔언약은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회한다’고 천명하면서도 다음 문장에서 ‘인간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행동이 복음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단다. 다시 ‘복음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이라고 두 개념을 통합하여, 두 논리를 병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로잔이 총체성에서 담보하고 있다는 지적과 복음전도의 우선성 분석이 각각 다른 장에서 설명되고 있으나, 논찬자는 복음전도 우선성 주장이 원인이 되어 총체성 논의가 담보상태에 있다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1, 2차 대회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두 가지 의무로, 복음의 온전성 혹은 총체성으로 표현하면서도 항상 복음전도가 ‘우선(primary)’이라는 표현을 곧바로 배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논문의 '장 복음과 사회변화 모델'에서 복음전도 우선성 논의를 더 진전시킨다. 복음전도 우선론이 지속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만 언급하려고 한다. 우선 복음 자체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존 스토틀는 물론 급진제자도 진영의 리더인 로널드 사이더를 포함해 로잔의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자체를 사회적 행동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와 사회적 행동은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된다'(not separate but distinct)는 입장에 속해있다.

이들은 복음의 유일무이성과 복음의 사회변혁적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 복음은 인간 내면과 인격, 그리고 사회변화까지 이끄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현실사회의 구조악보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복음의 독특성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본다. 복음전도를 우선하려고 하는 이면에 복음 자체를 어떤 것으로도 환원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 상황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동의하더라도 복음 자체에 대한 보수적 동기가 작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전도 우선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물론 3차 대회에서는 그 보수적 동기가 복음의 중심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재적 분석은 복음주의자들의 공통점을 말해주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두 번째는 개인의 변화가 사회 변화보다 우선한다는 복음주의자들의 고정 관념이다. 이것은 복음화가 점진적으로 사회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근본적 믿음에서 유래한다. 이 믿음은 개인의 단순 집합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기능적 사회관에서 온 것이다. 사회 구성 단위 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관점이 계속되는 한 개인 변화와 사회 변화의 구분과 개인 변화의 우선성 고수는 지속될 것이다.

복음전도 우선주의나 사회참여 동반자론 혹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통합적 선교론 등을 포함한 로잔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과 개인 변화 우선론이 전제가 됨으로써 로잔의 총체적 선교론이 변혁적 행동으로 쉽사리 진전하지 못한다는 저자의 해석을 위와 같이 연결을 해보았다.

이런 복음주의 특유의 역설적 상황을 풀어갈 실마리가 상관관계성에 대한 저자의 설명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로잔의 총체성은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결합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결합의 양상은 '동반자' 관계 혹은 '새의 양 날개'로 표현되지만, 결합하는 실체들은 구별이 가능한 두 가지이다. 총체성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로잔은 상관관계적 차원의 총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상관관계는 양편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선교론에서 총체성 개념을 계속 사용하려면 상호관계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로잔운동을 '내내 괴롭혀온' 복음전도와 사회행동의 관계가 바로 상관적이었음을 로잔 신학이 인식하라는 말이다.

정리하면 저자는 로잔신학은 상황에 응답하는 총체적 신학을 전개하면서 변혁으로 이동했지만

전도우선주의 문제를 풀어야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로잔의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을 잘 분석한 결과로 본다. 다만 여기서 세 가지 점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첫째는 로잔에 애초에 부재하다는 사회신학을 평가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저자의 말대로 로잔신학은 애초에 사회의 신학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주된 관심도 복음의 사회변혁적 가능성을 논한 것이 아니었으며, 복음전파의 주된 기조 속에 사회적 책임을 균형감 있게 포괄할 것인가를 고민한 ‘복음화’ 운동이었다.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의식한 것은 로잔의 주변부 혹은 외부에 있는 급진제자도 그룹이었다. 그들은 사회적 응답으로 복음의 총체성을 주장해 로잔 측과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잔의 사회신학의 평가를 하자면 저자가 처음에 소개한 대로 급진제자도 진영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전도우선론자들의 논리 극복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둘째는 로잔신학이 총체성에서 변혁으로 이동했다는 판단의 적절성 문제이다. 사실 로잔은 3차 케이프타운 서약문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도우선성 논의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저자는 이 변혁으로 이동했다는 근거를 로잔 내부의 하나로서 급진제자도 그룹의 저작에서 찾았다. 급진제자도 그룹은 82년에 설립한 ‘NFEMIT’(인페미트, the International Fellowship for Mission as Transformation)라는 세계 선교신학자 네트워크를 통해 변혁적 선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 로잔운동의 주요 파트너가 아니다. 이들에게 우호적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3차 대회 직후 로잔신학위원회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급진제자도 그룹의 알 티존도 4차 대회에 대한 초청을 받고 있지 못하고 한다. 그만큼 로잔의 주변부에서 어느 정도 긴장 관계 속에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총체성이 변혁으로 이동은 급진제자도 그룹의 지향이지 로잔 내부의 지향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 로잔과 급진제자도 그룹의 변혁적 선교론은 서로 갈 등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로잔의 변혁 지향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본다.

셋째는 ‘복음전도 우선성’과 ‘복음의 중심성’에 대한 구분의 모호성 문제이다. 존 스토틀트는 저자 말대로 복음전도 우선성 위에 총체적 선교를 내다보는 인물이다. 그러나 사이더 등 급진 제자도 진영이나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전도 행동의 우선성을 말하지 않았고 복음전도와 사회적 행동의 ‘동등성’ 혹은 ‘통전성’(integrity)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저자는 복음전도 우선주의 논의에서 급진제자도 진영의 ‘복음의 중심성’ 주장까지 동일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복음의 중심성¹⁾ 개념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3차 대회 케이프타운 서약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정당화 논리였고, 로잔의 복음주의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근거였다. 총체적 선교를 통합시키는 중심적 가치를 복음 자체에 두고, 복음전도는 궁극적²⁾으로 해내게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복음전도 우선성 논리를 극복하는 논리로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복음전도의 우선성과 복음의 중심성은 구분하여 비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1) 존 스토틀트,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교란 무엇인가』, 김명희 역, IVP, 2018. p. 58. “내가 전도의 위성보다는 복음의 중심성에 대해 말하기를 선호...”

2)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역, IVP, 2010, p. 401.

[논찬문]

삼위 하나님이 ‘변방-비주류-종말’적 오순절 운동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성령충만한 동네 바보들이 나와바리를 넓힌다)

구교형 _ 성서한국

배덕만 교수의 글은 특히 오순절 운동의 세계화적 현상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전개했다. 세계화는 국경이나 인종 등 특정 장벽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온 인류에 보편적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 현상이다. 20세기부터 불기 시작한 오순절의 지구촌 현상이 21세기에도 기독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까지 새롭게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20세기 초 일어난 오순절 운동은 근대 기독교가 이성 중심의 자유주의와 교리 중심의 근본주의로 경직되고 기득권화되었을 때, ‘느닷없이’ 방언, 예언, 병고침 같은 다양한 은사, 능력과 함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오심으로 경험되었다(행 2:1~4).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논쟁, 정치권과의 밀착 등으로 주류 한국교회가 거둬 분열하고 기득권화하는 가운데서 이와 다르게 변방의 기도원 중심으로 은사주의,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오순절 운동도 그 배경에서 급속히 뿌리내렸다(성령을 받으라, 배덕만, 대장간, 2012년).

나는 배덕만 교수의 논문의 맥락 위에서 평소 보고, 느끼던 오순절 운동과 그 주역인 조용기 목사에 대한 소회, 그리고 현재 우리 심포지움의 목표인 로잔운동과 연결해 살펴보고 싶다.

1. 오순절 운동의 특징과 장점

첫째, 오순절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 운동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다시 일어난 하나님 나라 운동(신학, 신앙)은 전통 주류신학의 타계주의성, 이원성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에 왕성하게 그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일하심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인시켜 주었다. 오순절 운동은 왕성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며, 내게 경험되는 실체로 현재화한 운동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둘째, 오순절 운동은 창조와 자유, 해방의 성령 운동이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 역사가 주로 교리(신학)와 교권(제도) 위주로 발전하면서 경직되고, 기득권화되고, 분열될 때 성령 운동은 인간적 한계와 분열을 단숨에 돌파하는 창조와 자유, 해방과 성결의 성령을 통해 기독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 그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지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행 15:22~28 부분 발췌)

셋째, 오순절 운동은 공황과 자비의 운동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땅의 백성(암 하아레츠)의 배고프고, 억눌리고, 병들어서 버림받고 차별당한 아우성을 들으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일으키신 기록이 신약성경에 가득하다. 성전과 율법으로 충분했던 사두개인이거나 바리새인과 다르게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변방에 몰렸던 민중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귀신을 쫓아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중에 사도와 초대교회도 그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에서 일으켰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29~32)

넷째, 오순절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현상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주신 자리에서 온 힘 다해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구하며, 약자를 위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충성과 열심도 마침내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도로 보수작업, 마침내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비적 과정을 넘어서지 못한다. 오순절 성령은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 예고하고, 초대교회에서 확인된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 충성과 같다. 그날은 모든 역사를 심판하고, 마침내 정의와 복지가 완전히 실현되는 완성된 해피엔딩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골 2:28~32 부분 발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2. 오순절 운동의 왜곡과 변질

첫째, 오순절 운동은 현상과 체험 주의에 빠지기 쉽다.

전통적, 주류 기독교가 교리와 교권에 젖은 화석화된 왕국이 되기 쉽다면, 오순절 운동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 체험에 빠질 우려가 크다. 그러다 보면 다시 하나님 나라는 없고 개인적, 집단적 체험과 그로 인한 만족에 머물게 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행 8:18~20)

둘째, 오순절 운동은 강자와 주류 정당화 신학이 되기 쉽다.

역사적으로 오순절 운동은 변방성과 비주류성을 토대로 주류 기독교를 견제하고, 견인하고, 새롭게 하는 창조적, 해방적 역할로 대안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화된 기독교 체계에서는 은사와 능력의 화려함이 교회 성장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교회와 대표자의 기득권이 만들어져 새로운 강자가 되고, 이를 채용한 주류 기독교가 오히려 정당화되기도 한다. 사적 욕망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용인하여 국가의 후원 아래 성장을 도모하는 민중의 아편 역할도 한다(남미 오순절과 복음주의, 유신 주류 기독교와 조용기).

셋째, 오순절 운동은 인간중심주의가 되기 쉽다.

첫째, 둘째의 결과로 오순절 운동은 창조와 자유, 해방의 영인 성령의 주도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주목한다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현실교회의 교회 성장과 그 지도자의 화려한 지도력에 의존하는 인간중심주의로 변질되기 쉽다. 카리스마는 성령의 선물인데, 현실에서는 주신 분의 뜻보다 선물 받은 사람에게 대한 칭송으로 변질된다.

3. 조용기 목사와 한국 오순절 운동의 교훈

조용기 목사는 첫 등장부터 지금까지 두 극단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은 지나친 긍정 일변도, 다른 한편 지나친 비난 일변도이다. 이는 그를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실 조용기 목사는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

첫째, 조용기 목사는 분명 성령의 창조성, 자유와 해방의 능력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변방적, 대안적 목회로 출발했다.

이는 그의 개인적 삶의 이력과 관계된다. 그는 젊은 시절 심한 폐결핵 등 다양한 질병으로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 치유를 경험한 뒤 예수 믿고, 병 고침과 방언의 큰 은사까지 받아 이를 평생 목회의 기반으로 삼았다.

병 고침과 방언 등 능력과 은사는 그가 목회를 시작한 1950년대부터 평생에 걸쳐 누구도 관심 없고, 대책 없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삶의 의욕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적이 되었고, ‘내세에’ ‘먼 곳에서’가 아닌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표가 되었다. 장로교 중심의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지나치게 무심했고, 무지했다.

희망의 신학을 대표하는 몰트만이 조용기 목사의 오순절 신학이 자신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던 이유도 그러한 대안성, 민중성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기하성은 지금도 한교협(NCCK)과 한기총의 동시 회원교단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나친 교단적 분열성으로 인해 민중신학(사회구조적)과 오순절 신학(개인치유적)이 정반대인 것처럼 이해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되었다. 한국교회의 이분법적 한계다.

둘째, 조용기 목사는 성령계 받은 놀라운 은사를 개인의 목회적 야망, 명성 유지에 탕진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오순절 운동의 카리스마적 가시성과 폭발력은 점점 그 운동의 지도자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상승배적 탈선에 활용되었다. 그를 통해 병과 여러 절망에서 탈출한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의 그에게 감사했고, 거기에 더해 그의 생동감 넘치는 언변과 조직력, 판단력, 부지런한 활동력 등이 더해 폭발적인 교회 부흥을 이뤄냈고,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부흥사로 우뚝 섰다. 여의도로 옮겨 주류교회, 교단을 대신할 정도의 명성과 폭발력을 가질 때는 이미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보다 기적과 능력, 축

복을 통해 돈 벌고 출세하려는 욕망을 가진 자들의 이해집단처럼 변해갔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 6:26)

본래 그의 목회는 변방성, 비주류성에 더해, 주류교회에는 없는 여성성까지 갖고 출발했다(울고 웃고,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위로한다). 그것이 구역모임의 창설로 이어졌다. 그게 바로 그와 오순절 신앙의 대안성이다. 그러나 급격히 커지고, 부자가 되면서 실제 교회 운영과 조직관리는 철저히 남성성(상명하복, 목표 지향성, 성과 지향성)에 기반했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우열을 가리려는 게 아니다.

4. 결론: 오순절 운동의 양면적 교훈을 잘 살리면 로잔 운동과 한국교회도 살아난다.

오순절 영성과 그 능력을 사모한다는 말은 곧 그가 한계 상황에 빠졌다는 뜻이다. 기존의 이성적, 합리적, 주류적 신앙과 신학으로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변방성, 비주류성에 다시금 주목해야 한다. 인생도, 신앙도 결코 합리적 판단, 이성적 이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오순절 운동의 대안적 성격이다.

그래서 21세기 세계화된 교회는 이미 오순절 신앙이 선도하는 남반구(남미, 아시아, 아프리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900년에는 전체 개신교인의 5%였으나, 2000년에는 59%, 2050년에는 81%에 이를 것이다.”세계교회의 미래, 패트릭 존스톤, IVP, 123쪽). “은사주의자들은 2000년 세계 인구의 거의 6%에서 11%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공산주의자, 힌두교인 또는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는 곳과 같은 적대적인 종교 환경 가운데서 일어날 많은 중대한 돌파 및 회심이 좀 더 은사주의적인 색채를 띠게 될 것 같다.”(139쪽)

우리 시대는 여전히, 그리고 갈수록 이성적, 합리적 소통 필요로 한다(집단지성, 공공신학).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삼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창조와 자유, 해방의 역사를 자유자재, 능수능란하게 일으키신다. 탈북인의 상당수가 개혁진보 교회가 아닌 오순절 교회를 택하는 것은 단지 재정후원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이념으로 무장한 20세기 모던 시대의 서구 지성적 기독교를 대신해, 감성과 공감의 활발한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 오순절 신앙이 변방, 비주류, 남반구를 휩쓰는 것은 틀림없는 성령의 창조적 역사다. 세계 주류교회와 한국교회는 창백한 장로교 신학으로 오순절 신앙을 쉽게 재단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 다시 배워야 한다. 또한 오순절 교회는 비주류, 변방성, 여성성의 본래적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2024년 4차 로잔대회가 한국 인천에서 열린다. 2010년 3차 케이프타운 대회 신앙고백은 5항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와 해방과 정의의 사역을 행하시며, 여러 가지 섬김을 실행하도록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본다. … B. 오순절에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은 신자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첫 열매는 언제나 사랑이다. … C. … 이것은 선교의 모든 차원, 곧 복음 전도, 진리 증거, 제자 훈련, 화평케 함, 사회 참여, 윤리적 변혁, 창조세계를 돌봄, 악한 세력을 물리침, 악한 영의 축출, 병든 자의 치유, 박해 아래 겪는 고난과 인내에 모두 해당된다.”(케이프타운 서약, IVP, 36, 37쪽)

그러므로 이번 4차 로잔대회는 그저 비주류 후발 남반구가 주류 선발 북반구보다 왕성해졌기에 남반구의 선두 대한민국의 장소와 돈만 빌려 대회를 개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 삼위 하나님이 비주류 후발 남반구를 들어 쓰시는 깊은 경륜과 섭리에 주목할 수 있는 첫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령은 나와 다른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고, 소통하고, 화평케 하신다. 그래서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마 5:5). 성령 충만한 동네 바보들이 나와바리를 넓힐 것이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마 4:15~16)

‘로잔너머’ 연속 심포지엄

5차/ 로잔너머

이제 한국교회는 어디로?

2024년 3월 11일

주관_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발제문]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새 비전 제시

김세운 _ 풀러신학교 원로교수

I. 지금까지의 로잔 운동 평가

- * 본문 제1부에서 이탤릭체의 글들은 로잔 문서들(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Cape Town 결의)에서 인용하거나 요약한 것들이고, 정자체의 글들은 필자의 논평(1부)이나 논설(2부)이다.
- * 1부 로잔 문서들 인용 부분들에서 로마 숫자 I, II, III은 로잔의 3개 대회들의 문서들을 지칭하고, 뒤이어 나오는 아라비아 수자는 그들의 영문판 쪽수를 가리킨다.

1. 로잔 1: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대회(Lausanne, Switzerland, 1974, 7월)

로잔 언약

- 미완성 상태의 복음화 사명: *아직도 인류의 2/3이 복음화되지 않았음. 복음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여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150개 국가들에서 온 교회의 대표들이 이 신앙과 이 결의를 천명하고 이 언약을 공포한다(I.1).*
- 전도의 정의: *“전도 그 자체는 역사적 성서적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로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의 순종, 그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기, 세상 안에서 책임 있는 봉사하기를 포함한다”(I.5)*
- 전도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에 바로 뒤이어, 로잔 언약은 교회가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또 지금까지 (복음주의) 교회가 전도와 사회적 관심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가져왔음을 회개하고, 전도와 사회적-정치적 개혁활동이 둘 다 우리의 그

리스도인들로서의 의무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심”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이웃 사랑의 의무에 근거한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형태의 소외, 억압,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함축한다”고 천명하며, “우리는 악과 불의가 어디에 존재하던 그것들을 탄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의 나라에 다시 태어난다(중생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1.5).

- 로잔 언약: “구령사업: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기”에 집중한 전통적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도 전도와 선교의 구조적 일부라고 강조한 복음주의자들의 역사적 문서.
-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사고능력이 부족하여 그러한 새 이해를 위한 신학적 정당화가 불충분함. 로잔 II와 III가 보완을 시도했는데, 여전히 불충분한 모습을 보임(II.2,7,8 and III.21,22).
- 또 하나의 중요한 천명: “우리는 때때로 교회 성숙을 희생시키며 교회 성장을 추구해 왔고, 신앙적 양육 없이 전도에만 집착해왔다.” 이런 약점들을 지적하며, 로잔 언약은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며(1.8-9), 거짓 복음, 거짓 이념, 세속화에 대해 영적전쟁을 수행해야 한다(1.9)고 천명한다.
- 오늘 이 짧은 강의에서 우리는 우리의 토론을 이 두 요점들에만 집중한다: 로잔 I과 II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전도와 선교 안에 내포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발전시키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신학적 교육과 제자 훈련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는가? 그리고 II장(Part Two)에서는 우리는 이 두 요점들을 신학적으로 더 바르고 효과적으로 정당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가를 모색할 것이다.

2. 로잔 II: 세계 복음화를 위한 2차 국제 대회(Manila, the Philippines, 1989)

마닐라 선언

마닐라 선언은 “우리는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과 의식주를 빼앗긴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시위해야 한다”고 천명하는데, 그것을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든 구조적인 것이든 모든 불의와 억압을 탄핵하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그러한 선포를 “선지자적 증거행위”라고 규정한다(II.2).

- “참된 복음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서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에 우리는 사랑의 봉사에 참여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우리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그 나라의 요청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복음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영접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자비와 능력의 역사로 시위하시기도 하셨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게 말과 행동을 통합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II.7-8)
-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그것과 결맞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선지자적 탄핵을 요구한다”(II.7-8)
- “우리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독교화된 사회와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복음은 피할수 없는 사회적 함축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II.8)
- 이 언명들은 모두 그 자체로서 맞고 훌륭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 기반한 전통적인 표현들이다.
- “우리의 관심과 비전이 작아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개인적이건 공적인 것이건, 지역적이건 세계적이건, 모든 영역들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마 6:33)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의한다.”(II.8)
- 이 언명도 그 자체로서는 옳은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실제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받으면 현재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롬 14:17)이 실현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그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고 만 것이다.
- “모든 전도는 악의 주관자들과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을 내포한다. 이 전쟁에서는 영적 무기로만 승리할 수 있는데, 특히 기도와 더불어 말씀과 성령이 주효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갱신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을 호소한다”(II.9).
- 마닐라 선언에 “영적 전쟁”에 대한 언급 내지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닐라 대회 당시 Fuller 선교대학원의 Peter Wagner & co.의 영향력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적 전쟁”은 주로 무속신앙적으로 이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이해에 대한 경계도 포함되어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전쟁”에 대해 필요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하는 것은 없다”(II.11).
- 여기 또 한 번 마닐라 선언 의 한계를 본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전도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만 설명되어 있고, 국가적 삶 또는 국제적 관계에 있어 교회가 지켜야 할 자세나 사회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기독교적 가치들과 윤리를 상대적으로 보다 더 반영하는 정치가들이나 정당들보다는 그것들에 상반되는 정치를 하는 부패하고 압제적 정치가들이나 정당들을 지지하여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불의와 갈등과 고난을 증대시키는 문제(예: 나찌 시대의 Deutsches Christentum 과 오늘의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들의 행태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 대신 불의와 갈등과 고난이 증대되고, 그것에 실망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교회에 냉소적이 되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한다는 말인가?!

- 이 약점은 마닐라 선언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실현을 되풀이 하여 요청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발생한 것이다. 뒤따라 나오는 II장의 설명을 보라.

3. 로잔 III: 세계 복음화를 위한 3차 국제 대회(Cape Town, South Africa, 2010)

The Cape Town 결의

- The Cape Town 결의는 교회가 세계화, 전자 혁명, 세상의 경제적/정치적 요동, 세계적 빈곤, 환경 위기 기후 변화 등의 위태로운 현실들을 직시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제자도와 선교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항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그것은 두 부분들로 되어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주요점들을 설명하되,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의 삶과 사역과 선교에 대해 그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을 특별히 조명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들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가르침들을 자세하게 개진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오늘의 세상 속에서 성숙하고 통전적인 신앙 생활과 사역 그리고 선교를 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 교본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로잔 I(로잔 언약)과 II(마닐라 선언)를 많이 개선한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 교회가 지난 23년 동안 이 Cape Town 결의를 실천하려 노력했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서 한국과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일꾼의 역할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he Cape Town 결의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구원의 통치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일꾼이요 군대로 사용하여 어떻게 사단의 죄와 고난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실현해 가시는지의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1) Cape Town 신앙 고백

- 교회에 만연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속적이고 사기적인 “영적 전쟁”의 일탈 행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III.12).
-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초림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룬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 윤리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윤리적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순종’은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자 은혜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했다. 바울의 선교적 목표는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롬 1:5). …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복음이 요청하는 첫 번째 행위들이며,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은 복음 신앙이 성령(성화의 영)을 통해 가능하게 하는 생활방식이다. 이와 같이 순종은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의 생생한 증거이자 열매이다. 또한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시금석이다”(III.18-19).
- “전도 자체는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라고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분께 인격적으로 나아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화해되는 것이다. …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의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내포되기, 그리고 세상에서 책임 있는 봉사를 하기를 포함한다. … 우리는 전도와 사회적-정치적 활동이 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임을 천명한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교리들, 우리의 이웃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들의 총체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III. 21-22 - I.5-6에서의 인용).
- “총화적 선교는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시위이다. 그것은 단순히 전도와 사회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총화적 선교에서는 우리의 선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서로) 사랑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사회적 결과물들을 낳는다는 말이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사회참여는 전도의 효과들을 낳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는 세상에 줄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총화적 선교에 관한 미가 선언 에서 인용. III.22).
- 이 인용문들에 덧붙여, TheCapeTown결의는 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두 사명들을 실행 하라고 요구한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 받고, 제자도의 순종을 하도록 하기”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잡히 여기며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기, 그리고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능력을 시위하기”(III.22)

- 앞의 두 인용문들과 덧붙인 두 실천 사항들 둘 다 전도와 사회적 활동의 통합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강조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로잔 I(로잔 언약)과 II(마닐라 선언)에서와 같이 이곳에서도 그들의 통합을 위한 신학적 근거 제시가 부족하여 때때로 논리전개가 어색하기도 하다. 그것은 이 세 문서들이 모두 그들의 통합을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복음(롬 1:3-4; 10:9-10; 15:12; 고전 15:23-27; 골 1:13-14)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2) 실천 사항들

-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들.
-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평생 동안 제자도를 실천하도록, 즉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리고 일상 생활의 어떤 장이나 환경 어디서나 선교적 효과를 내며 살고, 생각하고, 일하고, 말하도록, 훈련하기”(III.25)*
- *“사회적 가치들의 형성과 공적 토론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의 장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기”(III.27)*
-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인종 박해, 불의 또는 억압에 참여하고, 그런 죄악들을 보고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고 중립적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 자세들에 대해 엉터리 신학적 정당화를 하기도 한 것”에 대해 회개하기(III.29).*
- *“복음이 (삶의 구체적) 정황에 깊이 뿌리내려 그 곳의 근저에 존재하는 (비기독교적) 세계관들이나 불의의 체제들에 도전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사악한 시대가 닥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독교적 신앙고백을 현신짝처럼 저버리고 회심 전의 신념과 행동으로 회귀하기 일쑤다. 제자훈련 없는 복음화, 또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온전한 순종 없는 부흥은 단순히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위험한 것들이다”(III.29)*
 - 나찌 시대의 Deutsches Christentum; 오늘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자들”

II. 더 바르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전도와 사회적 행동을 통합하려는 로잔 운동은 지난 40년에 걸쳐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신학적 근거 제시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떨어지고 때때로 어색한 논리전개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들: (1) 복음에 대한 부족한 이해: 그것을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구원론적 관점에서만 해석하여, 칭의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제사(고전 15:3-5; 롬4:25; 3:21-25)에 나타난 은혜를 믿음으로 덕 입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법정적 의미로만 이해하고 그것의 관계적 의미를 무시함; (2)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최종적 칭의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으로만 이해함; (3) 그리스도의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그의 교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음미하지 못함.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3-4과 15:12의 수미상관으로 제시하는 대로, 보다 근본적으로 신중심적-기독론적 틀로 이해해야 한다: 초대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정의한 “하나님의 복음”(롬 1:1)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어 자신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로 성육신하게 하시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사로 넘겨주시고, 그를 부활시키시어 자신의 우편에 높이심으로써 자신의 주권/통치권을 상속받아 대행하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롬 1:3-4; 빌 2:6-11도 참조)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즉 온 인류가 다윗의 아들/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롬 15:12)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복된 소식인데, 그 안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 (즉 믿어)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되고 (즉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 (“믿음의 순종”, 롬 1:5) 그 나라의 충만한 삶, 즉 영생을 얻으라’ (골 1:13-14) 는 부름 또는 초대가 함축되어 있다. 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적 복음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연속성을 이해하게 되며, 사도적 복음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의 관점에서 새롭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복음을 믿어 얻는 구원을 주로 “칭의”의 그림언어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래 왔듯이 단순히 죄사함 또는 의인이라 인정함이라는 법정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관계적 개념으로,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회복됨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회복되었다는 말은 이제껏 받아 온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 그 통치를 하나님의 영(성령)의 힘으로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근본적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골 1:13-14). 이 주권의 전이(Lordship-transfer)는 죄 용서의 선물과 함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즉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내포한다(롬 1:5; 15:18; 16:26).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는 세 단계들이 있다: (1)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 (과거); (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높이 받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속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만유의 주로서, 땅 위에서 성령(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여 아직도 행복하지 않고 죄와 죽음/고난을 퍼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소탕해가시며(고전 15:23-28)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행복”(즉 하나님 나라의 샬롬; 롬 14:17)을 실현해 가신다(현재); (3) 종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완전히 실현하시며 온 인류와 온 피조 세계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미래).

전통적으로 신학은 이 세 단계들 중 첫 단계,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과, 마지막 단계, 즉 그 구원의 종말론적 완성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구원의 현재 단계는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온전한 전도를 위해서는 교회의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 현재 단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례 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어 만유의 주로 세움 받았다는 복음을 마음 속 깊이에서 믿고, 입으로 “예수가 주이다”고 고백함으로써, 즉 사단을 주로 모시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대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또는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사단의 통치를 받아 지은 죄들을 사면 받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 즉 하나님 나라로 이전되어 구원을 받는다(롬 1:9-10). 이것이 우리의 구원 또는 칭의의 “첫 열매”인데, 이로써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현재 단계에 진입한다.

이렇게 “칭의된” (곧 사면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즉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 속에 계속 서 있어야 하며 사단의 나라 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전 10:12; 롬 5:2; 10:20). 이 말은 이제 일상의 실존에서 세례 때의 이 신앙고백/서약을 실재화 하며 살고 일해야 한다는 말이다(cf. St. George Episcopalian Church in La Canada의 벽에 걸린 “Baptismal Vows” banner). 즉, 우리의 삶에서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이웃을 속이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를 저지르며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을 택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웃에게 진실하고,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길을 택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의 백성 또는 종으로서 불의와 갈등과 고난을 증대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일꾼, 군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하나님 나라의 샬롬; 롬 14:17)을 실현하고 증대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은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실현되는 것들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현재적 열매들인 것이다(“성령의 열매” = “의의 열매, 갈 5:22-24; 빌 1:10; 빌 4:8 도 참조). (구원의 현재 단계의 삼위일체론적 구조와 그것의 실재화의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필자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 123-142 참조; 더 포괄적인 토론과 설명을 위해서는 필자의 책들 칭의와 하나님 나라; 칭의와 성화 참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롬 1:16)으로서, 그것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의 현재적 삶의 여러 영역들, 개인 윤리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의 영역들에서까지 실재가 되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것을 예시하기 위해 필자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109-111)에서 몇 마디 인용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1:3-4과 15:12의 수미상관의 틀 안에서 전개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은혜)을 믿음으로 덕 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에로 회복되게 하심(즉 자신의 통치를 대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전되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심)이라는 기쁜 소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승천의 사건(축약하여 “그리스도 사건”, 롬 1:3-4)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인 온 인류를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해방하여 자신의 의와 생명의 통치로 회복하는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롬 1:1)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그 구원을 덕 입어 “의인”이라 칭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롬 1:16-17).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들 중 하나가 바울이 칭의의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구원을 “은혜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덕 입는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인간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롬 1:16; 3:22-24; 28-30; 10:12-13; 살후 1:10; 갈 3:26, 28).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세상의 불의와 갈등과 불행을 초래하는 온갖 차별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도 부인하고(롬 1:16), 헬라인들(문명인들)과 “야만인들”의 차별도 부인하며(롬 1:14), 더하여 남녀 차별도 부인하고 사회신분적 차별(종과 자유인)도 부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강조합니다(갈 3:28; 고전 7:17-24; 12:13; 골 3:11).

복음 안에 내포된 이 만인 평등 사상은 단순히 바울로 하여금 유대교의 선민 사상을 깨고 열방에 대한 선교를 가능하게 하여 기독교로 하여금 온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가 되게 했을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 있어 남편에 대한 아내 굴종의 문화를 타파하고(고전 7:1-16), 노예 해방의 길을 열었으며(고전 7:21-24; 빌레몬), 인종 차별 해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바울의 칭의론으로 선포된 복음은 이런 차별들이 야기하는 불의와 억압과 착취와 갈등을 해소하고 자유와 정의와 화평과 행복을 가져오는 혁명적 힘을 가진 것입니다. 후대 교회는 때로는 이 복음을 왜곡하여 이런 해방의 복음을 도리어 차별과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는데 오용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복음의 이 해방/구원의 힘이 발현되게 하여 기독교 문명으로 하여금 여성 해방, 노예 해방, 만인 평등원칙에 근거한 민주주의 제도 발전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사단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

치를 받는 것, 즉 주권의 전이를 핵심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이 누릴 안식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와 그것의 열매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현재적 실체인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행복 등을 실현할 힘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회심”(주권의 전이)시키고, 회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agent) 또는 전사들이 되게 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현재적 실체를 확대해 가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복음 선포(전도)는 복음의 이 힘과 기능이 실제로 발현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요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롬 6:11-23; 엡 6:10-20; 요한 계시록). 이와 같이 진정한 복음 선포는 그 자체 내에 회심자들로 하여금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행복 등의 실현에 헌신하라는 요구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요구를 담지 않은 전도는 진정한 복음 선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려 또는 증진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의 세례 때의 서약을 배반하고 “회심”(주권의 전이)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전통 신학은 복음이 제공하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현재적 단계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여, 회심 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가며 그것을 실재화해가는 과정으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회심을 통해 구원 받은 자들의 “성화”의 단계 또는 “기독교 윤리” 실천의 단계로만 이해해왔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기독교적 삶을 개인윤리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현재에서의 존재 방식을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얻을 구원의 완성 과만 연결하여 보았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더러 그것을 사회윤리 차원에서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들도 사회 윤리적 책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현재적 실현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와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막 1:15; 롬 1:1-7)을 받아들여/믿어 사단의 나라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 온 (즉 “회심”한) 사람들은 현재에서 하나님/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치(구체적으로 2 중 사랑 계명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현재적 실체인 자유, 정의, 평화, (만인의) 행복이 증대되게 하여 자신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첫 열매의 형태로나마 누리게 하고 이웃 또는 온 세상도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예: 마 5-7 [산상수훈]; 13:31-33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막 12:28-34/ 롬 12:1-2; 13:8-10 [이중 사랑 계명]; 마 28:18-20 [대 위임]; 고전 9:21 & 갈 6:2 [하나님/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민족들, 온 인류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온 세상에 그 구원이 실현되게 하는 일꾼과 전사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다.

결론

그러므로 한국과 세계의 교회가 지금까지의 로잔 운동을 넘어 더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를 도모하려면

(1)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선포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도에 있어 주된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II.7-8의 문형 참조)라는 식의 인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는 것(회심)은 우리가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실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전사로 징집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단의 죄악과 고난의 통치에 맞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의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할 의무를 내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진정한 제자훈련: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와 같이 제대로 이해하고 믿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치에 철저히 “믿음의 순종”을 하여 위에 기술한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실재화의 일꾼이요 전사로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훈련해야 한다.

오늘 미국과 한국의 다수 크리스찬들, 특히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들”(즉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이들)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전사 노릇을 더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의 일꾼/전사 노릇을 더 하고 있는가? 그들은 특히 각종 선거들에서, Hitler 시대의 Deutsches Christentum의 참혹한 과오를 반면거울 삼아, 경쟁하는 정당들과 후보들의 정강정책, 인품, 능력 등을 살펴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사단의 나라의 가치들을 더 반영하고, 어느 당, 어느 후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더 증진하려 하는가를 면밀히 살펴, 후자들을 지원하여 한다. 그리하여 정치를 통해 사단의 나라의 불의와 갈등과 고난이 증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하나님 나라의 살롬)이 이 땅에 더 크게 실현되게 해야 한다.

[논찬문]

로잔을 넘는 기독교 평신도운동

- 세상 속의 복음, 교회 밖의 신앙¹⁾

(생활인 기반의 평신도신앙운동 - 문제의식과 현황 및 비전)

이병주 _ 평신도신앙실천운동 상임대표

I. 로잔을 넘어서 - 생활인 기반의 기독교 평신도운동을 시작하며

1. 평신도신앙운동의 최근 경과 및 현황

1) 한국 개신교의 주요 사회선교단체들이 함께 하는 로잔너머 심포지엄의 마지막 5회 심포지엄 “로잔 너머, 한국교회는 어디로”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기독교법률가회(CLF)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작년 2023년 8월에 창립한 평신도신앙실천운동(약칭 “평신실”)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주창한 로잔 선언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온 성서한국, 기윤실 등 한국의 기독교 사회선교운동단체들의 분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특히 최근의 2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는커녕 오히려 최근의 명성교회 세습 및 사랑의교회 위법사태 등 주류교단 주류교회들의 추락과 더불어 더욱 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안타까움과 반성의 마음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로잔너머 제5차 심포지엄의 마지막 주제, “로잔너머, 한국교회는 어디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 한국교회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50년 전 로잔선언의 재조명에 그치지 않고 ‘로잔선언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전진을 향한 길을 발

1) 이 글은 2018년 기독교법률가회 전국대회에서 있었던 평신도단체들의 ‘주제연석토론 - 평신도의 길, 세상 속 복음의 길’에서의 토론문을 기초로 하여, 그후 2024년 3월 현재까지 약 6년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온 평신도신앙운동의 성과와 진전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여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견하고 실천해 나가자는 심각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 수년간 제가 속한 기독교법률가회와 좋은교사운동, 기운실, 기독교직장인모임 등 기독교 평신도단체들을 중심으로 ‘평신도의 상상력’ 연합운동이 진행되고 작년 2023년 8월에는 평신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책임지고 추진하려는 ‘평신도신앙실천운동’ 단체의 창립에 이른 “평신도 신앙운동”에 관한 문제의식과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로잔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적 소망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2)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누가회 등 직종별로 조직되어 20년 이상 활동해 온 평신도 신앙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평신도단체들은 한편으로는 기운실과 성서한국운동에서 분화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으나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신실한 평신도들이 창립 리더들이 되어서, 단체들 간에 신앙적인 열정이나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서로 비슷한 연대의 감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개별 직종단체 활동만으로는 기독교인 신앙인으로서의 ‘각론’적인 책임은 일부 충족할 수 있어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총론’적인 책임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8년 하반기 경에 평신도단체들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평신도신앙의 분발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총론적’ 평신도연합운동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2018년 말 이후 현재까지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기운실, 기독교직장인모임 등 평신도 신앙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평신도의 상상력(약칭 “평상”)’이라는 이름으로 평신도연합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상반기 4월과 6월에 두 차례 ‘평신도의 상상력 연합토론회’를 진행했고, 2019년 하반기에는 5개 단체 60명 정도의 리더들이 모여서 ‘평신도단체 공동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겨우 ‘대구지역 코로나 공동지원 모금활동’으로 연대활동을 이어갔고, 2020년 하반기에는 김세운 박사를 모시고 평신도리더들을 위한 ‘평상 기독교신학강좌’를 2주 30시간 과정으로 진행했으며,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매월 1회 토요일 저녁에 평상 기독교시민 월례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신도운동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진지한 평신도들에게 ‘신학적 사고능력’의 계발과 ‘평신도신앙실천’의 이론적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한계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2022년에는 (i) 2022년 2학기에 평신도리더들의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을 위한 ‘평신도신학석사과정’을 신설해서 2024년 1학기 현재 마지막 졸업학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ii) 2022년 2월과 9월에 두 차례 대중적인 성격의 기독교시민 대학 강좌를 ‘돈’과 ‘교육’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iii) 2022년 10월-11월에는 한국교회의 신학자들과 평신도 원로 및 활동적인 리더들이 함께 강의하면서 평신도신앙운동의 조직화와 상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평신도신학교’ 강좌(7주 7강)를 만들어 90명 정도의 평신도리더들이 함께 진행했으며 2023년 가을에는 제2회 평신도학교 구약사경회 김희권 교수의 구약성서 신학 강의(10주 10강)이 130여명의 평신도 리더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신도신앙운동의 필요성과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

는 핵심적인 리더들이 모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2023년 8월 26일 “세상 속의 복음, 교회 밖의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평신도운동단체인 “평신도신앙실천운동(약칭 ‘평신실’)을 20여 명의 평신도 창립회원 겸 실행위원들이 김세윤 박사를 신학지도위원으로 모시고, 구교형 목사(성서한국 이사장), 정병오 선생(기운실 상임공동대표), 조성돈 교수(기운실 공동대표), 현승호(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정태 선생(좋은교사운동 전 공동대표), 한병선(기독교직장임모임 간사), 전재중 변호사(IVF 전 학사회장)를 자문위원으로, 기운실,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기독교직장인모임, 건강한작은교회연합(“건강연”)을 협력단체로 하여 창립되는 새로운 출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질문: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는 한 십년 전부터 기독교법률가회의 리더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평신도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평신도운동의 내용과 이론과 실천방향에 대해서 동료들과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신학교에서 잠깐 공부도 해보고, ‘평신도의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평신도운동에 대한 책도 내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의 신앙 여정과 신앙적 고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내가 문득 저에게 “당신이 하는 얘기들은 다 좋고 맞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고 정색을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돌직구처럼 정확하게 날아오니까, 저는 그때 막상 “어버버” 하면서 구체적으로 즉답을 하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신도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2018년 여름 기독교법률가회 전국대회의 주제는 ‘평신도·복음·개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대회에서 좋은교사운동, 기운실, 누가회, 기독교법률가회 등 평신도단체의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했던 ‘주제연석토론’의 제목도 ‘평신도의 길, 세상 속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평신도의 길, 세상 속 복음의 길’, 이런 명제와 관련하여 여러분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질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 자신과 우리들 모두에게 똑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속의 복음, 교회 밖의 신앙, 평신도운동 다 좋은 말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이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1) 1차적으로는 저나 주변의 다른 평신도 동료들이 그동안 자기의 직장이나 평신도단체 등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밖의 평신도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2) 다음으로는 그러면 ‘세상 속의 복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원리들을 담고 있으며 답아야 할지 그 골자를 구상해 본 후, (3)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기독교 평신도운동’의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현실적인 실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II. 구체적인 평신도신앙운동의 경험

- ‘교회 속의 신앙’과 ‘세상 속의 신앙’ 사이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은 사람의 생활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평신도 동료들의 구체적인 신앙 경험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자(初心者) 평신도로서 ‘초월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복음의 일반 원리를 배우는 과정 (“교회 속의 복음”)', 둘째는 경력직(經歷職) 평신도로서 ‘사적으로 먹고 사는 직장 생활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제 인생에 적용하며 씨름하는 과정 (“생활 속의 복음”)', 셋째는 경력직 평신도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갈등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객관적인 의미와 능력을 해명하고 실현하는 과정 (“세상 속의 복음”)'입니다.

1. ‘복음 없는 세상’에서 ‘교회 속의 복음’으로

- 초심자 평신도의 교회 속 신앙생활

저는 원래 30여 년을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던 직업적 무신론자였습니다. 10대에는 물리학자가 되려는 자연과학적 무신론자였고, 20대에는 여러 해 동안 사회운동에 참여하던 사회과학적 무신론자였는데, 30대 초반에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의 사회운동을 그만두면서, ‘세상의 길, 인간의 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깊게 절망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던 인생의 이상과 소망이 다 없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생업을 갖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고, 아내에게 반해서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거기에 상당히 두려운 자가면역 질병의 위협을 거쳐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후, 인생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겠다’는 복음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일이니 그 후로 교회를 열렬하게 다니는 예수쟁이로 산 것이 이제 20년쯤 됩니다. 2001년도에서 2006년경까지 한 4~5년 정도, 이 기간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새찬송가 288장). 초심자 평신도로서, 인생의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내공(內功)과 초식(招式)들이 곳곳에 들어있는 성경의 구절구절이 매일매일 즐겁고, 새로 배우는 교회생활과 친절한 성도들의 교제도 다정하고, 다니는 교회의 예배나 성경공부에도 매주 2-3회 출석하고, 여러 교회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2시간씩 듣고, 하루 종일 찬송가만 들으면서 살고, 새로 시작한 기도와 신앙체험도 황홀한, 그런 초심자 신앙생활, 하나님의 초심자 프로모션 기간이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언급들이 내 생각의 결과 달라서 문득문득 부대끼기도 했지만, 내가 이미 실망하고 버린 세상의 일들에 대한 나의 이전 생각들을 그리 확신하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접어두고 새로 배운 복음과 신앙을 익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초심자 평신도 시절에 나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신자로 받아주고 신앙의 기본원리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었다면? 내 개인의 혼자 노력으로는 신앙으로 이끌리기도 어렵고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교회 속 신앙'과 '세상 속 신앙'의 병행

- 교회에서 배운 복음을 가지고 '생활 속의 복음'으로

1) 경력직 평신도와 교회 신앙생활의 한계

- 신앙적 주체성의 제한 내지 결여

2006년 중간쯤 갑자기 초심자의 약발이 푹 떨어지면서, 찬송가만 듣고 성경만 읽던 신앙의 황홀경이 현격히 줄어들고 유행가도 은혜스럽고 드라마도 너무 재미있는, “구속한 주도 보이지만, 세상과 나도 다시 돌아온” 그런 정상인의 상태가 돌아왔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남성 셀리터 등 교회에서 맡아 하는 일들에는 훨씬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지만, '초심자 평신도'의 몇 년간 흥분상태는 가라앉고 이제 '경력직 평신도'로서 교회생활이 담담해지거나 서서히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즐거웠던 교회생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부정적인 깨달음이 생기고 한 가지의 긍정적인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답답한 느낌 중의 하나는 ① 이제는 교회의 예배나 설교가 한 사이클 정도를 돌아서, 교회에서 한 단계 넘어 새롭게 배우는 신앙의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내가 교회의 생활에 꽤 충실한 평신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활동은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는 ③ 세상과 직장에서 쫓기며 살다가 교회에 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신앙적 은혜들을 주워먹으면서 영적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때 제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했었다면? 신앙적인 시험에 들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초심자 평신도의 황홀기는 지났지만 아직 경력직 평신도로서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나 열심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① 교회에서 언젠가 들어본 일이 있는 것 같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저의 신앙적 열의와 신앙적 발전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② 제가 매우 성실하고 열심인 평신도 일꾼이면서도 교회의 움직임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려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고 스스로 '착한 평신도의 마음을 먹게 된 것'은 그 이면에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가르치는 기관이지,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무엇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구나'라는 착잡

한 깨달음의 실망감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제가 '초심자 평신도로서 엄청난 은혜와 많은 신앙적 도움을 받았던' 교회는, 이제 내가 '경력직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의 일을 하는 목회의 협력자가 될 수는 있으나', 내가 신앙의 주체로서 무엇을 더 하거나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 생활 현장에서의 신앙모임

- 경력직 평신도의 '개인적평신도운동'

이 시기 이후 제가 신앙의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생활에도 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도 제가 '교회 밖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제가 다니던 법률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매주 진행한 성경공부 신앙모임이고, 그 둘은 엄청 열심히 믿는 변호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독교법률가회 활동에의 참여였습니다.

사실 저의 신앙생활 경험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매주 수요일 점심에 진행했던 성경공부 신앙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바로 이 신앙모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생각까지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신우회나 직장선교회가 전도폭발이나 일대일 성경공부 같은 '초심자 평신도' 중심의 전도 내지 선교활동을 위주로 하거나, 목회자를 초청해서 직장에서 드리는 직장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회사의 신앙모임에서는 외부 목회자를 모시는 방식이 아니고 직장의 '경력직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선후배 직장 동료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직장의 생활현장에서 겪는 갈등과 고통과 시험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풀어나가는 일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직장신앙모임의 가장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면 회사에서 나누는 것은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업 현장의 신앙모임에서는 교회에서 배우는 추상적 복음의 원리가 세상과 인생의 현실에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복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i) 회사에서 일용할 양식과 이익을 나누는 싸움으로 서로 갈등할 때 내가 할 일을 잘 해내고 바보같이 당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는 법(주기도문 제4청원), (ii)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선후배 동료를 이해하고 용서하거나 때로는 대항해서 싸우는 법(주기도문 제5청원), (iii) 직장에서 발생하는 세상적 원리로 인한 시험과 공격으로 괴로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원리로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성경적인 원리를 써서 직장상사와 세상을 시험에 빠뜨리는 법(주기도문 제6청원), (iv)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이면서 동시에 먹고 사는 일에 무심하게 일하는 법 등을 함께 깨우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배우거나 구체적으로 토론하기에 쉬운 주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나 우리들이 항상 착하고 불쌍하고 당하는 피해자에 채권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나나 우리들이 사실은 못되고 약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시험에 들게 하는 가해자에 채무자인 경우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와 직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생활의 단위이므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매달 매년 그 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크고 본질적인 사무이자 지속적인 쟁점입니다. 세상에 이것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직장과 그저 착한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직장은 천국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00% 움짱달짝 못하는 완전한 지옥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장과 생활현장에서의 신앙모임은 ‘기독교 신앙이 치열하게 먹고 사는 사적인 경제생활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힘을 쓸 수 있는가?’를 신앙적으로 탐구하고 현실적으로 깨우쳐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자리 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면에서, 교회의 신앙모임은 그 교회를 주관적으로 선택해서 출석하는 사람들의 임의적인 모임으로 ‘공동체의 주관성(主觀性)’이 강하다면, 회사의 신앙모임은 직장에 객관적으로 함께 취직해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임으로 ‘공동체의 객관성(客觀性)’이 더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① 제가 초심자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교회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었던 기간이 믿음의 기초를 쌓는 ‘신앙의 초등교육’에 해당했다면, ② 경력직 평신도로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활현장의 현실적 문제들을 성경적 원리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교회에서 형성한 신앙의 기초 위에 구체적인 신앙의 삶과 뼈와 근육을 형성하는 ‘신앙의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과 삶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겠으나, 저는 진지한 경력직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자기 생활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직장이나 지역이나 학교나 자기가 속한 객관적인 생활단위에서 신앙을 적용하는 성경모임이나 기도모임 같은 신앙의 활동공간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하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인) ‘신앙의 소비자(消費者)’라는 성격이 강하다면, 평신도가 하는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에는 스스로 (적극적인) ‘신앙의 생산자(生産者)’가 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평신도가 하는 교회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수동적(受動的)인 학생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라면, 평신도가 하는 현장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능동적(能動的)인 주인공으로서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 이 시기에 경력직(經歷職) 평신도로서 ‘교회의 신앙생활과 사회의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신앙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둘 중 하나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비교적 편안하게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직장에서 나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내 신앙의 모양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셀모임이 잘 안되면 직장의 신앙모임이 잘 되고, 직장의 모임이 잘 안 되면 교회의 모임이 잘 되어서, 한쪽에서 낙심할 때 다른 쪽에서 격려를 받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교회에만 100%의 신앙열정을 쏟아 부었다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생겼겠지만, 교회에 50-70% 정도의 신앙열정을, 직장의 신앙모임에 30-50%의 신앙열정을 나누어 쓰는 것에는 대충 모자라지도 넘치지는 않는, 너무 수동적이거나 너무 능동적이지도 않는, 신앙적으로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이 잡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 직장 신앙모임의 한계(限界)

-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적당히 멈추거나,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이후에 제가 기독교법률가회 활동 등을 더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것에 비추어보면, 직장 신앙 모임을 통한 신앙의 실천에는 그 리더들이 신앙의 중등교육 수준에 도달한 후 거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게 되는 한계와, '내가 아주 잘 믿는 훌륭한 평신도'라는 만족감에 빠져서 더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경력직 평신도의 영적 자만'으로 신앙을 그르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평신도 직장신앙운동의 모범사례로 알려졌던 어느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억압하는 기업으로 비판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쪽으로도 열려있고 나쁜 쪽으로도 열려있는 평신도 직장신앙운동의 개방성과 불확정성이 내포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기 삶의 현장에 집중하는 직장신앙운동 형태의 미시적(微視的) 평신도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세상 속 복음'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거시적(巨視的) 평신도운동과 함께 할 때에만 중국적 탈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 이러한 현장의 신앙모임은 잘 되면 좋지만 잘 안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장이나 주변 직장의 사람들을 모아도 몇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모은 사람들이 잘 안 모일 수도 있고, 모여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이나 생업의 일에 찌들리고 억눌러서 이런 일을 아예 할 의욕이 안 날 수도 있고, 여기에 직장이나 현장의 신앙모임을 한다는 일 자체가 이미 무거운 인생에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모이는 직장의 동료나 선후배들이 꼴도 보기 싫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안 돼도 이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육체로 숨을 쉬며 사는 일과 돈을 벌어먹고 사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일과 마찬가지로, 내 신앙의 숨을 쉬는 생명활동과 내 신앙의 피를 돌리는 신진대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직장생활에 대해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직장 신앙모임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임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실패하고 상처를 주고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버티면서 진행하거나, 힘들면 적당한 때에 쉬었다가 적당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걸음마를 하지 않고는 뛰어다닐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걸음마를 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신앙의 걸음마를 하다가 여러 번 넘어지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의 리더가 되었을 때에 신앙적 자신감으로 함부로 움직이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 곧 '기독교 신앙의 성육신'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그대로 계셨으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복음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어렵고, '교회에서만 기록하고, 인생에서는 욕망과 죄에 따라 살아가서 죄송합니다'는 동일한 고백의 반복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생하며 씨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옷을 입고 답답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씨름을 해나가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3. ‘교회 속의 복음’에서 ‘세상 속의 복음’으로

- 세상 속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향해

(개별 평신도신앙단체 및 그 너머 - 경력직 평신도들의 ‘조직적 평신도운동’)

1) 평신도신앙단체의 집단적이고 공적인 신앙책임

제가 평신도 신앙단체인 기독교법률가회(CLF)를 처음 소개받아 만난 것이 2006년 성서한국대회 때이고,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제1회 기독교법률가회 전국대회 때입니다. 처음 기독교법률가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명색은 변호사인데 하는 짓은 목사님 이상 가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한편으로 껌뻍 기가 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 교회에서는 이 일 저 일 다하고 직장에서도 신앙모임을 이끌고 해서 나름 의미 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심의 자만심이 있었는데, 기독교법률가회 변호사들을 보니 ‘어이쿠, 내가 이 정도로 잘 믿는다고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라고 겸손해지면서 상당히 강한 신앙적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이 저의 ‘개인적 평신도운동’이었다면, ‘기독교법률가회 활동’은 저에게 ‘조직적 평신도운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기본 원리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適用)’하여 그 내용을 ‘심화(深化)’하는 것이었다면, 기독교법률가회를 통한 신앙의 고민과 탐구는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신앙의 내용을 새로 ‘탐구(探究)’하고 실천적으로 ‘생산(生産)’해 나가는 새로운 신앙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i) 초심자 평신도로서의 교회 신앙생활이 믿음의 기초를 쌓는 ‘신앙의 초등교육’ 역할을 했고, (ii) 경력직 평신도로서의 직장 속 신앙생활이 인생 속에 신앙을 구체화하는 ‘신앙의 중등교육’ 역할을 했다면, 경력직 평신도들의 조직인 기독교법률가회에의 참여는 신앙과 세상과 인생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해명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신앙의 고등교육’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법률가회가 저에게 새롭고 더 적극적인 신앙적 과제와 고민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조직이 그리 크지도 않고 제도교회처럼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 한국의 기독교법률가들의 신앙적 의무와 책임을 / 집단적으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공적(公的)인 신앙책임의 자리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독교법률가, 즉 교회를 다니는 법률가 한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본다면 다 생업과 생존의 상황에 억눌려 답답하게 몸부림치거나 또는 경쟁과 자기자랑의 갈증에 취하여 우쭐거리는 연약하고 한심한 처지를 면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다짐과 책임 아래 모여서 생각과 일들을 나누니까 우리는 ‘혼자 쓰러져서 한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년 기독교법률가회의 전국대회와 주간 목요모임과 기타 토론모임 등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교회의 신앙생활에서는 무관심하거나 서로 얘기하기 곤란해서 덮어둘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 개인적인 현장의 신앙생활에서는 다룰 의지나 힘이 모자랐던 문제들이 다시 본격적인 신

양의 질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법(법률/재판)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라는 기독교 법률가회의 고유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사회/정치)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라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보편적 질문이며, 마지막 하나는 경력직 평신도로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교회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2) 법(법률/재판)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

저는 먼저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얻은 후 처음 제가 느꼈던 제 직업에 대한 느낌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돈 싸움을 거들어주고 개평을 받아 사는 변호사의 일’은 가장 세속적인 욕망을 다루는 직업으로 기독교 신앙의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하니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 일은 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나에게는 신앙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적당한 때가 되어 이 직업을 떠날 수 있게 되면 떠나자.’ 이것이 직장 일을 하다가 신앙을 가진 처음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직업에 대한 허무한 생각은 한편으로는 거꾸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맨날 ‘내 인생에서 이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도 잘 답이 안 나와서 계속 갈등했었는데, ‘직업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직업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비우게 되니, 변호사 직업의 의미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고 오히려 직업의 일에 집중하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① 재판업무의 신앙적 의미 - 의뢰인의 영혼의 위기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서서히, 의외로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나 민사재판의 분쟁 당사자가 된 사람은 인생의 심각하거나 처절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신체의 구속과 처벌의 위기나 재산 상실의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자기자신에 대한 회한, 선악의 판단과 소송의 승패에 관한 불확실성이 주는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 자기의 운명을 제3자인 법관에게 맡기고 자기는 심판대 위에 벌거벗고 올라서 있어야 하는 인생의 무기력감은 형사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를 영혼의 실존적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들이 사후의 ‘최후의 심판’이 무서워서 기독교 신앙에 귀의를 한다면, 재판에 걸린 사람들은 생전의 ‘현실적 심판’이 두려워 별별 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직업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잘 쓰면, 의뢰인들을 객관적인 위기에서 (현실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처한 영혼의 위기를 (가능한 한) 극복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도와주는 ‘영적 의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의 일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현실 속의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원해 주고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 변호사 일을 잘 못하면 악과 욕심의 도구가 되지만, 변호사 일을 잘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돈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법률가 직업의 신앙적 의미 내지

보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제 직업과 생업에 대한 신앙적 허무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 업무를 통한 신앙적 사명감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기독교법률가들은 물론 모든 법률가들이 가지는 신앙적 및 사회적 책임이자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직업과 직장을 통한 신앙적 접촉면 - 삶의 현장이 목회이고 현장의 이웃이 나의 이웃이다 여기에 연결해서 저는 법률가로서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접촉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확 믿음으로 넘어온 초심자 시절에 곧바로 신학교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수세 후 (세례 받은 후) 5년'이라는 소속교단 신학대학원의 지원요건에 포기를 하고 그냥 변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제가 뒤늦게 목회자가 되어 사람들을 부르는 것보다 제가 일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무슨 일어든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더 현실적인 목회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객관적으로 만나는 동료들과 객관적인 업무로 만나는 사건의 의뢰인들은 모두 내 이웃이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더 솔직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눌 상대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직장과 현장을 떠나서 다른 이웃을 모아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직장과 현장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만나는 바로 그 '객관적인 이웃'들과 얘기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나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경력직 평신도들이 자기의 일하는 자리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러면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직장의 의미도 달라지고 직업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 생업에 매인 평신도에 불과하니, 하나님한테 해 드리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거의 모든 직업과 직장은 자기의 생계를 위한 '자기사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이웃을 만나고 그 이웃을 해치지 않고 그 이웃을 가급적 도와주는 객관적 '이웃사랑의 공간'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웃이 함께 서는 '하나님 사랑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법률가회나 좋은교사운동이나 누가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장에서 경력직 평신도들의 현장 신앙모임들이 일어나고 거의 모든 직업과 생활분야에서 기독교동자회, 기독교직장인회, 기독교엄마회, 기독교언론인회, 기독교기술자회, 기독교과학자회, 기독교예술가회 등 기독교인들의 집단적 모임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라도 혼자서는 길이 없지만, 누구든지 함께서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법률, 계약, 경제활동 및 직업들 속에 들어있는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본원적 긴장과 갈등

저희 기독교법률가회는 이런 맥락에서 '믿음과 법률'의 관계에 대한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법/법률/재판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더 연구와 토론을 진행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법률은 영어로는 똑 같은 법(law)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법률의 문제는 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복음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law)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법률가들이 생업으로 다루는 법률(law)은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복음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교회에서는 법을 잘 다루지 않고, 그 결과인지 심지어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은 법을 잘 안 지키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grace)를 통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세상이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것은 법(law)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민법의 물권(소유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민법의 채권채무로 타인(이웃)과 사랑(물건과 서비스)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형법으로 서로의 생명과 생활을 보존하고, 헌법과 공법으로 사회의 이웃과 집단적으로 함께 다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재판관을 통해 세상의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분별하고 폭력적인 다툼을 제어합니다. 여기에는 하나하나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은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과 자기사랑 중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모든 충돌과 다툼과 협력은 ‘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복음은 일반적으로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법을 추방하거나 법을 구원받은 교인들이 가급적 착하게 사는 문제 정도라고 축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그에 버금가는 이웃사랑을 함께 요구하는 이중계명의 복음(마태복음 22:37-40)은, ‘하나님 사랑의 원리인 은혜(grace)’와 함께 ‘이웃사랑의 제도적 통로인 법(law)’에 대한 이해와 묵상과 실천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는 법(law)을 많이 연구하지 않으니,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법률가들에게 세상의 법(law)을 신앙적으로 씹고 소화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 합류시킬 신앙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넘길 수 없으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과 직업에는 이중계명의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들이 들어있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업에는 사람들의 의식주를 제공해서 나의 생존(자기사랑)과 이웃의 생존(이웃사랑)을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고, 운송과 의료업 등 모든 서비스 업종은 타인을 도와서(이웃사랑), 그 대가로 나를 먹여 살리는(자기사랑),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종합체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자기만 사랑하면 서비스가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하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집단적 자기사랑들이 집단적인 이웃사랑의 요구와 갈등하고 힘약하게 부딪치며 서로 조정을 하는 과정이고, 교육은 한 세대의 삶이 다음 세대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당하면서, 그 주체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기사랑의 강력한 초조함과 이웃사랑의 빈약한 당위 사이에서 몸부림치면서 갈등하는 장입니다.

한 가지 명제는 이처럼 모든 직업이 자기사랑과 함께 이웃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다른 한 가지 명제는 어느 직업도 100% 거룩한 ‘이웃사랑의 장’으로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대체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자기사랑이 1차적인 동기이고(소득과 생계), 그 자기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으로 이웃사랑이 결합되거나(예: 서비스업), 자기사랑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이웃사랑이 전제를 하거나(예: 상거래질서 및 법제도), 집단적 자기사

랑들이 서로 이웃사랑의 이름을 혼합하여 밀고 밀립니다(예: 정치적 경쟁 및 경제제도). 그러나 각종 직업과 인간 활동을 긍정적인 선으로만 보는 것도 오해이고 부정적인 이기주의로만 보는 것도 오해입니다. 자기사랑의 폭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기사랑 속의 악을 알아야 하고, 이웃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대계명은 직업과 세상의 인간 활동 속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세상에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고(자기사랑), 교회에서는 나와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자기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혼합),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구제의 자선을 행하는 정도(부분적인 사적 이웃사랑)’로 생각하며 실천합니다. 그 결과는 세상과 직업의 분야는 ‘자기사랑’이 압도하는 영역으로 그냥 방치해 버리고 ‘이웃사랑’은 완전히 임의적인 부업으로 처리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도 자기만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사랑의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의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일을 ‘해명’하고, ‘발견’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독교법률가들은 법과 신앙과 세상의 관계를 해명하고, 법의 이웃사랑으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법이 오로지 당사자와 변호사의 자기사랑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회개해야 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직업 속의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를 해명하고, 자기 직업을 통한 이웃사랑의 길을 발견하고, 자기 직업을 통한 자기사랑의 열망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학부모들은 자녀 사랑 속에 들어있는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를 해명하고(부모를 위한 사랑 vs. 자녀를 위한 사랑/ 자기 가족을 위한 노력 vs. 사회 전부를 위한 노력), 자녀교육 과정과 결과의 긍정적인 점을 발견하며, 자녀교육 과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 속에 극단적으로 농축되어 우리들의 이기심과 초조한 욕망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3) 세상(사회/정치)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

① 기독교인들의 딜레마

기독교인들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인이 될 때에는 인생과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고, 인생과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에 비하여 가치가 없고 무상하다는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곧바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해탈한 사람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만 거룩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면서 분투하고,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부딪치고 거칠게 다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여기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주관적으로는 세상을 이미 초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객관적으로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계속 아등바등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관적인 기독교 신앙’과 ‘객관적인 세상의 삶’ 사이의 커다란 간극이 계속적인 고민과 갈등과 혼란과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으로는 ‘초월적(超越的)’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직장
 과 가정에서 자기와 가족들의 ‘사적(私的)’ 생존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집단적으로는
 사회와 국가 속에서 계층적인 이익과 공동체의 존립을 함께 추구하는 ‘공적(公的)’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① 초월적인신앙과 ② 사적생활과 ③ 공적활동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① 초월적인 신앙이 ② 사적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QT 생활을 넘어 앞에서 말씀드린 직장 및 생활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① 초월적인 신앙이
 ③ 공적 시민의 사회정치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회에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공적 생활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두 개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는 ‘기
 독교 신앙이 도대체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원천적인 질
 문이고, 둘은 ‘기독교 신앙으로 사회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원리는 존재하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②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정치나 사회문제를 얘기하지 말자’는 ‘경건주의적 무관심’ 또는
 ‘현실주의적 회피’가 있습니다.

‘경건주의적 무관심’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뿐, 세상이나 사
 회의 문제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제일의(第
 一義)로 하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상 경건주의적 태도의 원칙적 하나님 강조를 부인하거나 부정
 할 수는 없지만, 이 태도에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편식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태도로 일관한다면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 으뜸 계명인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되
 고 버금계명인 이웃사랑은 지워도 되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 전반부 3개의 하나님
 기도만 있으면 되고 후반부 세 개의 인생기도는 암송할 필요도 없으며, 십계명도 첫 번째 돌판
 의 하나님 계명들(1-4계명)만 있으면 되고 두 번째 돌판의 인생계명들(5-10계명)은 필요가 없
 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임의로 더해해도 안 되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사
 람의 마음대로 지우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점(요한계시록 22:18-19)을, 세상에 대한 경건
 주의적 무관심은 스스로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현실주의적 회피’는 개별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
 면, 각자 다르게 가진 정치적 보수와 진보 또는 중도의 소신들이 부딪쳐서 아주 불편하고 거북
 한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곤란 때문에 발생합니다. 교회생활의 현실상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
 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교회의 현실적 제약이지 기독교 신앙의 한계가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개별교회가 신앙의 사회적, 정치적, 공적 맥락에 관한 토론을 하기에 부적절한 공간
 이라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 신앙의 사회적, 정치적, 공적 의미에 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새로 장만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 기독교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이나 평

신도신앙실천운동 같은 평신도대중단체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적 경제생활을 하면서, 공적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고민’을 공유하는 경력직 평신도들 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회의 부담을 걱정할 필요 없이 기독교 신앙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토론하기에 적절하고도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③ 기독교 신앙으로 사회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원리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제13장의 ‘권세에 대한 순종’을 주장하고, 역사 속에서 로마서 제13장은 세속적인 독재정부들이 가장 애용해온 성경구절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한편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아모스서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구약의 예언자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이 또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강조하며 헌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진보진영의 의제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는 도전을 받곤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사회정치적 문제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놀랍기도 하고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의 기독교인들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의 기독교인들 간에 존재하는 대립과 적대감정이 일반 사회의 정치적 보수진영과 정치적 진보진영 간에 존재하는 대립과 적대감정 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깊고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의아하면서도 거북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간의 신앙적 공감대보다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일반적인 정치적 보수주의자들 정치적 공감대,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과 일반적인 정치적 진보주의자들 간의 정치적 친근성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자체에 대한 허무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치와 무관하다는 생각은 한편으로 ① ‘종교적 정숙주의’처럼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를 낳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② 신앙은 하나의 신앙을 갖되 세상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앙과 결부시킬 필요 없이 각자 자기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양심껏 주장하고 실천하자는 ‘분리주의적 처방’을 낳기도 합니다. 전자는 성경의 강령 중 으뜸가는 하나님 사랑만 붙잡고 버금가는 계명인 이웃사랑과 인생기도와 인생계명들을 모두 사문화(死文化)시키는 ‘성경 축소’의 잘못을 가지고 있다면, 후자는 일견 (신앙을 정치에 오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차선책으로서의 장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과 개인 간’에만 작용하고, ‘하나님과 세상,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복음 축소’의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인간의 불의를 너무 깊이 묵상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오히려 세상의 악을 용납하고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불의를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는 신앙적 태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사회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의 정의를 강조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궁극적

불의와 한계를 망각하기 쉬운 신앙적 이완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자기사랑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웃사랑의 정의감과 자기부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냉담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웃사랑의 정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인생의 표면에서 또는 그 심연에서 규정하는 자기사랑의 강력한 힘을 무시해서 일을 그르치는 잘못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무시하고 자기사랑만을 추구하는 정치적 보수주의가 통제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의 없는 욕망의 이생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나머지 자기사랑의 본성을 억압하는 정치적 진보주의가 지나치면 이 세상은 표면적인 정의가 이면(裏面)적인 불의에 무너지는 정의의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사랑과 욕망의 한계를 모르는 보수주의와 이웃사랑과 정의감의 한계를 모르는 진보주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불의'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불의한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불의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불의를 망각'하기 쉬운 위험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기독교적 모순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인간이라는 점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제1계명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불의한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가하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죄와 악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웃사랑의 제2계명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공간으로서는 하나님사랑의 '교회'와 이웃사랑의 '사회'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기본요소로서는 인간의 '본성적 죄악(sinful nature)'이 가진 절망성과 사람 속의 '하나님 형상(Image of God)'이 가진 소망의 가능성을 함께 인식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사회적인 보수주의나 사회적인 진보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힘과 세상의 고민 속에서 창출된 지혜들을 함께 연결해서, 세상 속의 복음, 기독교 신앙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4. 경력직 평신도로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교회의 한계와 문제점

'기독교 신앙(信仰)'과 '인간(기독교인)의 현실(現實)' 사이에 큰 괴리(乖離)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신앙은 '강(強)'하지만 실천되는 신앙은 '약(弱)'합니다. '교회'는 좋은 나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존재와 신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교회지도자들의 윤리적 실패나 교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신앙의 내용에 커다란 공백(空

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두 번째 돌판’의 실종(失蹤)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겨 주신 십계명에는 두 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의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은 가정생활(5계명-부모와 7계명-부부), 경제생활(8계명-절도와 10계명-탐심), 그리고 정치적·법적 생활(5계명-살인과 9계명-거짓증거)로 분야를 나누어 ‘세상’과 ‘인간’의 ‘현실’에 관한 모든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굳이’ 두 개의 돌판으로 나누어 새겨주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돌판’에 버금가게 ‘사람의 세상에 관한 두 번째 돌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력직 평신도의 인생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위에 함께 서서 오고 갑니다. 초심자에 대한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직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반복되는 첫 번째 돌판의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력직 기독교인들이 부딪치는 세상의 벽과 인간의 한계를 파악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안과 밖에서, 두 번째 돌판의 신앙, 즉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별교회에서는 경력직 평신도들을 위한 ‘두 번째 돌판 위의 신앙’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비전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이 문제를 주된 책임으로 다루기 어려운 객관적 한계가 있습니다.

평신도의 범주를 분석적으로 구분하자면, ‘초심자의 신앙적 상황과 경력직 기독교인, 경력 신자의 신앙적 상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평신도들은 물론 목회자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교회의 개혁은 물론 제도교회와 평신도신앙운동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롭게 믿음을 가진 초심자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해방감을 경험하고, 세상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쉬라는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요(人生苦海), 불타는 집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우리 인생의 실상을 알게 된 사람에게 이 탈출과 평안과 안식은 실로 구원의 복된 소식(福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자기의 힘으로, 허공 중의 줄타기를 하듯 불안하고 고독하게 살던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러나 인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고통과 고독과 불안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초심자의 시기는 무한정하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젖을 떼야 합니다.²⁾ 신앙적으로도 어른이 되면 학교를 졸업하고 하산(下山)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첫 번째 돌판으로 넘어가는 구원의 기쁨을 맛본 후로도, 몇 십

2) 히브리서 5:12-14 “12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년 동안 이 땅에서, 두 번째 돌판의 세상 속에서, 일하고 먹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사랑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초심자의 감격을 벗어난 경력직 기독교인들은 두 개의 돌판을 모두 가지고 살면서, 첫 번째 돌판의 일도 해야 하고 두 번째 돌판의 일도 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오늘의 제도교회에는 두 가지의 한계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력직 기독교인들의 신앙실천 과목이 첫 번째 돌판의 것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서 두 번째 돌판의 세상과 인생에 관한 신앙실천 과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기독교 신앙실천의 모습이 '초심자 위주의 신앙'으로만 집중되고, 경력직 기독교인(교회 일꾼)들은 초심자의 신앙을 위해서 활용되는 신앙도우미적 역할에 멈추어서서, 정작 경력신자들 자신의 신앙적 고민은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정체되는 소외현상을 광범위하게 겪고 있습니다. 경력직 평신도는 마치 교회라는 학교에서 신입생들의 공부를 돕는 선배와도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들은 신앙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지를 않고, 계속 교회에만 붙어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 신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배우거나 요구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경력직 기독교인들 내에서 적극적 신앙역량의 배치가 공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 결과 첫 번째 돌판(교회)에서의 신앙 일에 과다한 역량이 투입되고 두 번째 돌판(세상)에서의 신앙 일에는 역량의 공백, 관심의 공백, 이론과 실천 상의 공백을 낳고 있습니다.

신앙적 헌신과 봉사의 길을 놓고, 초심자 단계를 지난 경력직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생활방식으로 갈라집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와 세상에서 일하는 '경력직 평신도'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는 첫 번째 돌판 위의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일하는 평신도는 두 번째 돌판 위의 인생을 삽니다. 일반적으로 좀 더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와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나 해외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되고, 상대적으로 열심이 적거나 신앙적인 투신을 각오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경력직 평신도가 됩니다. 그 결과 신앙역량의 배치상 중요한 왜곡과 불균형이 이미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의 장군과 장교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 모여 있고(첫 번째 돌판), 거대한 규모의 신앙의 사병(士兵)들은 장군과 장교 없이 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두 번째 돌판).

교회에서 일하는 신앙의 일꾼들과 세상에서 일하는 신앙의 일꾼들은, 배치와 임무와 부대와 병과와 특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장교들은 세상에 있는 사병들을 교회로 불러서 교회 일을 시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장교들은 (자기의 병과나 주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신앙적 전투에 대한 지식이나 방법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병들은 세상에 장수가 없으니 세상에서 신앙으로 싸우지 못하고, 신앙의 장수가 있는 곳을 찾아 교회로 모여듭니다. 주중 6일간 세상에서 패잔병이나 포로로 살고, 주일 하루만 교회에서 용사가 됩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사병이 신앙의 장교가 되려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가야 하니,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그냥 평생 신앙의 사병, 평신도로 살아갑니다. 뭔가 더 하고 싶지만 막연하고

길이 애매해서. ‘어쩔 수가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두 번째 돌판 위에 살아가는 경력직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발전하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앙역량이 두 개의 돌판, 즉 교회와 세상에 골고루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신앙의 장군과 장교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신앙의 장군과 장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일꾼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과 함께 세상에 있는 일꾼들이 스스로를 훈련해서 신앙의 장군과 장교로 발전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두 번째 돌판 위에서 싸우는, 평신도 신앙의 장군과 장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평신도신학과정과 평신도신앙실천운동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교회에서도 배워야 하고 세상과 현실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대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실망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할 믿음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해야 할 믿음의 일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실질적인 방법과 전망을 찾게 되면, 지금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교회의 과잉과 세상의 결핍을 해소할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제도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하려는 노력만큼이나, 교회 밖에서 해야 하는 신앙실천의 내용, 세상 속의 복음을 찾고 실천하는 기독교 평신도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Ⅲ. “세상 속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세상 속 복음’의 원리와 내용

‘믿음과 세상’의 관계, ‘교회와 사회(국가)’의 관계는 기독교 2천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하고 실족하면서,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답이 있거나 한지조차 의심스러운 ‘기독교적 수수께끼(Christian riddle)’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거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미케네 섬의 동굴처럼 처음 통로를 잘못 잡으면 무한정하게 길을 헤매고 빠져나올 수 없는 신앙적 미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평신도 신앙의 구체적인 문제의식들을 기초로 해서, 세상 속의 복음을 이해하고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사회의 통합적 이해에 관한 두 가지 ‘신학적 논의’를 검토해 보고, 둘째로는 주관적인 기독교 신앙과 객관적인 사회의 종합적 전개에 관한 두 가지 ‘법학적 논의’를 검토해 본

후, 셋째로 현실적인 논의와 실천의 방향으로서 경력직 평신도들에 의한, 경력직 평신도들을 위한 ‘두 번째 돌판의 신학(Theology on the Second Table)’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세상 속의 복음에 관한 신학적 논의

우리들의 문제의식인 교회와 국가(사회)의 관계, 복음의 교회적 의미와 복음의 사회적 의미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 가장 유력하게 참조할 수 있는 두 개의 신학적 논의로서 ① 김세운 박사의 복음관과 ②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칭의와 정의)에 관한 논의를 함께 검토해 봅니다.

1)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중대계명(김세운 교수의 복음관)

김세운 박사는 신약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설파한 하나님나라 복음(Gospel of the Kingdom of God)과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선포한 칭의의 복음(Gospel of Justification)을 종합하는 이중대계명의 복음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는 세상이나 삶에 대한 논의보다 주로 예수님을 통한 법정적 구원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법정적 복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하나님나라의 도래와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하신 관계적 구원의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어서(관계적 복음), 양자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신학적 의문에 대한 해명입니다.

김세운 박사가 법정적 복음과 관계적 복음의 종합을 시도한 내용의 요지는 ‘기독교 복음은 예수의 하나님나라 복음과 그것의 구원론적 표현인 사도와 바울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칭의의 복음인데,³⁾ 그 본질은 사람이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나라의 통치로 주권이 전이되어,⁴⁾ 사랑의 이중계명에 따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⁵⁾이라는 내용입니다. 김세운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법정론적 칭의와 관계론적 칭의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법정적 칭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간주되어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getting in)’이고, 관계론적 칭의는 ‘그렇게 들어간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종말의 시기까지 머무르는 것(staying in)’을 의미합니다.⁶⁾ 이렇게 해서 칭의의 복음은 관계적 칭의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나라 복음과 모순 없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온 전통적인 법정적 복음관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getting in) 구원’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들어가는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하고, 일단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좋은 일들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계명 중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

3) 김세운,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2013), 285.

4) 김세운, 칭의와 성화, 111-113.

5)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108.

6) 김세운, 칭의와 성화, 65, 82.

하지만, 이중계명 중 이웃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신앙의 별책부록처럼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만 하면 되고 세상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격렬하게 다투고 싸우지만, 그 이외의 일에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참여하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괴롭히는 친기독교적인 독재권력들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잘 지냅니다.

김세운 박사의 복음관은 구원의 본질적 내용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getting in)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staying in) 구원'의 내용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독교의 복음이 인간의 불의를 고백(告白)하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의를 극복(克服)하려고 씀씀하는 '이웃사랑'의 요소를 함께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사랑을 두 개의 대계명으로 요구하셨는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여섯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세 개의 기도와 함께 인간의 집단적인 삶에 대한 세 개의 인생기도가 들어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첫 번째 돌판(1-4계명)과 함께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두 번째 돌판(5-10계명)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운 박사의 이중계명 복음관에 의하면, 인간의 불의를 고백하는 법정적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복음', 교회의 신앙생활을 요청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관계적 구원의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세상의 복음', 세상과 인생 속의 신앙생활을 요구합니다. 세상과 인생 속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관계적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분투하고 실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력직 평신도들의 주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경험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김세운 박사의 복음관에서 또 하나 유의미한 점은 관계적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불의, 인간의 아담적 실존으로 인한 절망을 놓치지 않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현실 속의 개혁주의는 외부(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지만 자기자신의 불의와 한계를 모르는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기독교인의 개혁주의, 사회참여에도 뺨 같은 인간의 불의, 나 자신의 불의에 대한 비둘기적 낭만성이 무능력한 외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를 잘 아는 보수적 욕망을, 인간의 불의를 잊어버린 진보적 무모함은 감당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속의 복음을 해명해 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불의를 잘 아는 진보적 지혜,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는 보수적 절제가 필요한데, 이것은 김세운 박사가 설명하는 칭의적 구원(인간의 불의)과 관계적 구원(사회적 정의)의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칼 바르트의 '교회와 국가 Church and State' 이론

칼 바르트는 히틀러 국가사회주의(나치즘) 치하의 독일에서 1938년에 발표한 논문 'Church

and State(일명 Justification and Justice)’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치열하게 해명한 바 있는데, 이 논의는 ‘세상 속의 복음’에 관한 우리의 논의에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⁷⁾ 칼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기관(divine institution)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칭의(Justification)의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정의(Justice)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둘 다 하나님의 기관이고, 칭의(믿음의 법)와 정의(세상의 법) 모두 하나님의 법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와 칭의도 연구하고, 믿음으로 국가(세상)와 정의도 규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칭의의 기관이고 국가는 정의의 기관이라는 구별입니다.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선명한 구별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Yes’와 인간의 죄성에 대한 ‘No’는, 하나님(Yes)이신 예수의 인간(No)으로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No)’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Yes)’로 극복되는 변증법적 종합으로 나타납니다.⁸⁾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와 종합에 관한 위 원리를 교회와 국가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대하여 부여한 칭의(Justification)의 기능’과 ‘하나님이 국가(사회)에 대해서 부여한 정의(Justice)의 기능’에 대한 선명한 분리와 구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의 기능과 국가의 기능은 명백히 다릅니다. 교회의 기능은 불의한 인간을 의롭다 하는 ‘신적인 칭의(Divine Justification)’를 선포하는 것이고, 국가의 기능은 ‘인간 사이의 정의(Human Justice)’를 관리하는 것입니다.⁹⁾ 교회와 국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행하는 거룩한 기관(instrument)이지만, 교회와 국가의 차이가 결코 무시되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적 칭의와 인간적 정의는 명백히 서로 다른 개념과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또한,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기관이므로 ‘기독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칭의(Justification)가 주된 작동 원리이지만, 국가는 한 지역의 국민이면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강제적으로’ 포함시켜 작용하는 기관이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Justice)의 요구가 주된 작동원리로 됩니다.¹⁰⁾ 그러므로 칭의를 담당하는 교회가 국가의 정의 기능까지 차지하려는 신정국가(Church-State)가 되면 중세 교황시대의 종교재판소(Inquisition)나 최근의 이슬람국가(ISIS)에서 보듯이 사회의 정의 기능이 무시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특히 믿지 않거나 다른 신앙/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¹¹⁾ 인간 사이의 정의를 담당하는 국가가 국가에 대한 신적 존경과 숭배를 요구하는 국가교회(State-Church)로 나아가면 히틀러의 독일 나치즘, 천황숭배의 일본군국주의, 스탈린의 공산주의 공포정치처럼 악마적 국가(Demonic State)가 나타나게 됩니다.¹²⁾

7) Karl Barth, "Church and State" in *Community, State and Church: Three Essays*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4), 101-148.

8) David Haddorff, "Karl Barth's Theological Politics," in Karl Barth, *Community, State and Church: Three Essays*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4), 18.

9) Barth, "Church and State," 102.

10) Barth, "Church and State," 131.

11) Barth, "Church and State," 132.

기독교인의 사명은, 한편으로는 크리스천으로서 인간의 불의와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Christian Proclamation),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공동의 정의를 유지, 수호, 발전시켜야 하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Christian Responsibility).¹³⁾

기독교인이 칭의에만 매달리고 정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국가(사회)는 완전히 불의에 빠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반면 사람이 사회적 정의만을 추구하고 인간의 본질적 불의, 즉 칭의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인간의 불의에 침윤된 불완전(不完全)한 사회적 정의’를 ‘의로운 인간들이 성취하는 완전(完全)한 사회적 정의’로 착각하게 되어, 정의의 과잉(過剩)에 의한 또 다른 불의와 폭력 및 실패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칭의)도 구하고 사회의 정의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불의와 정의 사이의 긴장을 지극히 예민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집니다. 인간의 불의에 안주해서 사회적 정의를 배척하는 것도 죄악이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면서 인간의 불의 즉 칭의의 필요성을 잊어도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칼 바르트는 우리가 논의하는 ‘세상 속의 복음’이 하나님의 기관인 국가(사회)에서 인간들 사이의 정의를 관리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의 이러한 논의에서도 한 가지 불충분한 점을 지적한다면, 국가(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절망(No)과 하나님의 은혜(Yes)에 대한 그의 신학적 변증법을 한걸음 더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국가(사회)의 정의(justice)라는 것도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정의하기(define)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지는 즉 정의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국가)에도 ‘인간의 정의로운 지향(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불의한 욕망(인간의 죄성)’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정의는 쉽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의 계시에 조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거나 그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은 동시에 자기사랑에 빠진 불의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정의에 저항하고 사회적 불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칼 바르트의 사회와 국가에 관한 논의를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속에 인간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불의가 왜 발생하고 존재하고 지속되는지(인간의 절망-인간 본성의 ‘No’), 이러한 사회적 불의에 왜 기독교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인간 세상이 히틀러 시대와 같은 지옥에 빠지는 것을 막고 저항하며 조금씩이라도 사람 사이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정의를 전진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인간의 소망-하나님 형상의 ‘Yes’)를, 둘 다 함께 바라보는 기독교적 사회관, ‘세상 속 복음’의 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Barth, "Church and State," 143.

13) Barth, "Church and State," 102.

2. 세상 속의 복음에 관한 법학적, 철학적 논의

세상 속의 복음이 갖는 객관적 성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의 법학적 및 철학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기독교의 2천 년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Harold Berman의 법과 종교와 혁명의 관계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 사회가 어떻게 변증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헤겔의 법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주관적 이해가 객관적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는 것입니다.

1) 세상과 교회의 역사적 관계 - Harold J. Berman의 법과 혁명(Law and Revolution)

미국의 법사학자인 Harold J. Berman은 그의 저서 '법과 혁명(Law and Revolution)'¹⁴⁾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여러 세기 동안 서구의 여러 혁명들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면서 서구의 법체계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제시했습니다. 교회나 신학의 입장에서 출발하면 세상의 법과 혁명이 교회와는 무관하거나 교회를 혼드는 인본주의의 움직임으로 보일 가능성이 큰데, 위 연구는 오히려 법과 혁명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현실적인 사회적 실체로서의 교회가 세상과 사회와 법률을 만들어나가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교회와 국가, 기독교와 세상 간의 관계에 관하여 전혀 다른 방향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erman은 서구의 여섯 개 혁명을 기독교와 연관지어 이해합니다.

첫째, 12세기의 교황개혁(Papal Reformation)은 로마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근대적 국가시스템과 법체계를 만든 교황혁명(Papal Revolution)이라 부를 수 있는 가톨릭 혁명에 해당하고, 둘째, 16세기 독일의 루터 종교개혁(Reformation)은 독일 공국들이 교황과 황제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독일혁명(German Revolution)에 해당하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혁명 또한 영국이 로마교회로부터 새로운 민족국가로 독립한 영국혁명(English Revolution)으로서 둘 다 종교개혁운동과 결합한 개신교 혁명에 해당하며, 셋째, 18세기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과 1776년의 미국의 독립혁명은 둘 다 기독교의 영향이 줄어들고 인간 이성애의 의존이 더 강해진 이신론(deism)적 혁명에 해당하고, 넷째, 20세기 초엽에 일어났다 말엽에 무너진 러시아혁명은 기독교를 배격하고 인간의 힘에 의한 종말론적 사회를 이루려고 했던 무신론(atheism)적 혁명이었다는 흥미로운 설명입니다.

그런데 Berman의 논의내용 중 '세상 속의 복음'에 관한 우리들의 토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꼭 참고할 필요가 있는 중요 내용은, ① 12세기 교황혁명 당시 로마교회가 주창했던 '두 개의 칼 이론(Two Sword Theory)'과 ② 16세기 루터개혁 당시 개혁교회가 주장했던 '두 개의 왕국

14)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vol.1,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Law and Revolution, vol.2,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Cambridge: Belknap Press, 2003)

이론 (Two Kingdom theory)' 등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우선 중세 로마교회의 두 개의 칼 이론은 로마서 제13장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개의 칼을 주셨는데 그 하나는 영적인 칼(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칼(국가)이어서, 이 두 가지 칼이 병존하여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으로,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바라보는 '세상 위의 기독교'를 설명해 줍니다.

다음으로 루터 종교개혁의 두 개의 왕국 이론은 본래 5세기의 오거스틴이 주장했던 것이고 '영원한 영적인 왕국(교회)과 임시적인 세속 왕국(국가)이 있는데 세속의 권력은 모두 세속왕국(독일의 군주들)에게 존재하는 것이어서 영적인 왕국을 담당하는 교회는 세속의 권력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5세기 오거스틴 당시에는 서로마의 멸망을 배경으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세상 밖의 기독교'를 강조했으나, 독일 군주의 보호와 동맹을 맺은 16세기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는 세상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협력하는 '세상 옆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하층 민중의 정치적 천년왕국주의가 분출했다가 탄압을 받았던 16세기 독일농민전쟁과 그 이후 20세기의 해방신학/민중신학/흑인신학 등 진보적 상황신학들은 세상의 하층에서 세상에 항의하는 '세상 아래의 기독교'의 분노와 정의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들을 종합하면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교회들의 정치적 모습과 신학적 사조들은 각각 그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름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교회 또는 기독교인들이 놓여있던 객관적인 상황과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 중 한 가지 입장만을 '세상 속의 기독교', '세상 속의 복음'을 파악하기 위한 절대적인 명제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세상 속의 복음'은 ① 세상 위의 기독교(보수주의), ② 세상 밖의 기독교(경건주의), ③ 세상 옆의 기독교(복음주의 소명론), ④ 세상 아래의 기독교(해방신학 등 진보신학)들의 상하좌우 부분적 진리성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포함하면서도 그것들을 더 큰 틀에서 종합하여 새로 구성하는 ⑤ '세상 안의 기독교, 세상 전부의 기독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이처럼 세상 쪽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Berman의 시각은, 현재 각각 자기의 진리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세상 위의 기독교)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세상 아래의 기독교)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경건주의 기독교(세상 밖의 기독교)와 정치적으로 다소 타협적인 소명론의 기독교(세상 옆의 기독교) 등이, 모두 자기 입장의 신앙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성'을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 입장들의 '부분적' 객관성과 필연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공존하고 경쟁하며 세상을 함께 움직여가는 기독교적 사회관 사이의 공감대와 공통적인 신앙적 이해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 '주관적인 기독교'의 한계와 '객관적인 기독교'의 필요성 - 헤겔의 법철학 전반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을 돌아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믿는 전통적인 복음관은 개인이 '주관적(主觀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서, 사회와 세상의 '객관적(客觀的)인' 사건들은 기독교인의 구원에 영향을 주거나 관계를 맺을 것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는 주관적인 기독교는 객관적인 세상에 관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황으로 되었고, 이것이 결국 주관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오늘날 객관적인 사회와 관계를 맺는 데 전체적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객관적인 정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21세기 기독교의 사회적 파탄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우리의 신앙이 주관적인 기독교의 한계를 넘어 객관적인 기독교의 지평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왜 있는지에 관해서 깊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그의 저서 '법철학'¹⁵⁾에서, '인간의 세계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으로 전개되는 현상의 세계라는 점, 개인의 주관성(인격, 욕망, 도덕)은 객관적인 세계의 대상(법-소유권/채권/불법행위, 공동체-가족/시민사회/국가)들과 만나서 마찰하고 전개되면서 발전한다는 점, 이처럼 세상의 객관성과 만나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지 못한 인간의 주관성은 자기 개인의 부분적 욕망과 개념과 판단을 전체의 개념과 의지로 착각하는 소아적인 불법의 실패를 하게 된다는 점' 등을 통해서, 사람의 주관과 세상의 객관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고, '세상의 객관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멈춰 있는 주관성'의 문제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의 주관성이 문제로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주관적인 신앙 양심 이외에는 객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무관심'함으로써 '세상 속의 복음', '객관세계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둘째는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주관적 신앙신조에 대해서 너무 확신한 나머지 세상의 객관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주관적 교리나 윤리관을 그대로 객관적인 세상에 강요하고 먹이려는 '무모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주관적 세계 참여의 가장 과격(過激)한 모습은 '반무슬림, 반이민, 반동성애' 등 일련의 기독교 '반(反)OO' 운동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세상의 객관적인 정의체계에 무관심한 기독교의 주관적인 탈선과 폭주에 가깝지 않은지 스스로를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자 자기의 절대적 선을 주장하는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 혐오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의 주관적 세계참여의 온건(穩健)한 모습은, '권세에 대한 존중'을 모토로 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적인 기독교와 '정의와 평화'를 모토로 하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가 주관적인 자기사랑만을 근거로 세계에

15) 헤겔 저, 임석진 역, 『법철학』, (서울: 한길사, 2008)

대해서 관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진보적인 기독교인이 주관적인 이웃사랑만을 근거로 세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관성과 세계의 객관성에 대한 헤겔의 변증법적 법철학은, 우리가 '세상 속의 복음'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기독교의 윤리관이나 도덕관에만 의지하지 않고 세계의 객관적인 성격과 운동을 파악하고 그에 관여해야 한다는 점, 즉 개인과 교회 속의 '주관적인 기독교'를 넘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객관적인 기독교'의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평신도들에 의한, 평신도들을 위한 '세상 속의 복음' - '두 번째 돌판 위의 복음'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신학적 논의와 법학적·철학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제안하는 경력직 평신도 중심의 '세상 속의 복음'은 성경의 삼대 강령인 이중계명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중의 인생강령들을 중심으로 하는 '두 번째 돌판 위의 복음(Theology on the Second Table)'입니다.

이중계명 중 하나님 사랑은 교회의 역할이고 이웃사랑은 세상과 사람들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중 전반부 3가지 청원은 하나님 기도(청원)이고 후반부 3가지 청원은 인생 기도(청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중 첫 번째 돌판(1-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계명들이고 두 번째 돌판(5-10계명)은 인간들 사이의 싸움과 인생의 씨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인생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이중계명 중 하나님 사랑, 주기도문 중 하나님 기도, 십계명 중 하나님 계명들에만 집중한 '첫 번째 돌판의 복음'(칭의의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으뜸가는 복음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세상과 인생의 일을 무시하고 성경적 강령들의 절반이 의미 없게 되므로, 이는 '유효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항하는 진보적 상황신학들은 이중계명 중 주로 이웃사랑, 주기도문 중 인생 기도, 십계명 중 인생계명들을 강조합니다(하나님나라 복음). 이 입장은 세상과 정의를 중시하지만 인간의 한계(절망성)를 다소 경시할 우려, 즉 첫 번째 돌판의 복음과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다소의 신앙적 이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또한 '의미가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첫 번째 돌판의 복음', 즉 하나님 사랑의 대계명, 주기도문의 하나님 기도,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의 하나님 계명들, 불의한 인간을 구원하는 법정적 칭의 복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돌판의 복음', 즉 이웃사랑의 대계명, 주기도문의 인생기도,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의 인생 계명들, 관계적 구원을 강조하는 하나님나라 복음의 필수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찾아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의 복음의 내용은 인간에 대한 희망(하나님 형상)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입장만을 취할 것이 아니요, 인간에 대한 절망(인간의 욕망과 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입장만을 취

할 것이 아니며, 성경이 가르치고 세상이 증명하는 인간의 죄성 및 불의함(No)과 성경이 포기하지 않고 세상도 보여주는 인간의 긍정적인 지향과 필요(Yes)를 함께,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칭의의 복음과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서로 배치되지 않고, 서로 보완하면서 종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기독교의 복음, 특히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 형상을 함께 바라보는 세상 속의 복음이 인간의 이상만을 강조하는 진보철학/정치의 한계와 인간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보수철학/정치의 욕망을 둘 다 이해하면서도 양자의 한계를 함께 극복해내는 ‘세상 속의 복음’으로 기능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적 역할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첫 번째 돌판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주된 책임 영역이라면, 두 번째 돌판의 복음을 찾고 실천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평신도들의 주된 책임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서 세상 속의 신앙을 책임지는 경력직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배운 첫 번째 돌판의 복음을 간직하고 진지하게 유지,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신앙적으로 분투하는 경력직 평신도들의 책임 하에 ‘두 번째 돌판의 복음’을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만들어나가는 ‘세상 속 복음’의 생산과 실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IV. 결론과 제언 -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신도운동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1. 개인적 평신도운동, 조직적 평신도운동, 그리고 전체적 평신도운동

결론적으로 저는 세 가지 차원의 평신도 신앙운동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는 직장 생활 현장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차원의 평신도 신앙운동’이고, 둘째는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등과 같은 평신도대중단체들을 중심으로 직역이나 지역의 공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차원의 평신도 신앙운동’이며, 마지막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평신도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전개하는 ‘전체적 차원의 평신도 신앙운동’입니다.

첫째 ‘개인적(個人的) 차원의 평신도운동’은 ‘직장과 생활의 사적(私的) 현장에서 행하는 신앙적 씨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운 ‘초월적(超越的)인 신앙’은 그것이 ‘사적(私的)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력직 평신도들의 진지하고 주체적인 현장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경력직 평신도들에게는 자기가 있는 직장이나 현장에서, 생활의 현실적 이슈들을 나누고 씨름하는 신앙모임이나 토론의 장을 만들고 유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목회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잘 되면 더 좋지만, 잘 안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천천히 지속해야 할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책무에 해당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일은 뒤에서 볼 조직적 평신도운동이나 전체적 평신도운동에 앞서, 그 기초로서 모든 경력직 평신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생활은 지극히 구체적이고 공적생활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 생활의 신앙적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 관점과 평신도운동의 관념이 구체적인 생활과 다소 떨어진 추상성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현장에서의 평신도신앙은 모든 평신도단체들이 소속 멤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격려할 평신도운동 실천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동적인 현장실천이 없이 단체의 회합에만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교회에서 수동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평신도상의 또 다른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조직적(組織的) 차원의 평신도운동’은 직역이나 지역의 공적차원에서 행하는 신앙적 도모를 의미합니다. 이는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등의 평신도대중단체들이 그 동안 추구해 온 내용이고 앞으로 여러 직업과 지역과 생활분야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독교직장인회, 기독교노동자회, 기독교엄마회, 기독교언론인회, 기독교기술자회, 기독교과학자회, 기독교예술인회 등 기독교인들의 집단적, 직종별 모임 및 지역별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력직 평신도들의 조직적 실천입니다.

이러한 조직적 노력은 해당 직역이나 지역이나 분야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담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궁구하며 실천하고, 초월적(超越的)인 신앙이 사적(私的) 생활을 거쳐서, (집단적 노력과 협력을 통해) 공적(公的) 책임으로 나가기 위한 조직적 매개체가 되며, 대부분 회원들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멤버들의 개인적 평신도신앙실천을 존중하고 지원하면서, 일부 선도적 회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멤버들의 조직적 평신도신앙 실천을 자극하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집단적/공적 신앙실천의 공간을 형성, 유지함으로써 소속 멤버들의 조직적 평신도신앙 실천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추진해야 하는 내용은 ‘전체적 차원의 평신도운동’으로, 이는 이러한 평신도대중단체와 노력들이 의지와 힘을 합하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도모하는 기독교 평신도운동을 의미합니다. 평신도대중단체들이 가지는 각론적 장점을 모아서 평신도대중단체들이 가지는 총론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평신도대중단체들의 협의체와 같은 연대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도교회는 개별 교회 속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평신도들의 세상 속의 내용을 틀을 잡고 토론하며 설명해 나가는 평신도신앙운동, 세상 속 복음에 대한 연합강좌, 연구모임 및 토론회 같은 평신도신앙의 연구와 토론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무너지고 있을 때, 각자 자기의 부분적인 일을 잘 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현대 기독교의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의 운명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기윤실, 기독교직장인모임 등 평신도 신앙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평신도의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평신도연합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신도운동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진지한 평신도들에게 ‘신학

적 사고능력'의 계발과 '평신도신앙실천'의 이론적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 2022년에는 (i) 2월과 9월, 2회의 대중적인 기독교시민대학 강좌(주제 돈, 교육)를 진행하고, (ii) 2022년 2학기에 평신도리더들의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을 위한 '평신도신학 석사 과정'을 신설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iii) 2022년 10월-11월에는 한국교회의 신학자들과 평신도 어르신 및 활동적인 리더들이 함께 강의하면서 평신도신앙운동의 조직화와 상시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1회 평신도신학교' 강좌(7주 7강)를 진행하여 '전체적 평신도신앙운동'의 구체적인 단초 내지 열매들을 맺어 나가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2022년 하반기부터는 전체적 평신도운동의 핵심적인 일꾼으로서 평신도 지도자의 신학적 훈련과 육성을 위한 평신도신학과정을 시작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전체적 평신도신앙운동을 책임지고 전개하기 위하여 평신도신앙실천운동을 창립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게는 5-6년, 길게는 20여 년의 노력을 통하여 '전체적 평신도운동'의 기본적인 틀과 모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만 하지 않고 개별교회와 제도의 한계를 넘어 평신도들이 '교회 밖의 신앙, 세상 속의 복음'을 구체화하고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 로잔을 넘어서, 진정한 주체들이 한 발 더 나아가는 평신도신앙운동을 모색하며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복음주의의 사명 중 하나로 인정한 1974년 로잔언약의 제5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윤실운동, 성서한국운동 및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운동 등 기독교 사회선교단체 및 평신도단체들의 활동과 비전을 뒷받침하고 보호하고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 결과 현재 숫자와 세력을 약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로잔선언의 정신(spirit)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해 온 주체는 오히려 로잔본보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기윤실, 성서한국 등 사회선교운동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로잔선언 제5항의 재확인이나 한국 사회선교운동의 노력에 대한 자부만으로는, 현재 적게는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크게는 전 세계 기독교가 나타내고 있는 사회적 불의와 공공약에 대한 지지와 지원 등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기독교의 사회적 파탄상을 상대하여 저지하지 역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로잔선언 제5항이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로 제시하고 한국의 사회선교운동이 그 주체성을 제고, 고양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대한민국의 기독교 평신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의 구경꾼, 수동적 방관자 역할을 유지하지 않고, 우선 진지하고 열심 있는 경력직 평신도들로부터 조직적, 집단적, 전체적으로 평신도의 신학적 사고능력을 제고하고 평신도들의 신앙실천활동을 이론화, 체계화하면서, '교회 밖 신앙, 세상 속 복음의 실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body)을 만들어 내는 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로잔을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50년 전 외국인 스위스 로잔에서 날아온 로잔선언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특히 각계각층, 경향각지에 남아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경력직 신도들의 신앙 열심을 모아내고 조직하고 발동시켜서 진지한 평신도 경력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종합하는 평신도신앙실천운동을 만들어 내어 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개혁과 회복을 위한 평신도신앙운동의 단초와 출발 역할로서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무리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지리멸렬하다고 해도, 아직은 한국교회처럼 평신도, 생활인, 지식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발현시키는 것은 유럽과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유력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성공한 개별 교회들은 한국교회를 망치고, 교단들은 그 힘에 눌러 한국교회를 욱보이고, 목회자들은 개인의 목회와 생존의 압박에 간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력직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의 기본을 붙잡고, 직장과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현실적 실효성을 찾아나가면서, 직역과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세상 속의 신앙을 형성해 나감과 함께, 이를 넘어서 하나님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 경력직 평신도로서의 전체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서서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사는 인생,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우리의 건강하고 생생한 신앙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목사님들에게 미루거나 핑계대지 말고, 우리 평신도들의 각오로, 우리 평신도들의 힘으로, 우리 평신도들의 인생을 불태워보자고 호소합니다.

[논찬문]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에 대한 반성과 나아갈 길

정병오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1.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시작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 이전에도 한국 기독교 내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을 중심으로 사회선교 운동이 매우 활발했다. 이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암울했던 한국 정치 사회 상황 가운데서도 독재 타파와 민주화운동, 통일 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선도하고 있었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선교 운동은 복음에 기반을 두고 복음의 실천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선교를 펼치고 있었으나 복음주의 교회의 입장에서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선교 운동이 복음과의 연결 고리가 신학적 측면이나 운동의 방법론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 진영 가운데서도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양심의 반응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하지만 복음주의 주류 교회와 신학은 '영혼 구원 우선론' '정교 분리'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을 근거로 사회선교에 대한 움직임을 억누르고 있었다.

2. 로잔언약의 소개와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태동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복음주의 학생 운동 가운데 개혁주의 세계관, 로잔언약 등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선교에 대한 부분적 수용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로잔 언약은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합의한 문서였고, 이를 기초한 존 스토틀를 비롯한 신학자들은 복음주의 신학을 대변하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에 대한

주류 교회들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991년 <복음과 상황>, 1992년 남북나눔운동 등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3.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확산과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1990년대는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전성기였는데, 이때는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이 한국 교회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한국 교회의 힘을 입어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한국 교회를 총체적 선교로 전인하는 역할도 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경우 스포츠신문 음란 폭력물 근절 운동에서 이룬 성과들은 시민운동이 언론과 싸워 이긴 성과로 높이 평가받고 있고,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금권선거와 관권선거를 막는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교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 가능했었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선교를 몸으로 체득하기도 했다.

남북나눔운동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식량난 위기 상황에서 복음주의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교회들이 연대하여 교회들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남북 긴장 관계 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도록 이끔으로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다.

1984년 ‘한국헨리조지협회’로 출범한 ‘희년함께’는 1996년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어 성경적 토지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토지 공개념을 전파했고 노무현 정부 이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4.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분화와 왜곡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은 ‘성서한국’이란 이름으로 대중 동원 집회를 열기도 하고, 정치개혁, 평화, 여성 등 운동 영역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리고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등 총체적 선교를 지향하는 전문인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2004년 서경석 목사가 중심이 된 ‘기독교사회책임’, 2005년 김진홍 목사가 중심이 된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출범하면서 복음주의 우파 사회선교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선교 운동이 양분된다. 이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반공 이념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가 반미와 공산화로 가고 있다는 과거에 대한 미화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진단을 바탕으로 주류 복음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정치적 행동으로 이끌었다.

1990년대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이 주도하던 총체적 복음 운동과 ‘장로대통령 만들기’로 대표

되는 교회의 물리적 힘을 활용한 세속 권력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흐름 가운데 왔다갔다 하던 주류 복음주의 교회는 2000년 중반을 넘기면서 이념과 권력에 편향된 왜곡된 사회참여로 경도 됨.

5.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약화

2010년대 들어서 복음주의 우파 사회선교 운동은 반동성애, 반이슬람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별히 인터넷 매체 환경이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대중화되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동성애와 이슬람 관련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통해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이를 정치적인 선택과 연결한다.

한국 복음주의 주류 교회들은 그 동안 목회세습, 재정비리, 목회자 성 문제, 공세적 선교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신을 받고 선교가 위축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복음주의 우파 사회선교 운동과 결합하여 이념과 정파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함으로써 더욱 사회와 젊은이로부터 외면당하며 약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 추락과 약화는 한국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기반 약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온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과 한국 교회 사이의 재정적 인적 연결고리도 더 약화되었다.

6.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에 대한 반성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은 총체적 복음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성숙과 뒷받침 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필요에 대한 양심적 반응이 주가 되었기에 신학적 기반이 약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경우에도 존 스토틀나 로날드 사이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제리 파웰이나 팻 로벳슨 같은 기독교 우파 운동의 영향도 혼재되어 있었다.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은 이 운동의 기반인 복음주의 교회가 총체적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자극하고 교회와 함께 운동을 해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펼쳤다.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는 그 동안의 성장에서 오는 돈과 권력의 힘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특정 정치 세력들은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가치를 고리로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 선봉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고 다수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여기에 경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은 이러한 복음주의 교회의 흐름을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하고 주변화되고 말았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빠른 변화에 따른 세대 간 단절을 겪듯 복음주의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

동도 과거의 운동 과제와 방식에 매여 있고 급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과제들과 고민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운동의 연결 부분에서 고민을 안고 있다.

7.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전망과 전략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약화는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에도 위기 요소이긴 하지만 교회가 돈과 권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유혹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한다는 면에서 기획의 측면도 있다.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 교단 신학교들은 교권의 통제 하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교단 신학교 밖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총체적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를 가르치는 다양한 흐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기존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들은 기존의 관성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가장 불의가 넘치는 곳,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 이들의 고통과 함께 하며, 이러한 불의와 고통의 원인을 고칠 수 있는 운동을 펼쳐나감으로 운동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논찬문]

로잔 심포지움을 마치며, 한 사회선교운동가의 소회

구교형 _ 성서한국 이사장

2023년 6월 ‘50년 로잔운동 역사 속의 한국교회’(1차)을 시작으로 ‘로잔을 통해 시작된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의 여정’(2차), ‘로잔운동과 청년 사역의 과제’(3차), ‘로잔운동과 신학적 과제’(4차)에 이어 오늘 ‘로잔 너머, 이제 한국교회 어디로?’(5차)를 끝으로 심포지움을 마친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4차 로잔대회(2024. 9. 22.~24.)를 두고 지나친 관심과 염려를 보인 게 아닌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9개월에 걸친 관심은 단지 로잔 운동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넘어 21세기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과제를 애써 고민해 보자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심포지움의 막을 내리며 나는 그중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을 해 온 현장 실무자로서 다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미완의 과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1. 로잔 운동의 고민은 4차 로잔대회로 끝나지 않는다.

1) 로잔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본질은 변치 않고 항상 영원하지만, 그 복음을 각 시대에 적용하는 우리의 이해는 늘 달라져야 한다. 이는 이방 선교를 놓고 격돌했던 예루살렘 회의(행 15장)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그러므로 복음의 적용에 관한 한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른 복음 운동의 변화는 로잔 운동 이전에도 있었다. 넓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개신교보다 훨씬 무거운 철갑을 입고 살아온 가톨릭 세계에서 20세기 들어 세상이 뒤집힐 만한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 교황 요한 23세의 제의로 개최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가톨릭은 개신교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가족들과 공산권을 초대했으며, 평신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와 이웃을 향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협력과 공존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그 뒤에도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와 지금 프란치스코(2013년~현재) 교황 등을 통해 가톨릭의 성육신은 더욱 확실하게 자리 잡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래서 굳이 특별할 것도 없다. 로잔 운동도 복음은 영원하지만, 시대와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교회와 선교도 시대에 맞게 과제와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자는 뜻이었다.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말할 것 없이 딱 교회와 선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슬아슬하고, 미흡한 면도 많았지만, 주류적 빌리 그레이엄과 도전적 남미 제자도 그룹 사이에서 존 스토틀의 탁월한 조정력이 발휘되어 1974년 첫 단추를 잘 꿰었다. 그래서 10년쯤 흐른 1980년대 중반 저 멀리 한국 땅에서도 '난데없이' '엉뚱하게' 씨를 맺고, 30여 년이 넘도록 한국형 복음주의운동이라는 꽃을 피웠다.

그리고 로잔 50년을 맞아 4차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여, 지금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로잔 한국 준비위는 이러한 로잔 운동의 역사적 맥락, 신학적 배경을 좁게 이해하여, 오직 WCC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척점으로서 정체성을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내가 이해하는 로잔 운동은 성경적, 역사적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담아보려는 노력이다. 그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고, 부족하냐는 그 후 문제다.

4차 로잔대회에서는 '복음 전도와 사회선교 중 무엇이 우선이냐' 같은 이제는 식상한 되풀이보다 무엇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방식이며, 과제인지 더 진지하게 묻는 자리이기 바란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선교는 항상 중요하다. 그러나 선교 이름만 달면 뭐든지 정당화되어 온 선교적 거품, 세일즈 선교를 이제 걷어 내야 할 때다. 이슬람 선교의 최대 장애인 이슬람 혐오주의를 벗어내고, 이미 국내에 체류하는 수많은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를 나그네로 영접하는 환대 선교의 시도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구권을 뛰어넘는 비서구권의 성장과 역량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국제 로잔과 한국 준비위는 여전히 미국 등 전통적 서구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2) 대회 준비하다 얻은 뜻밖의 소득: 로잔 전문인 모임

로잔 운동(대회)은 본래 상설본부와 위임조직을 통한 일사불란한 사무 행정과 행사에 집중하기보다 함께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역할, 활동을 스스로 만들고, 묶어가는 수평적 네트워크 운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4차 대회 준비위원회도 지금까지 국제대회 준비와는 다르게 거품을 최대한 뺐, 훨씬 소박하고 실용적인 조직 형태를 갖춘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역시 목회자 중심적인 한계는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반면, 대회를 통해 열리는 다양한 주제별 그룹모임을 준비하는 로잔 전문인 모임은 1년여 전부터 200명이 넘는 주요 영역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다양한 논의를 만들어 왔다.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의미는 지금까지 '목회자, 직업선교사 및 해외선교, 메시지 선포' 중심의 선교 운동을 넘어서 '복음과 선교의 총체성', '전문인 평신도의 역할'을 지속적, 항상적, 자발적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시도한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도 이제 '밑으로부터, 밖으로부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때가 되었다.

다만, 전문인 모임 구성원이 여전히 의사, 법조인, 교수 등과 50대 이상 남성이 대부분인 것은 엘리트, 기성세대 한계를 벗어나야 할 심각한 과제를 남긴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의 고민과 과제이기도 하다. “선교 운동에 왜 사회참여가 들어가냐? 해외선교 외에 왜 세상 얘기가 들어가냐?”는 논란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 젊은 세대에게 로잔은 가까이하기에 너무 멀다.

결론적으로 로잔대회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제언을 필자가 2022년 9월, 뉴스앤조이에 기고했던 글 일부를 인용하여 대신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로잔 한국 대회가 단지 복음주의자로 불리는 특정한 개신교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익숙한 우리들의 언어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함께 들려져야 한다. … 지난 6월 '로잔 뉴욕 국제 리더십 회의(L4NY)'에서 유기성 목사가 했던 말처럼 한가하고 태평한 심정으로 큰 행사 하나 잘 치렀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대회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절박하고 겸손한 자세로 로잔 한국 대회의 참된 성공을 위해 더 깊이 성찰하고 절실히 고민해야 한다.”

2.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의 현실과 과제

지금까지 50주년을 맞는 로잔 운동의 한계와 과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로잔 운동의 한국적 적용을 계기로 시작해 30여 년을 지나온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도 마냥 편안히 다른 이들을 평가할 처지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 과제 설정, 운동 방식의 변화, 특히 운동가의 계승 등 큰 난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제 및 한반도 평화, 경제정의 및 빈부격차 문제, 정치개혁의 과제 같은 전통적인 주제뿐 아니라 21세기 들어 새롭게 주목받는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젠더 과제 및 동성애 문제, 인구학적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등 다뤄야 할 현실과제가 녹록지 않다. 그러나 이를 대처할 우리의 역량이 많이 약하고, 시대적 추세도 중간 매개자를 두지 않고 원하는 이들이 직접 온오프를 활용해 활동하는 일이 많아졌다. 30여 년을 넘기는 우리 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식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런데 로잔대회를 앞두고 로잔 너머와 로잔 포스트 활동을 위해 1년 남짓 각 운동단체 및 선교 기관의 단체장과 책임자가 함께 만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뜻밖의 소득이다. 앞으로 로잔대회 활동을 넘어 한국교회와 사회의 중요한 과제와 이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다.

또한 우리 운동은 현실과제 대처 이상 하나님 나라와 총체적 복음, 성경적 세계관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보급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아왔다. 특별히 같은 하나님 나라, 문화명령,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승자독식, 약육강식, 강자 생존을 특징으로 하는 뉴라이트적 세계관 운동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이 전광훈을 매개로 20년 이상 사회적 경멸의 대상이 된 개독교 현상과 결합하는 것을 주목하고, 경계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독교 현상은 다음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교회운영 방식: 성장주의와 독단적, 폐쇄적 운영, 반지성주의와 맹신주의
- 지배적 의식구조: mammon숭배(물질만능주의)와 성공주의
- 사회의식: 약자(낙오자)에 대한 노골적 무시, 깊은 차별, 이질적 문화에 대한 반감
- 국가관: 국가와 체제를 절대화하는 국가주의와 냉전주의
- 만물관: 자연 착취적 인간중심주의, 자연정복주의와 도구주의

한국 복음주의는 협소한 전통적 복음주의의 틀을 뛰어넘어 개독교 현상의 주역인 가짜 복음주의를 부정하고, 복음 안에서 생명, 평화, 정의, 약자와의 연대가 하나님 나라의 모체임을 믿는 더 큰 연대망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믿는 진짜 복음주의가 세워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 경외함이 빠진 사회적 실천 활동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진보개혁적 기독교인일 수 없다. 이를 위해 성서한국대회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전문 강사를 찾아내어 연결했다. 성서한국 2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 역량에 대한 총체적 점검도 시급한 실정이다.

3. 우리의 미래는 있을까?

그러나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엇보다 함께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여 년 이상 함께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우리 운동과 자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만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객관적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 운동의 시작 당시 교회와 사회에 다리를 놓고, 꾸준히 후원하며, 바탕을 만든 70대 이상 선배들은 이미 또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들과 협력하고 갈등하며 20~30년 동안 실무를 책임져 온 50대 후반 이상 세대는 이제 각 단체 대표, 책임자로서 활동을 마무리해가고 있다. 잘했든 못했든, 이 둘은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 30년, 성서한국 운동 20년을 함께한 선후배였다.

이들에게는 여러모로 달라진 시기와 상황에서 역할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후배들에게 역할을 넘길 수 있을지 난제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충분한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공유하지 못한 선배 세대로서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한다. 이제 선후배들이 만나 다양한 마

음의 대화를 나눌 자리를 제안한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서로(세대)와 우리 자신에게 담
아두었던 다양한 소회와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 말이다.

마치며

지난 2월 3일 필자의 신간에 대한 부산 북토크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결론을 대신한다.

“특히 극단적인 한국에서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가로 산다는 것은 인기 없고, 재미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복음 전도 열정에는 전통교회에 못 미치고, 사회참여 열정에는 진보교회에
못 미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함’으로 정의된다. 그러다 보니 전통교회에서는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현장에서는 그저 에큐메니칼 진영을 따라가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그래
서인지 우리의 성과는 늘 초라해 보인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즉각적인 세상 변화를 기대하지만, 대부분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일하다 힘들 때 투정을 부리면, 가끔 이문식 목사는 임시정부 요인들 이
야기를 해 주었다.

‘우리는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활약이 늘 대단했던 것처럼 생각
하기 쉽다. 그러나 백범일지를 봐도 그들 대부분 일상은 늘 일본 경찰에 쫓겨 다니고, 월세도
못내서 더 짠 방으로 옮겨 다니고, 자주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작은 일들로도 서로 다투었다. 결
과적으로 임시정부 간판 하나 겨우 지켜낸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게 큰일이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을 기대하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긴 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버티고, 명맥만이라도 유지한 세월이 하나님 나라를 지킨 역사로 기억될 수 있
다. 로잔운동 50년 역사에서도 한국 복음주의 하나님 나라 운동 진영의 존재와 활동은 전 세계
를 통틀어 가장 활발하고, 독특한 성과를 만들어낸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
다. 우리 대부분은 로잔대회에 한 번도 참석해보지 못했고, 이번 대회에도 중앙무대를 차지하지
는 않지만, 우리야말로 로잔 운동이 낳은 진짜 장자임이 틀림없다. 인기 없지만 폼 안 나고, 별
로 성과 없는 우리 자리와 역할을 자랑스러운 운명으로 알고, 지켜가는 것도 딱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다.”

로잔너머 활동일지

정리 / 구교형

I. 목표/개요

국제 로잔운동 50주년을 기념하는 제4차 로잔대회가 2024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망한 국제복음주의 대회가 열린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기에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이원론적 세계관, 서구적 편향, 성공/성장주의 교회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지 등 로잔정신과 거리가 먼 행보를 걸어왔다.

이에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을 감당해온 몇몇 단체 대표 및 실무책임자들은 제4차 로잔대회 및 국제로잔 본부에 로잔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목적으로 ‘로잔너머’를 결성해 한시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II. 로잔너머 참여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기독교법률가회,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청어람ARMC

III. 일정/회의

- 구교형/이대행 만남
 - 날짜 : 2022년 6월 8일(수)

- 구교형/정민영 만남
 - 날짜 : 2022년 7월 20일(수)

- 구교형/정병오 만남
 - 날짜 : 2022년 7월 26일(화)

- 구교형/조샘 만남
 - 날짜 : 2022년 8월 8일(월)

- 구교형 뉴스앤조이 기고
 - 날짜 : 2022년 9월 20일(화)
 - 제목 : ‘2024년 로잔 한국대회에 바란다’

- 구교형/문지웅/오형국 만남
 - 날짜 : 2022년 11월 15일(화)

- 구교형/한철호 만남
 - 날짜 : 2022년 11월 30일(수)

- 로잔대회 첫 논의 모임
 - 날짜 : 2022년 12월 4일(일)

- 로잔대회 2차 논의 모임
 - 날짜 : 2022년 12월 9일(금)

- 한국준비위원회에 면담 요청서 발송
 - 날짜 : 2022년 12월 13일(화)
 - 별도 자료(**쪽)

- 로잔준비위측 만남
 - 날짜 : 2023년 2월 25일(토) 16시
 - 장소 : 서울영동교회
 - 참석 : 최형근, 한철호, 구교형, 김희석, 이병주, 정병오, 조성돈

- 로잔대응 논의
 - 날짜 : 2023년 3월 13일(월)
 - 장소 : 온라인(줌)
 - 참석 : 구교형, 김희석, 오수경, 이병주, 정병오, 조성돈, 현승호
 - 논의 내용 : 로잔대회와는 조직적 참여는 모색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우리의 역할이 그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 로잔대응 논의 모임
 - 날짜 : 2023년 4월 7일(금) 19시
 - 장소 : CLF 비전센터
 - 참석 : 구교형, 김희석(성서한국), 정병오(좋은교사), 조성돈(기윤실), 전재중, 이병주(CLF)
 - 주요발언 및 전체 스케치
 - 미리 올린 제안서들을 보니 우리 활동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다시 필요할 것 같다.
 - 첫째, 국제 로잔 및 한국 로잔, 한국대회에 대한 입장. 조직이나 본대회에 우리가 참여할

여지도, 의미도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

- 둘째, 프로그램 위원회의 전문인 네트워크의 참여 여부. 각 단체마다 자체적 필요에 따라 참여 및 불참을 정한다. 현재 CLF와 기운실은 참여할 사람이 없다. 좋은 교사는 몇 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성서한국은 네트워크에 관찰자로 참여하고 있다.
- 셋째, 우리 그룹의 자체적인 활동 여부(녹취가 아니라 기억나는 중요 발언 중심으로 기록해서 오락가락합니다).

‘후배들은 로잔 운동 자체를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리부터 로잔문서 읽기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해 보자는 것도 실효성에 회의감도 들고 로잔본부에 대한 분노가 크다.’ ‘한국에서의 로잔역사를 탐구하자. 몇 차례의 대회에 참석도 했지만 왜 정착되지 못했는지 등의 과정을 백서처럼 만들자. 이승장, 손봉호, 황병구 등이 중요 증언자가 될 만하다.’ ‘필요한 연합활동 속히 해 보자.’ ‘별도의 플랫폼을 다시 만들기보다 성서한국의 틀을 활용하자.’ ‘로잔 운동은 조직 운동이 아니기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우리도 얼마든지 로잔 정신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로잔 정신에 따른 사회선교운동만 아니라 해외선교운동, 교회 운동 등 한국기독교 전반에 대한 성찰과 우리 진영의 깊은 성찰까지 포함한 연속활동을 기획해 보자.’ ‘지금 한국 로잔 중심의 활동에 실망한 관심 그룹들도 접촉해 함께 해나가자.’ ‘지금 우리는 함께 하나 갈 공동과제들만 논의하는 자리니 개별단체들의 필요에 따른 활동은 알아서 하도록 하자.’ ‘우리 모임 이름으로 제안한 <로잔 너머>는 우리 운동이 로잔을 신학적 근거로 시작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그 정신과 과제를 넘어서 더 성숙, 발전해 나가야 할 과거-현재-미래의 정신을 담았다.’

- 결정사항

- 위 논의사항들을 반영한 연속모임을 시작하자. 매번(격월) 한 단체씩 돌아가며 연속심포지움을 책임지자. 성서한국(주최) 로잔너머 연속심포지움(격월 담당 단체가 주관)
- 6월: 기운실, 8월: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10월: CLF, 12월: 좋은교사
- 주제의 예 : 로잔의 신학과 실천, 로잔 운동과 한국교회, 한국 사회선교운동의 성과와 반성, 전망 등
- 다음 모임 : 5월 19일(금) 19시, 좋은교사 사무실
- 다음 모임에는 주요 연구자모임(이강일, 김종호, 조샘, 김선일)에도 연락하여 함께하자. 그리고 주제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단톡방에서 계속 이어나가자.

● 구교형/이강일 만남

- 날짜 : 2023년 4월 20일(목)

● 로잔너머 논의

- 날짜 : 2023년 5월 3일(수) 20시 30분

- 장소 : 온라인(줌)
- 참석 : 구교형, 김동춘, 김현아, 김희석, 이병주, 전재중, 정병오, 조성돈, 현승호
- 주요발언
 - 학술적 성격보다 전문적, 실천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선교학자들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 사회선교운동은 현황 소개보다 반성과 깊은 성찰과 모색까지 담아 1, 2로 나눠서 보다 구체적으로...
 - 로잔운동 자체에 대한 반복이 느껴지니 12월 주제는 6월에 담아도 좋지 않을까?.. 6월에 한 번에 정리: 로잔, 마닐라, 케이프가 한국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담자! 평가로.. -> 12월 주제 살려서 구체적으로 다뤄도 좋겠다.
 - 10월 주제 해외선교운동도 전문인들의 실천 중심으로 살려도 좋겠다.
 - 처음 홍보할 때 전체 윤곽까지 정해서 한 번에 보여주자. 물론 미정인 부분도 있으니 전체 주제와 일정만 먼저 홍보하고, 그때그때 발제, 논찬 정해서 추가 홍보!
6월 발제와 논찬은 오늘 윤곽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한국 로잔대회가 결핍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뭔가를 내야...
6월 이후 세부적인 논의는 로잔살롱과 함께? 로잔살롱이 함께해도.
로잔너머와 로잔살롱은 각자의 역할과 멤버가 있으니 긴밀히 소통, 협력하되 자기 일정대로 진행한다. 필요하면 서로 방문도 한다.
 - 성서한국대회(7월 27일~29일/서울여대) 기간 중 28일(금) 오전 시간을 로잔 운동 기획행사로 잡아주어도 좋을 것 같다.
- 결정사항(연속 심포지움 일정_격월 마지막 주 화요일)
 - 6월 27일 19:00~22:00 장소 : 서울영동교회
로잔운동과 한국교회(주최: 로잔너머 주관: 기윤실)
 - 8월 29일 : 로잔운동과 한국사회선교운동(주관: 성서한국)
 - 10월 31일 : 로잔운동과 한국해외선교운동(주관: 인터서브)
 - 12월 26일 : 로잔신학과 한국교회 갱신(주관: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 24년 2월 27일 : 로잔한국대회와 그 이후(주관: 좋은교사/CLF)
- 결정사항(운영 및 준비일정)
 - 심포지움의 운영과 구성방식은 각 담당단체가 임의로 하되 원로 인사말, 기본발제와 논평 또는 참석자 질의 등으로 구성한다. 첫 심포지움(6월)이 중요할 것.
 - 당장 재정이나 실무팀을 꾸리지 않고, 각 순서 맡은 담당단체가 행사비용을 책임진다(강사비, 홍보, 부대비용 등).
 - 심포지움은 온/오프 동시에 하되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자.
 - 심포지움을 유료로 할지 완전 무료로 할지도 한 번 더 논의해 보자.
 - 준비를 위해 다음 주(13일)까지 일정에 따른 담당단체가 각 심포지움 기획안 올린다.

- 그 다음 주간(15~20일) 단톡방에서 의견을 나눠 사전 조율한다.
- 예정된 모임(22일/좋은교사운동) 만나서 최종 확정한다.

● 로잔너머 심포지움 점검모임

- 날짜 : 2023년 5월 22일(월)
- 장소 :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 참석 : 구교형, 전재중, 조성돈, 이병주, 김현아, 현승호, 김희석

● 로잔너머 회의

- 날짜 : 2023년 6월 7일(수)
- 참석 : 구교형, 김현아, 김희석, 윤동혁, 이강일, 이병주, 전재중
- 회의 내용
 - 기존 심포지움 계획대로 잘하자, 유튜브 생중계만.
 - 출판 6월 말까지 우선 ivp 출판 타당성 등 확인 후, 출판처 결정.
 - 새로운 고려사항
 - 1) 국제로잔과 직접 소통로 찾기- 우리 자료 영문화 병행
 - 2) 시즌2 심포지움- 차세대와 라운드테이블이라도 열자(시즌2 혹은 심포지움없는 달?)
 - 3) 한국에도 로잔스타일 이슈 그룹이 재편될 수 있으면 국제 이슈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해보자. 이것이 성사된다면, 국내 사회선교단체의 새로운 재편과 협력사역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차세대와 만남도 이슈해결의 협력 속에서 가능할지도)
 - 7월 모임에서 새로운 고려 관련 아이디어 회의로 더 진전시켜가자.

● 구교형/김창환 만남

- 날짜 : 2023년 7월 2일(일)

● 로잔너머 심포지움 출판계획(안)

- 날짜 : 2023년 7월 13일(목)
- 참석 : 구교형, 이강일, 정모세
- 책 출판의 이유와 방향
 - 심포지움이 단지 2024년 로잔대회에 대한 우리 반응이 목표의 전부라면 백서라도 충분하다.
 - 그러나 이를 통해 로잔준비위원회와 내년 대회, 나아가 한국교회(특히 다음 세대)에 뭔가 남겨주려면 출판이 필요하다.
 - 그러려면 책에 대한 사전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심포지움 발제에도 단지 로잔 회고와 전

망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으면, 대회 전후 더는 관심 갖지 않는다.

- 발제문들의 내용과 형태의 통일성을 갖춘 편집이 필요하다. 또 이런 주제에 관심 갖는 교회나 단체, 개인이 지속적인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적용 질문, 도움 자료들을 넣어 활용도를 높인다.
- 24년 대회의 공식선언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잔 너머, 로잔 포스트)가 공식선언에 좋은 자극이 될 만한 사전 선언(고백문...)을 내고 주요한 국제 로잔 및 한국 지도자들의 서명까지 받는다면 좋겠다.
- 그리고 이 모든 성과들은 적당한 기회에 대회 준비위 쪽에도 전달하면 좋겠다.
- 출판물 위한 실무적 논의
 - 통상 IVP는 저자 원고료(기본인세 판매수익의 10%)를 제공하며 1,000~1,500부를 찍을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저자도 많고 분배 방식도 복잡하며 심포지움 내용만으로는 판매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일단 아래와 같이 잠정 합의하고 각자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한다.
 - 모든 발제자(저자)에게는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지하여 동의 받는다. 그리고 책정된 강사로 외에 추가 사례(인세)는 지급하지 않는다. 강의안은 반드시 풀 텍스트로 받는다.
 - IVP는 인세 대신 100권을 증정한다.
 - 로잔 너머는 300권을 구매하여 자체 소화한다(제공가는 정가의 70%).
 - 로잔 너머는 성과를 더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모색한다(출판기념회, 그룹스터디, 저자 특강, 각종 기고 등).
 - 여기에 젊은 세대(지금 50대 이상 논의 그룹 아래)를 참여시킨 연계 작업도 모색하면 좋겠다.
- 준비 일정
 - 8월 포럼 ~(강의안 계속 추적, 편집, 자료준비 등 출판작업 계속)~ 2024년 2월 포럼
 - IVP에 원고 넘겨줌(2024년 4월)
 - 2024년 5~6월 출판
 - 2024년 9월 : 한국대회

● 로잔너머 회의

- 날짜 : 2023년 8월 18일(금) 19시 30분~21시 30분
- 장소 : CLF 회관
- 참석 : 구교형, 김희석, 이병주, 전재중, 정병오
- 출판 관련
 - 출판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 심포지움 자체 준비보다 출판에 계속 에너지를 쏟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

-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출판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도 힘들고, 각 발제자의 글쓰기 스타일, 전체적인 흐름을 통일성 있게 편집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출판은 하지 않는다.
- 자료집/백서를 내는 것으로 정리하고, 기윤실 출판사를 이용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
- 심포지움 강사들에게는 미리 알려, 폴 텍스트 원고 받고 강사료 외에 추가 사례는 걸로.
- 격월로 이루어지는 심포지움 중간... 홀수 달에 이슈/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하자!
- 현재 5번의 심포지움이 훨씬 총론적 성격인데, 이슈/주제가 들어가면 좋은 보완이 될 듯.
- 2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4년 1월, 3월 등 세 번을 진행하면 좋겠다.
- 11월: 기후위기 문제(기후위기기독교인연대 주관)
 - 1월: 통일(윤환철 미래재단 사무총장에게 의사 타진)
 - 3월: 여성 또는 젠더 이슈(청어람ARMC에 의사 타진)
- 하게 되면 지금 심포지움처럼 주관 단체가 실무를 담당하고, 로잔 너머는 홍보 및 협력.
- 각 주제가 로잔 정신과 연계되어 정리. 발표되면 좋겠다.
- 로잔 포스트에서 준비 중인 '로잔 서울 고백문'
 - 앞서 로잔포스트 회의록 참조, 설명함.
- 각 심포지움 진행은 현재처럼 주관 단체가 실무를 맡되, 이걸 전체 통일적 역할은 지금처럼 기윤실이 담당한다.
- 8월 29일 2차 심포지움
 - 발제 2인(백소영, 구교형) 논찬 2인(박현철, 이성영). 인사말(강경민) 그리고 질의 응답 및 기도까지...
 - 큐시트 만들어서 시간 배분 및 타임 체크 철저히 할 것!
 - 사전 식사 인원 체크 및 식당 예약 진행: 당일 6시, 로잔너머 실무진(로잔 포스트 포함) 및 당일 행사 진행팀 및 발제/논찬자까지...
 - 참가 신청 링크 만들어서 막바지까지 계속 홍보 진행 및 온라인 참가자들에게 라이브방송 주소 발송.

● 로잔너머 모임

- 날짜 : 2023년 11월 14일(화)
- 장소 : CLF 사무실
- 참석 : 구교형, 김희석, 이병주, 전재중, 현승호

● 로잔너머 <Zoom회의>

- 날짜 : 2024년 4월 10일(수) 20시
- 참석 : 구교형, 이병주, 정병오, 현승호
- 로잔너머 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계획
 - 정병오 : 로잔에 대한 우리 기대와 현실과 괴리가 컸던 것 같다. 다만, 우리끼리는 뜻밖

의 교제가 좋은 열매였다. 로잔대회 자체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당초 얘기처럼 자료집 정리까지로 마감하면 좋겠다.

- 이병주: 비슷한 의견이다. 심포지움과 이슈포럼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자료는 남길 필요가 있다.
- 현승호: 혹시 단행본을 낸다 해도 필요한 수량만큼만 주문받아 무리 없이 소화하면 좋겠다.
- 결론 : 단행본이 아닌 내용을 묶은 백서를 내는 것까지 우리 활동을 마무리하자. 백서 실무 작업은 한 번 더 기윤실 사무국에 부탁한다. 백서 편집 일정 중 발표자가 원고를 더 수정하기 원하면 보완하면 좋겠다.
- 남은 재정 사용방법
 - 결론 : 어차피 백서를 낸다면 거기 충당하면 되겠다. 아직 얼마정도의 돈이 드는지는 알 수 없으니 일단 그렇게만 원칙을 정한다.
- 마무리
 - 백서 작업까지 마치면 적당한 때 그간의 수고를 위로하며 위로 회식자리를 갖는다.
 - 로잔너머는 그때 종료한다.

IV. 로잔너머 심포지움

● 1차 -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19시
- 주관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여는말씀 : 손봉호(기윤실 자문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 발제 : 이문식(광교산울교회 목사, 기윤실 이사)
- 논찬 : 강성호(안양일심교회 부목사, 고신대 기독교윤리학 외래교수), 김현아(기윤실 사무국장)

● 2차 - 로잔운동과 한국사회선교운동

- 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19시
- 주관 : 성서한국
- 여는말씀: 강경민(목사,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 발제 : 구교형 목사 (성서한국 이사장), 백소영 교수(강남대 기독교학과)
- 논찬 : 이성영(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박현철(청어람ARMC 팀장)

- 3차 - 로잔운동과 청년의 공감
 -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19시
 - 주관 : 로잔포스트
 - 여는말씀 : 오형국(목사, 청년신학아카데미 공동대표)
 - 발제 : 황규태(서강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서진(방송작가), 박다혜(노동조합법률원 변호사)
 - 논찬 : 전성민(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김종호(IFES 동아시아지역 부총무), 이강일(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 4차 - 로잔신학과 한국교회 갱신
 - 일시 : 2023년 12월 26일(화) 19시
 - 주관 :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 발제 : 김동춘(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배덕만(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학술부원장)
 - 논찬 : 이강일(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구교형(성서한국 이사장)

- 5차 - 로잔너머, 이제 한국교회는 어디로?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19시
 - 주관 : 기독교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 발제 : 김세운(플러신학교 원로교수)
 - 토론 : 이병주 변호사(평신도신앙실천운동 상임대표), 정병오 선생(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임 공동대표, 구교형 목사(성서한국 이사장))

V. 로잔너머 이슈포럼

- 기독교, 기후위기에 답하다
 - 일시 : 2023년 11월 28일 19시
 - 주관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여는 메시지: 이병주(청소년기후소송 대리인)
 - 발제 : 박현철(청어람ARMC 팀장), 김영준(기후위기기독인연대 공동대표)
 - 토론 : 김희석(성서한국 사무총장), 최미현 (기후위기기독인연대 활동회원)
 - 워크숍

- 위기의 한반도, 평화 전환은 가능한가?
 - 일시 : 2024년 1월 30일 19시

- 주관 : 성서한국
- 여는 말씀 :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
- 발제 : 윤환철(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김제이미(로잔운동 북한위원회 위원장)
- 논찬 : 이창현(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박예영(예영라이프 대표/통일코리아협동조합 전 대표)

● 복음주의와 페미니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 일시 : 2024년 3월 26일 19시
- 주관 : 청어람ARMC
- 발제 : 채송희(목사), 김은선(믿는 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토론 : 오수경(청어람ARMC 대표)

VI. 자료

● 2024 로잔대회 관련 면담 요청서

수신 :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이재훈 목사님

2024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의장 유기성 목사님

발신 : 한국 사회선교그룹 지도자 일동

구교형 성서한국 이사장,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 김동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1. 귀 위원회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는 로잔운동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사회선교 활동에 노력해 온 사회선교그룹 주요 단체의 지도자 일동입니다.
3. 우선,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로잔대회가 개최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4. 이에 저희는 이번 로잔대회의 준비과정에서 한국의 복음선교그룹과 사회선교그룹이 로잔 선언의 정신에 따라 서로 진심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2024 로잔대회의 의미 있는 개최에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한국로잔위원회 의장님 및 2024 제4차 로잔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의장님과의 공식 면담 및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선교그룹 지도자 일동에 대한 회신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대표, T: 010-8780-4092,

E-mail: byungjoolee@outlook.com,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5-1 태지빌딩 5층)

2022년 12월 13일

성서한국 이사장	구 교 형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정 병 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김 영 식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김 동 춘
기독법률가회 대표	이 병 주

● 면담에 대한 한국준비위원회 답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서신에 대한 회신이 너무 늦어져 죄송합니다. 연말연시 교회 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생각에만 머물다가 행동이 늦어졌습니다.

로잔 4차대회를 위한 한국준비위원회와 여러 사회선교 기관등과의 회동에 대하여 제안 주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로잔운동은 교단이나 기관 연합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한국로잔위원회도 국제 본부상에 공식적인 조직상의 위치가 없으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따라서 한국로잔위원회도 각 교단이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참여자들로 사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4차 로잔대회의 방향은 국제본부와 아시아교회와의 co-hosting으로 주최되며 한국준비위원회도 asia co-hosting committee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한국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전체적인 방향과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는 구조가 아니고 국제 본부의 여러 조직들이 이끌어 가며 한국준비위원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원하며 중보기도회 등을 통해 준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 등의 대표자들과 한국준비위원장과 제가 함께 협력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지는 것은 전체적인 방향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요 교단 총회에서 비슷한 제언이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로잔운동의 흐름과 맞지 않기에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한국준비위원회는 준비조직도도 만들지 않고 실행조직으로만 움직여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연합행사의 부정적 측면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4차로잔대회 준비는 기존에

로잔운동에 참여해 온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는 로잔신학과 정신에 동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역하시고 계시거나 원하는 모든 분들은 환영하며 개인적인 참여는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적 대화 모임'과 '목회자 대회' '로잔교수회' '로잔신학생동아리'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만일 4차 로잔대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국로잔위원회의 참여자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참여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며 만남을 제안하신 분들처럼 사회선교 사역에 오래 헌신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가 자격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협력 미팅은 성사되기 어렵지만 격의 없는 티타임이나 식사 자리를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와 공적 책임에 대하여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향후 로잔4차 대회에 대한 의문이나 제언 등은 한국로잔위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한철호 선교사님이나 최형근 교수님과 논의하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드림

로잔너머 참여 단체 홈페이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www.nics.or.kr
기독교법률가회	www.clf.or.kr
성서한국	www.biblekorea.org
좋은교사운동	www.goodteacher.org
청어람ARMC	www.ichungeoram.com